

QA시스템
聖經研究
시리즈

58

히브리서

기독교지혜사

성서연구원

BIBLE RESEARCH GROUP

히브리서

Hebrews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12:2)

ἀφορώντες εἰς τὸν τῆς πίστεως ἀρχηγὸν καὶ τελειωτὴν Ἰησοῦν, ὃς ἀντὶ τῆς προκειμένης αὐτῷ χαρᾶς ὑπέμεινεν σταυρὸν αἰσχύνης καταφρονήσας, ἐν δεξιᾷ τε τοῦ θρόνου τοῦ θεοῦ κεκάθικεν.

히브리서 차례

히브리서 서론.....	〈13제〉	… 11
제 1 장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하나님 아들의 영광	〈15제〉	… 18
제 2 장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에 속한 성도	〈17제〉	… 26
제 3 장 모세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	〈17제〉	… 35
제 4 장 믿음으로 얻을 하나님의 안식	〈12제〉	… 43
제 5 장 레위인들의 제사장직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직.....	〈12제〉	… 50
제 6 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굳게 지키자	〈17제〉	… 56
제 7 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15제〉	… 64

제 8 장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운 새 언약	〈13제〉	… 70
제 9 제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	〈22제〉	… 76
제 10 장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인내(忍耐)	〈21제〉	… 87
제 11 장	믿음의 본질과 그로 인한 삶	〈26제〉	… 97
제 12 장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21제〉	… 109
제 13 장	성도가 지켜야 할 생활	〈24제〉	… 120

히브리서 특별 자료 차례

히브리서 서론 〈화보 자료〉	히브리서 사본	17
-----------------	---------------	----

제 1 장	〈연구 자료〉	히브리서에 나오는 기독교론과 종말론.....	24
제 2 장	〈본장의 요절〉		34
제 3 장	〈본장의 요절〉		42
제 4 장	〈화보 자료〉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49
제 5 장	〈연구 자료〉	신약 시대의 편지 양식	55
제 6 장	〈본장의 요절〉		63
제 8 장	〈본장의 요절〉		75
제 9 장	〈연구 자료〉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	86
제 10 장	〈본장의 요절〉		96
제 11 장	〈화보 자료〉	노아의 방주.....	108
제 12 장	〈연구 자료〉	천사(天使)	119

히브리서 서론

1. ㉠ 본서신의 명칭에 대하여 설명하라.

- ㉠ (1) 본서의 본래 명칭인 '히브리인들에게'라는 표제는 매우 일찍부터 나타난다.
 (2) 그 한 예로 A.D. 2세기 후반에 활동한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판테누스(Pantaenus)와 터툴리안(Tertullian)이, 본서의 저자는 바울 또는 바나바로 각각 다르게 주장하면서도 본서의 표제만은 '히브리인들에게'로 표기했다.
 (3) 그러나 이들은 본서신에 왜 '히브리인들에게'라는 표제가 붙여졌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다.
 (4) 그런데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은 본서신에 나타난 문체의 특색이 구약울 인용 설명하고 있다는 데서 구약에 익숙한 흠어진 유대인들에게 본서신이 보내졌으리라는 것이다.
 (5) 또한 바울 서신 중에서 '...사람들에게'라는 표제와 조화를 시키기 위해 '히브리인들에게'라는 표제를 붙였을 것으로도 추정한다.
 (6) 따라서 본서신은 이미 A.D. 2세기 이전으로부터 '히브리인들에게'란 표제로 널리 읽혀지고 있었지만 그 표제가 붙여지게 된 근거에 있어서는 확실치가 않다.

2. ㉠ 본서신의 저자에 대하여 설명하라.

- ㉠ (1) 누가 이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썼는가 하는 것이 본 서신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열쇠임에 틀림없다.
 (2) 그렇지만 본서신의 저자에 대한 여러 학자들간의 견해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본서신의 저자 문제는 본서신의 명칭처럼 확증될 수 없는 것이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본서신의 저자로 바울, 아볼로, 바나바, 누가, 디모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빌립 집사 그리고 로마의 클레멘트(Clement of Rome) 등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이 중에서 유력한 저자로 떠오르는 사람은 아래와 같다.
 (4) 첫째, 인간으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것(2:14-17; 롬8:3; 갈4:4),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9:15; 롬3:26; 고전1:30) 그리고 중보자로서의 그리스도에 대한 것(7:25; 롬8:34) 등에 근거하여 바울이나 그에 의해 영향을 받은 자를 본서신의 저자로 본다(Pantaenus, Eusebius).
 (5) 그러나 본서신은 구약 성경의 헬라이어 역인 70인역(LXX)에서만 본서신에 언급된 구약 성경 귀절을 인용했으며, 바울의 문체보다 훨씬 유창한 헬라이어를 구사하고 있고, 특히 바울 서신에서는 한번도 언급된 적이 없는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과, 2:3에 따라 저자가 사도에게서 배운 또는 영향을 받는 사람이라는 점 등을 통해서 바울 저작을 부인하게 되는 근거가 된다.
 (6) 둘째,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했던 바나바를 들 수 있는데(Tertullian, Weiss, Zahn), 그는 '권위자'라는 이름(행4:36)을 가질만큼 교회에서 유력한 인물로서 헬라 사상에 젖어 있던 구브로 출신의 레위인이었으며, 그런 점에서 제사 제도를 구속사에 정확하게 적용하여 기술할 수 있었을 것이다.
 (7) 뿐만 아니라 그는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했으므로 사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암시되는 2:3의 내용과도 부합된다.

12 히브리서 서론

- (8) 그러나 이 주장은 초대 교회의 외적 증거가 없기 때문에 바나바의 저작으로 단정지을 수 없다.
- (9) 세째, 헬라 사상의 중심지라 할 수 있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인 아블로를 들 수 있다(Luther, De Wette 등). 왜냐하면 그는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행18:24)였기 때문이다.
- (10) 다시 말해 그는 헬라 사상에 익숙해 있었으며 구약 성경에 능통한 자였으므로 본서와 같은 유창한 헬라어를 구사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70인역을 중심하여 구약을 많이 인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 (11) 또한 그는 고린도 교회에서 아블로파를 이룰만큼 교회에서도 매우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으므로 본서의 저자로 추정될 수 있다(참조, 고전3:4).
- (12) 그러나 이런 주장 역시도 초대 교회의 외적 증거가 없으며 특히 그는 학문과 성경에는 능한 자였는지 모르지만 성령의 세례에 대한 깊은 체험이 없었으므로(참조, 행18:25-28) 그 근거가 미약하다.
- (13) 그러므로 우리는 본서신의 저자가 헬라 사상과 헬라어에 익숙한 자이며, 70인역을 잘 알고 있으며, 특히 구약 성경에 능통한 자라는 사실 외에 그 어떤 추측도 본서의 저자가 누구지에 대한 해답을 제공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초대 교회 교부 오리겐(Origen, A. D. 3C경)의 말대로 본서신의 저자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다.

3. ㉠ 본서신의 기록 연대는 언제인가?

- ㉠ (1) 본서신의 기록 연대에 대해서는 조기 기록설(A. D. 58-60, Ramsay)과 예루살렘이 로마의 디도(Titus) 장군에 의해 멸망되기 직전 설(A. D. 70이전)과 그 이후의 설(A. D. 80-90)로 각각 나누어진다.
- (2) 이와 같이 본서신의 기록 연대가 폭넓게 추정되는 것은 본서신의 저자가 불확실한 데 기인한다.
- (3) 그러나 우리는 초대 교회의 외적 증거와 본서신의 내적 증거를 통해서 본서신의 연대를 결정하는 데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다.
- (4) 첫째, A. D. 95년경에 쓰여진 클레멘트1서(저자는 로마의 클레멘트)에서 본서신을 인용했으므로 그 기록 연대는 그보다 후기가 될 수 없다.
- (5) 둘째, 본서신의 저자는 자신의 논지(論旨) 중 구약 성경의 제사 제도가 종료되었다는 것을 외적으로 가장 잘 입증시킬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A. D. 70)에 대한 것을 언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서의 저작 연대는 그 이전으로 소급될 수 있다.
- (6) 세째, 저자는 성도들이 박해를 받고 있는 형편에 놓인 것을 언급하고 있는데(참조, 10:32-36; 12:4) 이것은 아마 네로 황제의 박해(A. D. 65년경)였을 것이다.
- (7) 네째, 저자는 특별히 디모테의 석방 기사를 언급하고 있는데(13:13) 만일 그것이 그가 로마에서 바울을 도운 사역과 관련된 것이라면 그 연대는 60년대 후반이 될 것이다.
- (8) 따라서 본서신의 연대는 네로 황제의 박해에서 예루살렘 성전 파괴 사이의 어느 한 시기, 즉 60년대 후반으로 추정된다(Thiessen, Clarke, Alford).

4. ㉠ 본서신의 수신자(受信者)는 누구인가?

- ㉠ (1) 몇몇 학자들은 그 수신자들이 이방인이라고 하지만(Julicher, Scott) 성경의 내·외적 증거로 볼 때 유대인들이었음이 분명하다(Dods, Thiessen).
- (2) 그 내적 증거로는 선지자들과 이스라엘을 섬기는 천사에 대한 언급, 레위 지파에 의한 제사에 관한 언급 등을 들 수 있다.
- (3) 특히 복음을 받아들인 후 미혹되어 옛날 상태, 즉 유대교로 돌아갈 위기에 처한 자들이 있다는 기록도(6:4-6; 10:26-29) 본서신의 수신자들이 유대인들임을 입증하는

충분한 근거가 된다.

- (4) 또한 외적 증거로 본서신은 표제가 이미 초대 교회 초기에서부터 '히브리인들에게'라는 명칭으로 알려져 있었다는 사실도 수신자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보의 근거가 될 수 있다.
- (5) 이와 같이 본서신은 기록 연대와 마찬가지로 수신자에 대하여도 침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서신의 내용 가운데 이미 수신자들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 그 특징이다.

5. ㉠ 본서신의 수신지(受信地)는 어디인가?

- ㉠(1) 본서신의 수신지에 대해서 팔레스틴(예루살렘)설, 이탈리아설, 알렉산드리아설 그리고 안디옥설 등 네 가지가 거론되지만 이탈리아설과 팔레스틴설이 가장 유력하다.
- (2) 이중에서도 팔레스틴(예루살렘)설보다는 이탈리아설이 몇 가지 성경의 내·외적 증거에 의해 더 지지를 받고 있다.
- (3) 그 이유로는 첫째, 본서신을 최초로 인용했던 사람이 바로 로마의 클레멘트(Clement of Rome, A.D. 95년경)이었다는 점이다.
- (4) 둘째, 이탈리아에 거주하던 성도들은 각 교회의 구제를 받아야 했던 팔레스틴 성도들과는 달리 가난하지 않았다는 점(참조, 6:10;10:34;롬15:26)이다.
- (5) 셋째, 본서 가운데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13:24)는 말은 이탈리아에서 떠난 자들이 이탈리아에 있는 동족들에게 인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다.
- (6) 넷째, 저자가 구약을 인용할 때 구약 성경의 헬라이어 역인 70인역(LXX)을 본문으로 사용했는데, 만약 수신자가 팔레스틴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구태여 70인역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 (7) 이와 같은 이유로 많은 학자들은 13:19에서 저자가 돌아가고자 했던 곳이 그 저자가 본서신을 보내고자 했던 장소인 이탈리아라고 주장한다(Holtzmann, Moffatt).

6. ㉡ 저자가 본서신을 기록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설명하라.

- ㉡(1) 본서신의 수신자인 일단(一團)의 유대인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 처음에는 여러 가지 박해와 고난을 잘 참아내었다(참조, 10:32).
- (2) 그러나 그 박해와 고난이 계속되어(2:15;12:4)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중에 그들 가운데는 차라리 박해를 받지 않는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는 경향을 띠게 되었다.
- (3) 이와 같은 위기는 불신(3:12), 교육의 부재(5:12), 공적 예배의 무성의(10:25), 기도를 소홀히 함(12:12) 그리고 불건전한 교리(13:9) 등에서 기인했다.
- (4) 이와 유사한 상황은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발생했는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대하여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참조, 갈2:16,21;3:11)는 복음의 진리로 변증의 글을 썼던 적이 있다.
- (5) 그렇지만 본서신의 저자는 수신자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현실에 맞게 풀어 가면서 기독교를 변증하는 방법을 택하여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연약한 성도들에게 권면하고자 했다.
- (6) 특히 저자는 구약 성경을 기독교론적인 관점에서 자세히 설명하면서 유대교의 주장을 통렬히 반박하는 동시에 기독교의 우월성을 입증하고자 했던 것이다.
- (7) 더우기 단순히 육신의 평안함과 전통적 규례에 매혹되어 유대교로 다시 전향하려는 자들에게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함으로써 흔들리는 그들의 신앙을 온전케 할 필요성을 느껴 본서신을 기록하게 된 것이다.

7. ㉢ 본서신의 기록 목적은 무엇인가?

- Ⓐ (1) 저자는 개종한 유대인들이 다시 종의 멍에를 메고자 하여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유대인들이 읽고 있는 구약을 인용하면서 그 구약을 성취하신 그리스도를 변증함과 동시에 유대교보다 기독교가 더 우월하다는 사실을 확립하고자 했다.
- (2) 무엇보다도 바울 서신과는 달리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구약의 제사 제도와 깊이 연관시켜 다룬 것이 본서신이 지니는 독특성이다.
- (3) 이렇게 함으로써 저자는 아직까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어리석음을 지적할 수 있었으며, 특별히 제사 제도의 완성자이신 그리스도를 변증함으로써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모세보다 그분이 뛰어나심을 입증하려 했다.
- (4) 이렇게 변증함으로써 본서는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했던 성도들에게는 다시금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하도록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비록 유대교로 돌아가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으로 인해 믿음이 연약해진 성도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이 될 수 있었다.
- (5) 이와 같은 사실은 저자가 수신자들에게 ‘깊이 생각하라’(3:1;12:5), 즉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는 변론 부분과 ‘권면’(헬, 파라클레시스)의 부분으로 나누어 논리를 전개했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8. ⓐ 본서신에서 저자가 사용한 문체에 대하여 설명하라.

- Ⓐ (1) 본서신의 문체와 양식은 신약의 다른 서신들과는 전혀 다르며 독특하다.
- (2) 특히 저자는 위로와 권면과 경고를 위하여 자신의 주요 신학 사상을 집결시켰는데 그 사상의 중심은 기독교론(Christology)이다.
- (3) 뿐만 아니라 저자는 본서의 논리를 전개하고자 논증(論證)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세련된 문학 수준과 수사 능력(rhetorically skill)을 보여 주었다.
- (4) 그래서 그의 문체는 헬라 산문(prose)의 전형(典型)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 (5) 또한 본서신은 다른 서신들보다 더욱 분명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서신(epistle)의 형식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매우 논리적인 변증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Deissmann).
- (6) 이러한 문체적인 독특성은 영적인 정결과 웅변적인 표현은 지니지만 문장이 약간 거친 바울의 문체와 비교되기 때문에 본서를 바울의 기록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짙다.
- (7) 그러나 본서신이 아무리 뛰어난 수사적 표현을 사용했으며 유창한 헬라어를 사용했고 그 문체가 독특하게 돋보이는 서신일지라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자가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는 주제를 부각시키는 데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훌륭한 문필가를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이 땅에 펼치신다.

9. ⓐ 본서신에 나타난 사상의 특징에 대하여 설명하라.

- Ⓐ (1) 저자는 자신의 모든 논리 전개와 초점을 기독교론에 맞추고 있다.
- (2) 그렇기 때문에 본서신에 나타난 사상의 특징은 유대교에 대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교의 우월성에 있다.
- (3) 이러한 주제에 맞추기 위해 저자는 논리를 전개했으므로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개념들을 사용하여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다.
- (4) 그 대표적인 예로 첫째, 다른 어떤 책에서도 거론되지 않았던 멜기세덱에 관한 것이다(7:1-14).
- (5) 둘째, 다른 어떤 책에서보다 더 많이 그리고 더 자세하게 구약의 제사 제도를 그리스도와 관련시켜 적용시키고 있으며, 특히 구약의 사역을 연관지어 구약에 제시되었으며 신약에서 성취된 그분의 구속 사역을 설명하고 있다.
- (6) 셋째, 알고 지은 죄의 문제와 회개의 문제도 다루어지고 있는데(10:26;12:17) 이것은 훗날 해석학적인 논쟁거리가 되었다.

- (7) 네째, 저자는 바울의 서신들에서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보다는 구약의 성도들이 지녔던 믿음, 즉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믿었던 그 신앙을 설명하면서 꺾박과 고난으로 인해 낙심한 성도들에게 위로와 권면을 했다.
- (8) 그렇다고 해서 본서에서 사도 바울의 사상의 핵심이 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以信得義)는 사상이 전적으로 무시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이미 앞에서(1-10장) 기독교론을 취급하면서 전제된 바 있다(3:19;5:9;7:25;9:15;10:38).

10. ㉠ 본서신에 나타난 사상적인 배경에 관해 설명하라.

- ㉠ (1) 본서신에는 뚜렷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내용과 형식적인 면에서 그 저변에 몇 가지 사상적 영향이 있었음을 볼 수 있다(참조, 2:3).
- (2) 그 대표적인 것으로 저자가 바울의 영향을 받았다는 데 근거하여 바울 사상이 본서신의 배경이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 (3) 물론 외형적인 면(문체와 용어)에서 볼 때 바울의 그것과 대조적인 면이 있다. 그렇지만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 저자는 바울의 사상을 기반으로 하면서(참조, ㉠ 9) 그의 사상을 발전시켰던 것이다.
- (4) 또한 저자는 헬라 사상을 본서의 사상적 배경으로 삼고 있다.
- (5) 여기서 헬라 사상이라 함은 헬라 철학 뿐 아니라 그 철학을 구약 성경의 해석의 원리로 사용한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사상을 의미한다.
- (6) 이 알렉산드리아 신학에서 구약 성경을 헬라 철학의 관념론에 근거하여 우화적인(allegorical) 해석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본서에서 저자가 기독교론을 전개함에 있어서 알렉산드리아 신학의 로고스(logos, 말씀)론을 이용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 (7) 또한 이러한 것은 저자가 알렉산드리아 신학의 산물이라고도 할 수 있는 70인역(LXX)을 전격 사용했다는 사실에 의해서도 지지받을 수 있다.
- (8)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들로 하여금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 그들의 학문, 사상, 교육 정도, 문체까지도 사용하시며 영감하셨다는 영감의 교리를 배울 수 있다.

11. ㉠ 본서신에는 구약 성경이 어느 서신보다 많이 인용되었다. 이에 대하여 설명하라.

- ㉠ (1) 본서의 저자가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서술하기 위해 많은 구약 성경을 인용했는데 그중에 즐겨 사용한 전거(典據)는 모세 오경과 시편이며, 그 나머지는 예언서와 역사서 그리고 잠언이다.
- (2) 그 인용된 회수를 살펴보면 모세 오경이 직접적으로 12회, 간접적으로 39회 인용되었으며, 시편에서 직접 인용한 것이 11회, 간접 인용이 2회, 예언서에서 직접 인용이 4회, 간접 인용이 11회, 역사서에서는 단 1회의 직접 인용만 그리고 잠언에서 직접 인용이 1회 간접 인용이 1회에 걸쳐서 언급되었다.
- (3) 즉 우리는 본서신의 저자가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것 중에 오경과 시편에서 23회를 직접 인용했음을 발견할 수 있다.
- (4) 여기서 특기할 사실은 본서신의 저자가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그가 인용한 성경의 인간으로서의 저자를 도외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물론 이에 대한 예외가 4:7;9:19;20에 제시되어 있다).
- (5) 즉 본서신의 저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일반적으로 자기가 인용한 귀절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돌린다(참조, 2:11,12;3:7;10:5이하;예외, 2:6).
- (6) 본서신의 저자가 이러한 표현법을 사용한 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쓴 저자가 하나님임을 강조하고자 함이며 동시에 그 말씀을 인용하여 논리를 전개하는 자신의 논지는

16 히브리서 서론

신빙성을 확보하고자 함이다.

- (7) 이와 같이 우리들도 성경을 대할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그 말씀을 변질시키거나 가장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할 뿐 아니라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오늘에 적용시킬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12. ㉠ 본서신의 대지를 구분하라.

㉠(1) 뛰어나신 그리스도 / 1:1-5:10

- ① 하나님의 아들로 뛰어나심 / 1:1-3
- ② 천사들보다 뛰어나심 / 1:4-14
 - ㄱ. 이름이 천사보다 뛰어나심 / 1:4-6
 - ㄴ. 천사들에게 경배를 받으심으로 뛰어나심 / 1:7-9
 - ㄷ. 하나님 우편에 계심으로써 뛰어나심 / 1:10-14
- ③ 큰 구원을 이루신 자로서 뛰어나심 / 2:1-9
- ④ 고난을 이기심으로 뛰어나심 / 2:10-18
- ⑤ 모세보다 뛰어나심 / 3:1-4:13
 - ㄱ. 집 지은 자로서 뛰어나심 / 3:1-4
 - ㄴ. 집 말은 아들로써 뛰어나심 / 3:5,6
 - ㄷ. 안식에 들어가게 하시는 자로서 뛰어나심 / 3:7-4:11
 - ㄹ. 살아 있는 하나님의 말씀 / 4:12,13

(2) 그리스도의 뛰어나신 대제사장직 / 4:14-5:11

(3) 권면 / 5:12-6:20

- ① 장성하지 못하는 신앙 / 5:12-14
- ② 장성함에 대한 권면 / 6:1-3
- ③ 신앙의 타락에 대한 경계 / 6:4-8
- ④ 인내에 대한 권면 / 6:9-12
- ⑤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 / 6:13-20

(4) 멜기세덱 / 7:1-28

- ① 멜기세덱의 우월성 / 7:1-10
- ②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 그리스도 / 7:11-14
- ③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이 뛰어난 이유 / 7:15-28

(5) 새롭고 더 나은 언약 / 8:1-10:39

- ① 그리스도의 더 우월한 사역 / 8:1-7
- ② 폐기된 옛 언약 / 8:8-13
- ③ 옛 성소와 그 의식 / 9:1-10
- ④ 새 언약의 피 / 9:11-14
- ⑤ 새 언약의 증보자이신 그리스도 / 9:15-22
- ⑥ 완전한 제사 / 9:23-28
- ⑦ 유일한 속죄 제사 / 10:5-18
- ⑧ 새 언약의 증보되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굳게 하라 / 10:19-39

(6) 믿음의 정의 / 11:1-20

- ① 믿음의 의의 / 11:1-3
- ② 홍수 이전 사람들의 믿음 / 11:4-7
- ③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 / 11:8-19
- ④ 족장들의 믿음 / 11:20-22

- ⑤ 모세의 믿음 / 11:23-28
 - ⑥ 출애굽 세대의 믿음 / 11:29-31
 - ⑦ 하나님의 종들의 믿음 / 11:32-38
 - ⑧ 하나님의 약속 / 11:39,40
 - (7) 그리스도를 바라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 12:1-13:19
 - ① 우리의 본이 되신 그리스도 / 12:1-3
 - ② 삶의 연단 / 12:4-11
 - ③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권면 / 12:12-17
 - ④ 그리스도인의 삶의 추진력 / 12:18-24
 - ⑤ 흔들리지 않는 나라 / 12:25-29
 - ⑥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 13:1-19
 - Γ. 사회적 의무에 있어서의 사랑 / 13:1-6
 - Λ. 영적 의무에 있어서의 사랑 / 13:7-19
 - (8) 축복과 마지막 권면 / 13:20-25
13. **Q** 본서신의 요절을 말하라.
- A**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介意)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12:2).

화보자료

히브리서 사본. A. D. 4세기경에 헬라어로 기록된 히브리서의 바티칸 사본이다.



히브리서는 성경 중 그 저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책 중의 하나이다. 혹자는 바울이 그 저자일 것으로 추정하기도 하나 이를 충분히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불확실하다.

제 1 장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하나님 아들의 영광

단락구분 1-2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오신 그리스도 / 3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 4-5 아들로
서 뛰어나신 그리스도 / 6-7 신분에서 뛰어나신 / 8-9 기쁨 부음 받은 자로서 뛰어나신 그리스도 / 10-12 영원
하신 그리스도 / 13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 / 14 섬기는 영으로서의 천사

1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2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
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3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
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4 저가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나는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5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
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6 또 만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7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
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며

8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
의 흠은 공평한 흠이니이다

9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은 즐거움의
기쁨을 내게 부어 내 동류들보다 승하게 하
셨도다

하였고

10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
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11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
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12 의복처럼 갈아 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
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13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
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니라

14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일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노

1. ㉠ 본장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라.

㉠ (1) 본장은 서두에서 창조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시되었으며(1절), 이 계획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하셨다는 사실을
전개하고 있다(2절).

(2) 이렇게 오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섬기며, 호위하며, 그분의 뜻을 전달하는 천사들보
다 뛰어나 그들의 경배를 받으신다(6절).

(3) 뿐만 아니라 그는 하늘나라의 통치권을 가지신 분으로서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정복될
때까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이다(13절).

(4)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구속 계획에서 이미 함께 제셨을 뿐만 아니라
친히 구속 사역을 담당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써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다.

(5)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재성(先在性)과 우월성을

인정하고 그분이 곧 하나님되심을 믿는 확실한 신앙에 든든히 서야 한다.

2. **㉠** 하나님은 자신의 구속 계획을 어떻게 나타내셨는가? (1절)

- ㉠** (1)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어야만 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들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며 또한 그에게 나아가는 길도 알 수 없기 때문이다(롬3:11,12,23).
- (2)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자신이 인간들에게 말씀하시기도 하며, 꿈이나 환상 등을 통하여 자신의 뜻을 알리기도 하셨다(창37:5;민12:6;단5:12).
- (3)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역을 위해 선지자들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자신의 계획을 계시하셨으며 죄로 오염되어 부패하고 무능력한 인간들을 위한 구원을 이루어 가셨다.
- (4) 그런데 이 구속에 대한 계시는 점진적으로 발전되는 양상을 띠면서 그 양도 풍부해졌으며 더욱 분명하게 그리고 직접으로 나타났다.
- (5) 그것을 간단히 살펴보면, 창세기에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리라 했던 그리스도가(창3:15) 이사야 선지자에 이르러 동정녀 탄생으로 계시되었고(사7:14) 세례 요한에 이르러 그의 길을 예비하게 되었다(마3:23).
- (6)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구원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실을 계시하셨는데(참조, 요 20:31) 이 계시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드러나게 되었다. 즉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계시는 절정을 이루었다.
- (7)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열심히 탐구함으로써 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속 계획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참조, 요5:9).

3. **㉠** 2절의 '이 모든 날 마지막'이란 말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 ㉠** (1) 이 구절을 헬라어 본문에 따라 직역하면 '이 날들의 마지막에'(헬, 에프 에스카투 톤 헤메론 투톤)를 의미한다.
- (2) 이 말은 구약 시대와 묵시 문학 시대(신·구약 중간 시대)에 있어서는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를 의미했다(참조, 민24:14).
- (3) 그런데 이러한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서 출발하는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그리스도의 초림에서부터 재림 때까지 모든 날을 '마지막 때' 또는 '말세'(행2:16,17;약 5:3;벧전1:20;벧후3:3;요일2:18;유1:18)라고 하는 개념으로 바뀌게 되었다.
- (4) 그런데 본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으로 계시하셨던 사실이 성취되었음을 강조하고자 '마지막'이라는 말이 사용된 것이다.
- (5) 따라서 본귀절 중 '이 날들'은 구약 선지자들로 통해 말씀으로 계시되던 때를 가리킴이며, '마지막'은 이스라엘 백성이 대망하던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을 강조하는 말이다.
- (6) 이제 예수께서는 구약의 예언 속에 등장하는 막연한 존재가 아니라 역사 속에 찾아오신 실재하시는 존재로 드러나게 되었다. 즉 불완전한 계시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그 계시의 실상인 예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인간들이 기대하던 참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제공해 주신 것이다. 그분은 하나님의 부분적 계시가 아니라 계시의 전부이다.
- (7) 한편 예수의 은혜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우리들은 또 다른 의미에서의 '마지막'을 기대하고 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메시아를 기대했던 이상으로 그분의 재림을 대망하고 있는 것이다. 역사 속에 찾아오셨던 예수께서는 역사를 완성하시기 위해 곧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재림을 기대하며 항상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의식을 지니고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참조, 마25:1-13).

4. **㉠**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어떤 자로 세우셨는가? (2절)

- A** (1)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후사’로 세우셨다. 즉 성부께서는 당신이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모든 세계를 당신의 아들에게 전임(專任)하셨다.
- (2) 이제 예수께서는 온 세계의 지혜와 부요와 권세와 능력 및 생명까지도 모두 당신의 소유로 삼으신 것이다(참조, 제11:15).
- (3) 물론 그분은 기쁘고 긍정적인 부분만을 소유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슬픔과 고통과 저주와 죽음마저도 당신의 것으로 받아들여셨다. 십자가 사건은 바로 이러한 사실에 대한 확실한 증거이다.
- (4) 즉 그분은 당신이 소유한 생명들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절교와 죄악과 슬픔을 감당하셨던 것이다(참조, 2:10).
- (5) 이 세상에서 가장 넉넉하신 분(이 세상의 주인)이 가장 누추하고 비참하게 되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 주신 것이다. 그분은 버릴 권한도 얻을 권한도 있는 만유의 후사이시다(참조, 요10:17,18).
- 5. C** ‘모든 세계’의 창조자는 누구인가? (2절)
- A** (1)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시다(참조, 창1:1).
- (2) 그런데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말씀’(Logos)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 일을 이루셨다(참조, 요1:1-3).
- (3) 즉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온 세상 만물의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 자체이다.
- (4) 특별히 본절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세계’(헬, 아이온)는 시간과 공간과 물질 세계를 포함하는 모든 ‘시간들’ 또는 ‘시대’를 의미한다. 결국 이 말은 모든 시대 속에 존재하는 사건과 사물과 생명체들의 근본이 되시는 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뜻을 강조한 것이다.
- (5) 그러므로 우리는 역사 안에 진행되는 모든 일들과 존재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존재들의 주인이시기 때문이다(참조, 롬11:36;골1:16).
- 6. C** 본서의 저자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묘사했는가?
- A** (1) 첫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표현했다. ‘영광’(헬, 독사)이란 문자적으로 ‘빛’(헬 22:11)을 의미하며,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참조, 겔1:28;11:23), 신약에서는 좀더 적절하게 하나님의 속성 전체를 포함하는 말로 사용되었다(참조, 마16:27;행7:2,55;롬1:23;3:23;5:2;6:24;딤후1:11 등).
- (2) 그리고 ‘광채’(헬, 아파우가스마)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니는데, 자체 내의 빛으로 나오는 ‘광채’와 외부의 빛으로 인해 반사되어 나오는 ‘빛’이 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빛’ 자체로 묘사하고 있지만(요1:4-9;고후4:6), 본절에서는 증보자로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시는(반사하시는) 분이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 (3) 둘째, ‘본체의 형상’으로 묘사했다. ‘본체’(헬, 휘포스타시스)란 ‘실체’ 또는 ‘본질’을 나타내는 말로서 하나님 그 자체를 가리킨다.
- (4) 그리고 ‘형상’(헬, 카라크테르)은 문자적으로 ‘사물 위에 새겨진 표시’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예수 안에 하나님의 본질이 그대로 나타나 있어서 우리가 그를 볼 때 성부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참조, 요14:8-10).
- (5) 셋째, ‘만물을 붙드신 자’로 묘사했다. ‘붙들다’(헬, 페로)란 문자적으로 ‘데려가다’, ‘이끌어 가다’를 의미하므로 본귀절은 아들이 우주를 이끌어 어떤 목적을 향해 유도해 나간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결국 이것은 그분의 주권이 만물을 지배한다는 사실을 강조한 표현이다.

- (6) 네째, '죄를 씻는 자'로 표현했다. 저자가 본서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인간의 죄를 담당했던 분이시라는 것을 강조했으므로 본절은 본서의 서두에서 반드시 언급되어야 할 부분이다. 즉 그분은 모든 인류를 대속하신 대제사장이시다.
- (7) 다섯째, '보좌 우편에 앉으신 자'로 묘사하여, 그리스도의 영광과 위엄을 나타내고 있다(비교, 행7:56). 그분은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시다.
- (8) 이와 같이 저자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의 하신 일 그리고 그의 영광 등을 언급하면서 그에 대하여 자세히 묘사했다.
- (9) 바로 이분을 우리는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며(마16:16), 그를 위해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다(계2:10).

7. Q 천사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라(4절).

- A (1) 천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말라크>와 헬리어 <앙겔로스>는 둘 다 '사자'(messenger)라는 의미이다.
- (2) 이 용어들이 때때로 선지자(학1:13) 또는 제사장(말2:7)과 같은 사람으로서의 사자들을 가리키는 용례로 사용된 적이 있지만 본문에 따라서 천사와 확실하게 구별이 될 수 있다.
- (3) 이외에도 천사들을 지칭하는 데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욥1:6;2:1;참조, 창6:2-4), '권능있는 자들'(시27:1;89:6), '거룩한 자들'(시89:5,7;단4:13) 그리고 '천군들'(눅2:13)과 같은 용어가 사용되었다.
- (4) 그들에게 대한 명칭만큼 그들의 사역도 여러 가지로 언급되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된 어떤 일에 대한 예고(창18:9이하;삿13:2-24;눅1:13,10)와 진노로서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단8:19;마2:13;계1-22장)를 이 땅에 전달하는 사역이 있다.
- (5) 그 다음 이 땅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인도와 교훈 사역을 들 수 있다(창24:7,40;출14:19;민20:16;행7:38,53;갈3:19;계17:7 등).
- (6) 그리고 세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며 지켜 주는 사역이 있다(창22:9-12;32:1이하;수5:14;왕하6:17;시91:11;단3:28;6:22;10:31;11:1).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은 천사들은 때때로 그 원수들에 대항해서 투쟁하는 행동으로까지 나아가기도 했다(출12:23,27;왕하19:35;참조, 마26:53).
- (7) 마지막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도와 주며(창21:17이하;왕상19:5-7;마28:2;막1:13;눅22:43;행5:19), 하나님의 심판을 보좌하기도 한다(창18:16-19;29;마24:31;25:31;눅9:26;12:8,9;행12:23;계19:1-3,17이하;20:13).
- (8) 이와 같은 천사들의 사역은 구원을 얻을 후사인 우리들을 섬기라고 보내졌는데(14절) 천사들보다 그 지위가 우월한 우리들이 천사를 숭배하는(골2:8)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안 되겠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악령 숭배자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이(推移)를 조심스럽게 경계해야 한다.

8. Q 본서는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뛰어난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4-14절)

- A (1)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는 '너는 내 아들'(5절)이라고 부른 적이 없지만 그리스도에게는 바로 이 이름을 주심으로 만아들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 그 자체로써 천사보다 뛰어나다(4,6절).
- (2) 그래서 그는 온 우주를 다스리는 통치자로서 높임을 받으시면서 즉위하실 때 천사들의 경배를 받게 될 것이다(6절).
- (3) 한편, 천사는 구원 얻을 후사 곧 성도들을 섬기라고 보내어졌지만(14절),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시는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에(10-13절) 천사들보다

월등하게 뛰어났다.

- (4) 본서의 저자는 이처럼 천사와 그리스도를 비교하여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나타내 보여 고자 했을 뿐 아니라, 유대인들이 영적인 존재 중 하나님 다음으로 경외의 대상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던 천사관에 대해서도 교정(矯正)시켜 주고자 했다(참조, 14절).
- (5) 이것을 통해 우리들은 영적인 사실에 대하여 정확히 분별하여 마땅히 존경하고 두려워해야 할 대상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하며(마10:28; 롬13:7) 망령되고 허탄한 행위를 벗어버려야 한다(시31:6; 렘14:14; 겔13:6; 딤펢전4:7).

9. ㉠ '만아들' 이 지니는 의미는 무엇인가? (6절)

- ㉠ (1) '만아들' (헬, 프로토토코스)이란 말은 바울 서신에서(롬8:29; 골1:15,18) 3회, 본서에서(11:28; 12:23) 3회 언급되었으며, 그 외에는 두 번(눅2:7; 계1:5)밖에 나오지 않는다.
- (2) 이 말이 사용된 의미를 살펴보면,
 - ①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언급할 때(눅2:7),
 - ②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 관계에 대해서 말할 때(롬8:29),
 - ③ 모든 피조물(골1:15)이나 교회에 대한 관계로서(골1:18; 계1:5) 적용될 때로 집약될 수 있다.
- (3) 그러나 2절에서 그리스도를 만아들로, 기업을 잇는 만유의 후사로 언급했으므로 본절에서 언급된 만아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탄생하신 그리스도로 이해되어야 한다. 즉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라 모든 존재 위에 뛰어나신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이 말을 사용한 것이다.
- (4) 이와 같은 의미가 더욱 강하게 부각될 수 있는 용어로 사도 요한이 사용했던 '독생자' (헬, 모노게네스, 요1:14,18; 3:16,18; 요일4:9)란 단어가 있다.
- (5)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만아들로서 만유의 후사가 된 그 사실과 함께, 그를 믿는 우리도 그와 더불어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감사하자(참조, 롬8:17).
- (6) 즉 우리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무관한 자였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과 하나가 되고 그분이 누리시는 특권과 영예를 우리도 향유할 수 있게 된 것이다(참조, 갈 2:20).

10. ㉠ 하나님은 천사들을 무엇으로 삼으셨는가? (7절)

- ㉠ (1)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삼으셨다.
- (2) 본귀절은 시104:4을 인용한 것이다.
- (3) 그리고 천사에 비유된 '바람'은 히브리 원문에서 <루아흐>로, 70인역(LXX)에서는 <프뉴마>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들은 '바람'이나 '영'을 의미한다.
- (4) 그래서 혹자는 본절의 바람을 '영'으로 해석하기도 한다(참조, KJV, spirits).
- (5) 그러나 본문의 문장 구조상 '바람'과 '불꽃'이 각각 천사와 사역자들의 기능과 관련된 것이므로 '영'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 (6) 한편, Living Bible은 탈굼(Targum) 역과 비슷하게 '바람처럼 빠른 사자들'(as messengers swift as the wind)로 표현하고 있다.
- (7) 이것은 천사들이 자기들의 사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을 묘사하고자 제시한 표현이다.
- (8) 그러나 본절이 천사보다 우월한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것이므로 본귀절은 천사들의 사역을 설명하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없다.
- (9) 그러므로 본귀절은 천사들이 유한하며 변할 수 있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의미로 '바람'으로 표현한 것이다.

(10) 한편 이런 천사들보다 더 유한하고 썩어 없어져버릴 우리 인생들을 자신의 자녀로 삼아 천사들보다 낮게 하셨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할 후사로 삼아 주신(롬8:17)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한다.

11. ㉠ 그리스도의 존귀하심은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가? (8, 9절)

- ㉠ (1) 아들의 존귀한 신분은 '보좌'(寶座)와 '홀'(笏)로 묘사되어 있다(8절).
 (2) 그리고 도덕적인 존엄성은 그가 통치하시는 최대의 수단인 '의'로 묘사되어 있다(9절).
 (3) 여기서 '보좌'와 '홀'은 왕적 권위와 통치력을 상징하는 물건인데 이는 곧 아들이 왕으로서 자기의 나라를 통치하는 것을 의미한다(시103:19; 애5:19; 마25:31; 계4:2). 물론 이 통치는 잠시 잠깐의 다스림이 아니라 영원하며 완전한 동시에 공명 정대한 것이다.
 (4) 그리고 아들이 지닌 '의'는 자기의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공의'의 판단으로 통치함을 의미한다(참조, 벰전2:23; 계19:11).
 (5) 따라서 저자는 그리스도를 완전하신 통치자로 표현했으며 그런 의미에서 주위에 있는 천사들보다 월등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6) 그러므로 우리들은 모든 존재들보다 뛰어나시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마지막 날에 그와 함께 왕 노릇하게 될 것이다(딤후2:12; 계5:10; 20:4; 22:5).

12. ㉠ 저자는 창조주되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10절)

- ㉠ (1)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는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자기 손으로 지으셨다.
 (2) 사도 요한도 그리스도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계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였고, 만물이 그를 통해서 창조되었다고 했다(요1:1-3).
 (3)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조되었으며 우리도 그를 통하여 났다고 언급했다(고전8:6; 골1:16).
 (4) 이러한 진술들은 그리스도 자신이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셨다고 말씀하신 사실에 의해 더 확고하게 입증된다(참조, 요8:58).
 (5) 본절에서 저자가 그리스도를 만물의 창조주로 묘사함으로써 만물에 대한 그의 주권성을 더욱 강조하였다.
 (6)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위한 구속주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유지하시는 창조주와 섭리주되심도 알 수 있다(참조, 롬11:36).

13. ㉠ 저자는 만물과 그리스도를 어떻게 비교하고 있는가? (11, 12절)

- ㉠ (1) 피조된 만물은 멸망하며 옷과 같이 낡아지며(11절) 변하지만(12절), 그리스도는 만물의 주인으로서 영원히 계시며(11절) 변함없이 다스리실 것이다(12절). 이 귀절은 시 102:25-27을 인용한 것이다.
 (2) 여기서 저자가 만물의 유한성을 강조한 것은 피조된 천사들도 그와 마찬가지로라는 사실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3) 뿐만 아니라 우리는 본절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변함없이 영원히 존재하는 절대자(絕對者)이심을 발견하게 된다.
 (4) 이와 같이 만물의 주권자이시며, 변함없으시며, 영원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어떤 누구도 그의 사랑에서 우리를 분리시키거나 빼앗을 수 없다(롬8:38,39).
 (5)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의 범죄와는 상관없이 끝까지 사랑하시어서 자기의 언약을 이루셨던 성경 역사를 통해서도 확증되었다(참조, 6:18).

14. ㉠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13절)
- ㉡ (1) 본귀절은 시110:1을 인용한 것인데, 이것을 살펴보면 '주(히,예호와)께서 내 주(히, 아도나이)에게 말씀하시기를'이란 귀절이 첨가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 (2) 이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것을 의미한다.
- (3) 그리고 본귀절은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견했던 창3:15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 (4) 뿐만 아니라 이 부분은 메시아 예언에 대한 성취를 설명하는 마22:41-46 (참조, 막12:35-37; 눅20:41,44)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된다.
- (5) 따라서 본귀절을 의역하면, '그리스도의 원수를 그의 발 아래 굴복하게 할 때까지'라는 의미라 할 수 있다.
- (6) 즉 이것은 마지막 날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대적하던 모든 세력들을 진멸(盡滅)하여 무저갱으로 집어 던지는 것을 의미한다(참조, 눅8:31; 계20:1-3,7-15).
- (7) 물론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한 사실에 대한 것은 그의 부활하심으로 성취되었으나,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완성이 아니었다.
- (8)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사단은 계속 활동하고 있으며, 그분의 종국적인 승리는 마지막 심판 때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계20:10-15).
- (9) 또한 세상 끝날에 심판주로 이 땅에 오셔서 악의 세력을 멸절하시고 당신의 승리를 완성하실 사실을 바라보면서 매일의 생활 가운데서 사단의 세력과 대항하는 전투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

15. ㉠ 천사와 구원얻을 후사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14절)

- ㉡ (1)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냄을 받았다(14절).
- (2) 여기서 '부리는 영'이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며, 그분을 섬기는 단순히 영체로서의 천사를 말한다.
- (3) 그리고 '구원 얻을 후사'는 만유의 후사(2절)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와 함께 하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성도들이다(롬8:17; 딤후3:7).
- (4) 이를 통해 볼 때, 천사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그들을 도와 주며 섬기기 위해 보내어졌지만 우리 속에서 주권적으로 우리 성도들을 위해 역사하시는 성령과는 다름을 알 수 있다(비교, 요16:7,8; 롬8:26).
- (5) 이처럼 천사는 인간 구원을 위해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께 쓰임 받는 하나님 나라의 사환에 불과하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우리들의 인격을 지배하고 계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사에 대한 그릇된 생각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연구자료

히브리서에 나오는 기독교론과 종말론

1. 기독교론(基督論)

본서는 기독교론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책이다.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또는 하나님의 맏아들로 언급되고 있다

(2, 6절). 여기서 ‘말아들’ (헬, 프로토토코스)이란 말은 예수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의미하지 않고 모든 존재들 위에 홀로 뛰어나신 분임을 의미한다. 그러기에 본서는 예수를 가리켜 ‘하나님의 영광의 광체’, ‘그 본체의 형상’ (3절)으로 칭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예수는 태초부터 제서서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으니 (참조, 2절) 이에 모든 천사도 그분께 경배할 따름이다 (6절). 다음으로 예수는 본서에서 대제사장으로 언급되고 있다 (2:17; 4:14; 5, 7-9장). 여기서 ‘대제사장’이란 인간을 위한 예수의 대속 사역과 중보 사역을 가리키는 직분이다. 그런데 그분께선 하나님의 아들로써,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이 되셨으니 이에 해마다 속죄 제사를 드리는 인간 대제사장과는 달리 단번에 자기를 드러 인류를 위한 영원한 대속 제사를 드릴 수 있으셨다 (7:21, 27). 그러므로 이제 그분께선 자신의 대속 사역을 마치신 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항상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중보 사역을 수행하고 계신다 (7:24, 25; 롬8:34). 이외에도 본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멜기세덱 (Melchisedec)과 관련하여 언급하고 있다 (5:10). 여기에서 ‘멜기세덱’은 ‘나의 왕’이란 히브리어 (말기)와 ‘의’라는 히브리어 (세덱)이 결합된 단어로서 ‘나의 왕은 의롭도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의미한다 하겠다. 그러기에 본서에는 예수께서 의인을 구원하며 악인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심판주로서 장차 재림하실 것에 관하여서도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9:27, 28; 10:37, 38).

2. 종말론 (終末論)

본서는 기독교론과 더불어 종말론에 관하여서도 상당한 비중을 두고 언급하고 있는 책이다. 물론 바울 서신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종말에 대한 ‘임박(臨迫) 사상’은 그다지 강하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 본서에서는 종말과 관련하여 성도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권고와 교훈이 종종 눈에 뜨인다. 그 같은 첫번째 예는 2절에 나오는데 본서의 저자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라는 말로서 예수에 대하여 증거한 후 성도들에게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홀려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2:1)는 말로 권면하고 있다. 또한 본서의 저자는 예수의 재림과 관련하여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10:35, 36). 여기서 ‘상(賞)’이란 예수 재림시에 성도들이 누릴 영생 뿐 아니라 각자가 수고한 정도에 따라 하나님께로부터 덤으로 받을 상급을 의미한다 (참조, 고전3:10-15). 따라서 본서에 나타난 종말 사상은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시점이 곧 종말인데 완전하고도 최종적인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제 2 장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에 속한 성도

단락구분 1 권면 / 2-4 하나님께서 이루신 큰 구원 / 5-8 잠시 천사보다 낮아지신 그리스도 / 9-10 죽음의 고난으로 높아지신 그리스도 / 11-13 하나님께서 난 형제들 / 14-16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이유 / 17-18 대제사장되신 그리스도

1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홀려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2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3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동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4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의 나눠 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5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6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판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판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 이까

7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 씌우시며

8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9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님을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10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 일

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11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12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13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14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매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잠은 자 곧 마귀를 없이하시며

15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일생에 매여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니

16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17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18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니라

1. ㉠ 본장의 내용을 약술하라.

㉠ (1) 저자는 교회 외부로부터의 박해로 인해 배교하려는 자들에 대하여(참조, 서론 ㉠) 매우 염려하면서(1절) 사도들을 통해 주께서 이루신 큰 구원의 소식에 대하여 증거했다(3,4절).

(2) 계속해서 큰 구원의 중심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천사들보다 낮아지신 이유에 대하여

설명했다(8절).

- (3) 그러나 천사보다 약간 낮아진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고난을 통하여 영광받으시며(9절) 또한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한 그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자라는 사실도(10절) 확증했다.
- (4) 이러한 그의 희생적인 사역을 통해 구원 얻은 성도들은 그와 함께 한 형제가 되었다(11, 12절).
- (5) 한편, 저자는 화제를 다시 그리스도에게로 돌려 그의 성육신하심과(14,15절) 성육신하신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했다(18절).
- (6) 특별히 저자는 본서신의 주된 관심사로 부각된 사실, 즉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신 사역을 구약의 대제사장과 연관을 지어(17절) 서술해 갔다.
- (7) 따라서 본장의 요지는 육신을 입음으로써 천사들보다 잠시 낮아지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같은 시험을 받아 시험받는 자들을 구속함에 있어서 대제사장의 직임을 완전히 수행하셨다는 것이다.
- (8) 이와 같은 사실들을 통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면서 고난당하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받으셨으며(4:15) 고난당하신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일에 전심 전력해야 하겠다.

2. ㉠ 본서의 저자는 성도들의 어떤 면을 염려하고 있는가? (1절)

- ㉠ (1) 그는 성도들이 '모든 들은 것을 삼가하지 않아 흘러 떠내려가게 될 것'을 염려하고 있다.
- (2) 여기서 '모든 들은 것'은 한 단어로 요약하면 '복음'을 의미하며, 좀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원에 대한 모든 말씀'을 의미한다.
- (3) 그리고 '간절히 삼갈지니'란 원문대로 직역하면 '더 넘치게 주의할지니'(헬, 페리소테로스)가 된다.
- (4) 다시 말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구원의 진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항상 모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 (5) 또한 '흘러 떠내려갈까'(헬, 파라뤼오멘)란 말은 반지가 손가락에서 빠져 나간다고 할 경우와 같은 상황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말로서 성도가 복음의 진리에서 떠나 위험하게 되는 것을 나타낸다. 이처럼 믿음에 굳게 서 있지 못한 사람은 외부로부터의 핍박과 유혹이 약간이라도 있을 경우 자신의 신앙을 팽개쳐 버리는 경우가 많다.
- (6) 그러므로 교회에서 신앙이 성숙된 자들은 그렇지 못한 자들이 진리에서 떠나 거짓된 가르침이나 세상의 것들에 미혹되지 않도록 항상 권면하며 돌보아 주어야 한다(참조, 엠 4:12-16).

3. ㉠ '천사로 하신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2절)

- ㉠ (1) 구약 성경은 율법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천사들을 묘사하지는 않는다.
- (2) 그러나 신약 성경은 율법이 천사들을 통해서 전해진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다(행7:53; 갈 3:19).
- (3)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LXX)도 신33:2에서 '그 오른손에는 불 같은 율법이 있고'라는 귀절 대신에 '그와 함께 그의 천사들이 오른편에 있고'(헬, 에코 텍시온 아우투 앙겔로이 메트 아우투)라고 번역했다.
- (4) 그리고 1세기의 유대 사가 요세푸스(Jesephus)도 율법을 전해 준 천사에 대하여 설명했으며(Antiq XV. 36) 랍비들도 율법과 관련된 천사들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천사들이 율법을 전해 주는 것으로 말한다.
- (5) 따라서 우리는 본귀절이 천사들을 '통하여'(헬, 디아)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율법에

대한 묘사임을 알 수 있다.

- (6)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셨던 말씀인 복음이 천사들을 통해서 주셨던 율법보다 우월함을 논증하기 위해 사용된 귀절이지 율법과 복음을 엄격히 구별하고자 사용된 논증은 아니다.
- (7) 이와 같이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복음이 완전하며 율법보다 우월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면서 계시가 점진적으로 발전되어 완성되었음도 암시하는 동시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사역이 천사보다 뛰어남을 논증했다.
- (8)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시의 발전과 완성(복음)을 보고 확신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복된 자들임을 깨닫고(참조, 3:3-19) 감사하며, 계시의 말씀을 항상 연구하는 신사적(神土的)인 베뢰아 사람처럼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며 신앙의 성숙을 기할 수 있어야 한다(참조, 행17:11).

4. ㉠ ‘공변된 보응’이란 무엇인가? (2절)

- ㉠ (1) 먼저 ‘공변된’(헬, 엔디코스)이란 ‘...안에서’를 의미하는 전치사 <엔>과 범정적인 용어로 사용되는 ‘공의(헬, 디케)의 합성어로서 ‘공의의 판단으로 이루어지는’이란 의미를 지니고 있다.
- (2) 또한 ‘보응’(헬, 미스토스)은 일군들에게 마땅히 주어져야 하는 임금과 같이 율법을 범한 죄인들에게 진리대로 적용되는 하나님의 필연적인 심판의 행위를 의미한다(참조, 롬2:2-12).
- (3) 따라서 ‘공변된 보응’이란 천사들을 통해 주어진 말씀(율법)이 확실한 효력을 나타내게 되면 그 율법을 범한 자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이 반드시 있게 된다는 의미이다.
- (4) 여기서 저자가 이 말을 하게 된 동기는 천사들을 통해 하셨던 말씀도 범하면 그에 상응하는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보다 더 큰 구원을 이룬 복음을 무시하면 더 큰 공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데 기인했다(3절).
- (5) 이와 같은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는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박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다(참조, 6:6; 고전2:8).

5. ㉡ 큰 구원의 소식에 대하여 설명하라(2-4절)

- ㉡ (1) ‘큰 구원’이란 천사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셨던 율법의 구원 사역과 대조되는 의미로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구원을 의미한다.
- (2) 이 구원은 주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며 그의 제자들이 또한 직접 보고 들은 것을 확증(確證)한 것이다(3절).
- (3)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 및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증거하셨다(4절).
- (4) 이처럼 큰 구원은 계시의 전달 과정에 있어서도 천사들을 통해 주셨던 율법보다 뛰어났다.
- (5) 따라서 이 큰 구원을 무시하면 율법을 통해 시행되었던 공의의 심판보다 더 큰 보응을 결코 피할 수 없다.
- (6) 왜냐하면 ‘어찌 피하리요?’라는 헬라이어의 수사법(修辭法)은 ‘도무지 피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의미를 강조하는 용법이기 때문이다.
- (7) 한편, 이 큰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사역 중 십자가를 지심과 부활하심에 의해서 성취된 것으로서(고전15:1-6) 그의 오심에 대하여 그림자 역할을 한 율법보다(8:5; 10:1; 골 2:17) 내용적인 면에서 훨씬 뛰어나다.
- (8) 그러나 구약 율법 시대의 성도라 할지라도 율법 가운데 계시된 큰 구원의 소식을 미리 보았던 자들은 율법을 통해서 그 큰 구원에 대해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렸다

(참조, 시119:1,2,7,11-20,24,35,40,45,47,48,64,92,105; 요8:56).

- (9)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진리를 깨닫고(참조, 호6:3) 주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 큰 구원에 대해 날마다 감사 감격하는 삶이 되도록 하며 나아가서 그 감격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할 것이다.
- (10) 이렇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제자리 걸음을 면하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사 40:31) 생명력 넘치게 될 것이다.

6. ㉠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적인 현상에 대하여 설명하라(4절).

- ㉠ (1)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하신 이 우주에 직접 개입하시며, 그것을 다스리시는 증거로 많은 기적적인 현상을 나타내 보이셨다(참조, 엡4:16).
- (2) 그중 대표적인 것으로 '표적'(헬, 세메이아)이 있다.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기적을 묘사하는 말로 사용되었으며 초자연적이며, 진리의 상징 같은 영적인 제시의 방편으로도 묘사되었다(참조, 창9:12; 17:11; 출12:13; 민17:10; 마12:39).
- (3) 그 다음에 언급된 '기사'(헬, 테라스)는 성경상에 결코 독립적으로 언급되지 않고 표적과 함께 나온다(마 24:24; 막13:25; 요4:48; 행2:19,22,43; 4:30; 5:12; 6:8; 7:36; 14:3; 15:12; 롬 15:18; 고후12:12).
- (4) 그 이유는 '기사들'은 사람의 이성을 초월한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하여 사람을 놀라게 하는 특징만을 나타내므로 구태여 그것을 분리시키지 않고 표적 또는 기적들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 (5) 세번째로 언급된 '여러 가지 능력'에서의 '능력'(헬, 뒤나미스)은 본래 자연적인 현상에서 나타나는 힘을 의미했지만 후에 하나님의 초자연적 힘(마8:13) 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자체를 의미하게 되었다.
- (6) 따라서 '여러 가지 능력'이란 표적과 기사를 포괄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역이라고 할 수 있다.
- (7) 이와 같은 초자연적인 기적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기도 하며 또한 계시하셨던 말씀을 확증하고 보증하기도 하신다(4절).
- (8)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도 이러한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성령의 은사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적과 능력을 무시해 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되겠다(고전12:1-11).

7. ㉠ '성령의 나눠 주신 것'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4절)

- ㉠ (1) 본귀절은 문장 구조적인 면에서나 또는 해석학적인 면에서 해석될 수 있다.
- (2) 첫째,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성령을 의미한다(갈3:5).
- (3) 이것은 소유격으로 된 '성령의'(헬, 프뉴마토스)를 목적 관계로 보았기 때문에 나온 해석으로 '성령을 나눠 주신 것'이란 의미로 직역될 수 있다.
- (4) 둘째, '성령의 나눠 주신 것'은 성령께서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나눠 주신 은사(恩賜)를 의미한다(고전12:11).
- (5) 이러한 해석은 '성령의'를 주격 관계로 보아 '성령께서 나눠 주신 것'으로 이해했던 것에 기인한다.
- (6) 그런데 본장의 흐름이나 특히 본절의 내용상으로 보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께서 믿는 자에게 부어 주시는 은사라 함이 적합하다.
- (7) 따라서 '성령의 나눠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특정 사람들을 통해서나 자신이 직접 행하신 '표적과 기사와 능력'보다 더 포괄적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기적 행위이다(고전 12:7-11).

- (8) 다시 말해 신약에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구원 사역도 완성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눠 주신 것은 사도들을 통한 여러 가지 기적 행위와 표적과 기사 외에 각양 은사를 내포한다(엡3:20).
- (9) 이처럼 확실하고 완전한 구원의 세대에 사는 우리들일지라도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매일 근신하며 살지 않을 때에는 영적인 침체를 면할 수 없다(롬6:16-19).
- (10)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신 성령의 은사를 따라 분량대로 맡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마25:21,23)라고 칭찬하실 것이다(엡4:7-16).

8. ㉠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잠깐 낮아지게 되었는가? (7, 9절)

- ㉠ (1)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이심과 동시에 창조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이미 천사보다 높으신 분이셨다(참조, 요1:1-3).
- (2) 그렇지만 그는 타락하여 연약해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들이 감당해야 할 모든 고난을 맛보았다.
- (3) 특히 죄의 형벌인 죽음의 고난도 맛보기까지 하여 철저히 자기를 하나님의 종과 같이 낮추셨다(참조, 빌2:7).
- (4) 이처럼 낮아지신 그가 죽음의 고난을 통해 승리하심으로 영광과 존귀로 관(冠)을 쓰게 되었으며(9절), 온전하게 되셨다(10절).
- (5) 그래서 이사야는 메시아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전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와 뜻을 성취하리로다'라고 말했다(사53:10).
- (6) 그러므로 우리는 그가 낮아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심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으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롬3:25;5:1,10)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가 되었다(갈3:29;4:7)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9. ㉠ 만물이 누구에게 복종되도록 창조되었는가? (8절)

- ㉠ (1) '만물이 저에게(헬, 아우투) 복종케 하셨은즉' 이라고 말씀하셨으니, 단수로 언급된 '저'는 그리스도가 분명하다.
- (2) 이것은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마28:18)라고 하신 말씀과도 일치된다.
- (3)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중 권세 잡은(엡2:2) 사단은 자기가 이 땅의 지배자인 것처럼 행세(行世)한다(참조, 마4:8,9).
- (4)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어 이 땅에 오심은 바로 이와 같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어(14절, 마4:16 이하) 그를 믿는 자에게 구원과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다(롬8:23).
- (5) 그래서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苦待)하며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 위하여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고 있다(롬8:19-22).
- (6)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나라를 다스릴 왕 같은 제사장임을 명심하여(벧전2:9) 인내로써 우리의 구원을 이워 나가야 할 것이다(롬2:7; 빌1:6; 2:12; 참조, 약1:4).

10. ㉠ 예수께서 당하신 고난의 의미는 무엇인가? (9, 10절)

- ㉠ (1)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는 환난과 곤고(困苦)가 있다(롬2:9).
- (2)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모든 사람에게 항상 수고와 고난과 죽음이 있으리라는 사실을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경우를 통하여 말씀하셨다(창 3:16-18).

- (3) 죄를 범한 모든 자 위에 사망이 왕 노릇하여(롬5:17,21) 심판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은 신·구약 성경의 일관된 사상이다.
- (4) 이러한 관점에서 예수도 죄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인간과 동일한 고난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다.
- (5) 그런데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된 것같이 죄없는 그리스도 자신이 죄인들을 위해 죄의 형벌인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많은 사람을 의인되게 하셨다(참조, 롬5:12,17).
- (6)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은 죄인들을 위해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고 승리하심으로써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쓰게 되어(9절)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롬1:4).
- (7) 이렇게 되신 그리스도는 또한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영(헬, 프뉴마 조포이운)이 되심으로 그에게 속한 자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 안에서 왕 노릇하게 하셨다(롬5:17).
- (8) 이처럼 영광스러운 신분을 얻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고전1:8) 오직 경전에 이르기를 힘써야 하겠다(딤후4:7).

11. ㉠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란 누구를 지칭하는가? (10절)

- (A) (1) '만물이 인하다'란 원문대로 직역하면 '만물이 그로 인해 존재하다'(헬, 디온 타 판타)가 되어 그가 만물이 존재하게 된 원인자(原因者)임을 나타낸다.
- (2) '만물이 말미암다'란 원문대로 직역하면 '만물이 그를 통하여 존재하다'(헬, 디 우 타 판타)이며 그 뜻은 그가 만물의 창조주되심을 의미한다.
- (3) 한편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는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신' 자이다(10b절).
- (4) 따라서 본절에 언급된 만물의 원인과 목적이 되시며 창조자 되신 이는 바로 성부 하나님임을 알 수 있다.
- (5)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의미없이 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으므로 자신의 의도대로 만물을 이끌어 가신다(참조, 시103:19;104:14;단5:35;엡1:11등).
- (6) 이러한 의미에서 기독교의 역사관은 어떤 목표, 즉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면서 발전하는 구속사(Heilsgeschichte)적인 관점이다.
- (7) 따라서 이와 같은 성역사(Holy history)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는 우리들은 항상 세상 역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줄 알아야 한다.
- (8) 왜냐하면 구속사에 대해 역사 의식이 없는 자는 성경을 자기의 주관에 따라 해석하기 쉬우며 진리에서 탈선하는 신앙을 가지기 쉽기 때문이다.

12. ㉠ '구원의 주'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10b절)

- (A) (1) 신약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주'라는 말에는 헬라어 <퀴리오스>가 사용되었으며, 이 말은 만물의 통치자이시며 주인으로서의 그리스도에게 적용되었다.
- (2) 그러나 본절에서는 특이하게 '주'에 대하여 헬라어 <아르케고스>가 사용되었다.
- (3) 이 말은 '지도자', '통치자'(헬, 아르콘), 또는 연속적인 일에 있어서 맨 먼저 '시작하는 자'라는 의미이다.
- (4) 그런데 이 단어가 사용된 12:2(믿음의 주)과 행3:15(생명의 주)을 살펴볼 때 맨 먼저 시작하는 자의 의미가 가장 적합할 것 같다.
- (5) 특히 사도 바울은 사망을 깨뜨리고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언급하기도 했으며(고전15:20,23) 새 언약의 주로서도(고전11:25) 언급했다.
- (6) 따라서 '구원의 주'란 구약의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구원을 이루신 분으로서 구원받을

모든 후사의 만아들 되신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 (7) 바로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모든 일을 홀로 담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처소를 예비하시기 위해 먼저 하늘나라에 가셨다(요14:2,3).
- (8) 이처럼 죄인들을 위해 구원을 예비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이룰 후사가 된 것이다(1:14).

13. **㉠**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해 온전(穩全)케 되심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0b절)

- ㉠** (1) 그리스도는 죄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들과 똑같은 시험을 받고 고난을 당하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요(4:5) 완전한 자이다.
-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해 완전하게 되실 필요가 있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
- (3)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불완전하시기 때문에 완전하게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죄도 없으신 그리스도가 인간과 똑같은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인간을 구원시키기 위해 완전한 조건을 구비하셨다는 의미이다.
- (4) 다시 말해 구원의 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지 않으셨다면 죄로 인해 고통하며 신음하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완전한 구세주가 될 수 없다는 의미이다(참조, 사53:4,5).
- (5) 본서의 저자가 이처럼 고난을 당해야 하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강조한 것은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영광 중에 나타날 왕으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 (6)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 고난을 당해야 하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강조한 것은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영광 중에 나타날 왕으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 (7)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 고난당하신 사실을 기억하고 그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구원과 영광스러운 승리도 우리가 그를 위해 고난에 동참할 때 더욱 의미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참조, 빌3:9,10).

14. **㉠**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형제가 되었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11절)

- ㉠** (1) 본절은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났기 때문에 형제가 되었다고 진술한다.
- (2) 여기서 '하나에서 났다'란 원문대로 직역하면 '모두 하나에서 나온'(헬, 엑스 헤노스 판테스)인데, 이것은 몇 가지로 해석된다.
- (3) 첫째, '모두 하나이다'(KJV)라는 의미로 해석하여 그리스도와 거룩하게 된 성도가 일체됨을 강조한 것이 있다.
- (4)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그리스도와 성도가 형제가 되었다는 다음 귀절을 설명하기에 적절하지 못하다.
- (5) 둘째, '같은 가족에 속한다'(NIV), 또는 '같은 아버지를 가진다'(Living Bible)라는 가족 관계로 해석될 수 있다.
- (6) 그러나 원문상으로 볼 때 가족과 관계된 말이 없으므로 '형제'라는 단어가 나왔지만 가족 관계로 보는 것도 우리가 따른다.
- (7) 셋째, '모두 한 기원을 가진다'(RSV)라는 해석이 있다. 이러한 해석은 그리스도와 성도가 모두 하나님께 속하여 그에게서 나왔다는 의미를 가진다.
- (8) 따라서 이 해석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독생자이심과(요1:14,17) 성도가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요1:12)는 사실과 부합된다.
- (9)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본절에서는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이루시어 그를 믿는 자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

으므로 다같이 한 하나님에게서 나온 그분의 자녀로서 형제가 되었다는 사실이 강조되고 있다.

- (10)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형제가 된 우리는 죄가 우리 몸에 왕 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私慾)에 순종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의의 병기로 사용되기를 힘써야 한다(롬6:12,13).
- (11)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정사(政事)와 권세와 이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하여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것이다(참조, 엡6:11-18).

15. ㉠ 예수께서 성육신하신 이유는? (14-18절)

- ㉠ (1) 예수께서 형제들과 같이 육신을 입고 고난당하심은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다(17절).
- (2) 이것은 사도 바울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첫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같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의미이다(롬5:17).
- (3) 다시 말해 모든 사람의 죄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듯이 모든 사람에게 미칠 의와 생명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했으므로 그리스도께서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에게 내려야 할 모든 율법의 저주를 홀로 담당하셨다(갈3:13).
- (4) 이렇게 하심으로 그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음을 무서워하고 죄의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해방시켜 주셨던 것이다(14b,15절).
- (5) 뿐만 아니라 자신이 친히 죄있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시험을 받아 고난당하셨기 때문에 시험받아 고통당하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18절).
- (6)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한 형제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4:15,16).

16. ㉠ '아브라함의 자손' 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16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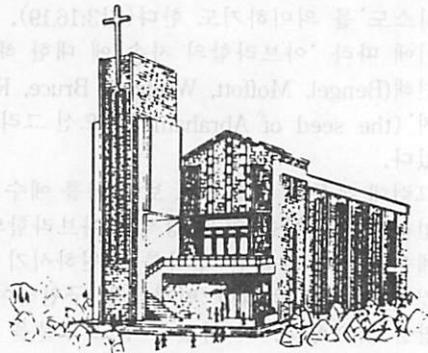
- ㉠ (1) 언약적인 측면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자유로운 여자인 사라에게서 난 이삭과 계집종인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이다(참조, 갈4:22-31).
- (2) 그러나 이 두 아들 중에 약속을 따라 아브라함의 후사가 될 사람은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인 이삭뿐이다(갈4:28).
- (3) 그래서 성경에서 단수 또는 복수로 아브라함의 자녀 또는 후손에 대하여 언급할 때는 약속을 통해서 난 언약의 자녀들을 일컫는다(참조, 창17:9; 눅1:55; 19:9; 요8:33; 롬9:7,8).
- (4)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단수로 언급되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약속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한다(갈3:16,19).
- (5) 이에 따라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해석도 아브라함의 후손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견해(Bengel, Moffatt, Westcott, Bruce, RSV, NIV)와 KJV의 번역과 같이 '아브라함의 씨'(the seed of Abraham)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견해(Chrysostom, Ambrose, Beza)가 있다.
- (6) 그런데 본문의 흐름으로 보아 이를 예수 그리스도로 이해하기 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함을 얻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참조, 갈3:29).
- (7) 예수께서는 타락한 천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몸을 희생하신 것이 아니라 범죄한 인간들을 구원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기 위해 이 땅을 찾으셨다. 이 사실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자에게 예수께서는 계속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미실 것이다(참조, 사41:8,9).

17. ㉠ 대제사장의 직무에 대하여 설명하라(17, 18절).

- Ⓐ (1)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하나님과 언약 백성 사이의 중보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었다(말2:4이하;참조, 민18:19;렘33:20-26).
- (2) 그래서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성결을 보존시키며 확립시키는 일을 했다(참조, 출28:38;레10:7;민18:1).
- (3) 뿐만 아니라 법률상의 문제에 답변하는 재판관의 역할과 율법을 가르치는 직무도 담당했다(참조, 출33:7-11;호4:1-10).
- (4) 그런데 대제사장은 이러한 직무 외에 일반 제사장과 구별된 독특한 임무가 있었다.
- (5) 즉 그는 가슴에 12개의 보석이 달려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데 사용되는 우림과 둠밈이 있는 예봇을 입고(삼상23:6-12) 1년에 한 차례(대속죄일) 지성소에 들어가서 온 백성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렸다(9:7).
- (6) 이와 같은 대제사장적 사역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완성하셨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충성'일 뿐 아니라 인간을 향한 '자비'의 행위이다.
- (7) 그는 철저히 인간의 편에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모든 고난과 시험을 감당하셨던 것이다(18절). 비록 그가 천사보다 월등히 우월한 하나님의 본체이지만 인간들의 고뇌와 아픔을 해결하시기 위해 스스로 고난의 자리에 이르신 것이다(참조, 사53:4,5;빌2:6-8).
- (8) 한편 그가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던 휘장(揮帳)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두 조각이 되었다(마27:51). 인간의 죄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만족시켰으나 이러한 그리스도의 대속적 사역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 관계가 친밀하게 형성될 수 있게 된 것이다.
- (9) 이로써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것이다(벧전2:9).
- (10)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사역을 통해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들은 이 엄청난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힘써야 하겠다(7:19;10:22;약4:8).

본장의 요점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12절).



제 3 장 모세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

단락구분 1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 2-4 영광에서 모세보다 뛰어나시다 / 5-6 신분에서 모세보다 뛰어나시다 / 7-11 이스라엘 열조의 강박한 신앙과 그 결과 / 12-13 서로 권면하라 / 14-15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 / 16-17 강박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 18-19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불신앙

1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이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2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3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할 같으니라

4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니시라

5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6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7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8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박케 하지 말라

9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사십 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10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11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12 형제들이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 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13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박케 됨을 면하라

14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15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박케 하지 말라

하였으니

16 듣고 격노케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좇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17 또 하나님이 사십 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18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시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19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1. ㉠ 본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서술하라.

- ㉠ (1) 저자는 앞장에서 그리스도가 영적인 피조물인 천사보다 뛰어나심에 대해서 설명했지만 본장에서는 시각을 달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요 율법 수령자였던 모세보다 뛰어나심에 대하여 언급했다(1-6절).
- (2)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조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고도 마음을 강박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한 안식, 즉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음을 언급하면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권고했다(7-13절).
- (3) 나아가서 처음 믿을 때 견고히 붙들고 있던 복음을 끝까지 지키면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나라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권면했다(14절).
- (4) 마지막으로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조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격노(激怒)케 하여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했던 하나님의 맹세를 언급하면서 불신앙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하였다(15-19절).

- (5) 이상에서처럼 우리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그리스도의 영광과 신분을 깊이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삶을 통하여 그분의 권위와 주권을 인정하는 작업을 해나가야 한다. 우리는 결코 마음을 강박하게 하여 하나님의 노를 격동시키고 하나님이 예비한 영원한 안식의 약속에서 제외되는 불쌍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롬2:4,5).

2. **㉠** 저자는 성도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 (1절)

- ㉠** (1) 저자는 성도들을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불렀다.
- (2) 그런데 원문에서는 한글 개역 성경과 달리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자’와 ‘거룩한 형제들’로 각각 분류하여 묘사되어 있다.
- (3)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자’란 하나님께 선택된 자들을 의미하는데, 본귀절은 한낱 자연인에 불과했던 자가 성도가 될 수 있었던 기원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이다.
- (4) 특히 하나님이란 명칭 대신에 본서신의 저자는 ‘하늘’이라는 용어를 즐겨 사용하여(6:4;8:5;9:23;11:16;12:22 등)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했다.
- (5) 또한 성도들을 ‘거룩한 형제들’로 호칭하여 저자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성별(聖別)된 자들임을 강조했다.
- (6) 이 말은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에 대하여 ‘거룩한 나라’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벧전2:9)이라고 불렀던 것과 매우 유사한 표현이다.
- (7) 이처럼 저자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선택된 자들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수 있도록 성별된 자임을 언급하여 성도들의 고귀한 신분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시켰던 것이다.
- (8)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열조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어리석은 행동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이며 성별된 자로서의 신분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참조, 롬6:19,22; 12:1;엡1:4;골1:22;3:12;살전4:3;벧전1:16;2:5).

3. **㉠** 저자는 예수에 대하여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 (1절)

- ㉠** (1) 저자는 예수를 ‘우리의 믿는 도리(道理)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으로 묘사했다.
- (2) ‘우리의 믿는 도리’(헬, 테스 호모로기아스 헤몬)란 원문의 의미대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마16:16)을 의미한다.
- (3) 그런데 저자는 성경 다른 부분에서 예수에 대해 한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 명칭인 ‘사도’(헬,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을 본절에서 언급하였다.
- (4) 여기서 ‘사도’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전권 대사(全權大使)’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즉 이것은 예수가 단순히 하나님의 일을 시종드는 하인과 같은 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전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의미이다.
- (5)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셨다’는 내용이 기록된 곳은 신약 성경 특히 요한복음에서 흔히 볼 수 있다(마10:40;눅10:16;요3:17,34;4:34;5:23,24,30,36-38;6:29,39,44,57).
- (6) 한편 저자가 예수를 ‘대제사장’으로 묘사한 것은 대제사장이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 제사를 드렸던 사역과 깊은 연관이 있다.
- (7) 즉 예수께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 대제사장이 되어 지성소에 들어가셨던 것이다(6:20).
- (8) 이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전권 대사

로서 뿐 아니라 자기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신 대제사장으로서는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충성하며 성취하셨다(참조, 6절).

- (9) 그러므로 우리는 그를 우리의 죄를 대속한 구세주로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다(참조, 마16:16).
- (10) 더우기 우리는 대속의 은총과 영생을 허락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으며 지금도 살아 계셔서 그 같은 사역을 계속적으로 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예수를 깊이 묵상하고 의지적으로 그의 뜻을 받들지 않고는 그와 우리와의 관계성은 지속될 수 없다. 우리는 그를 우리 사고의 중심에 두며 판단의 근거로 삼고 삶의 한가운데 둠으로써 그와의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해 가야 할 것이다.

4. **㉠**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어떤 면에서 뛰어났는가? (2-6절)

- ㉠** (1) 모세는 이스라엘의 대지도자였으나 하나님의 온 '집'(헬, 오이코스)에서 충성했을 뿐이며 그러기에 그도 역시 그 집의 권속(眷屬)에 불과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 집을 지으신 자로 충성했으므로 모세보다 더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졌다(3절).
- (2)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使喚)으로 충성하였지만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집을 맡아 다스리는 아들로 충성했으므로 그 신분에 있어서도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더 뛰어났다(5,6절).
- (3)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 준 위대한 지도자 모세보다 더 우월한 그리스도의 사역을 제시함으로써 메시아로서의 그리스도의 권위를 나타내었다.
- (4) 사도 바울은 모세의 영광이 사라질 영광인 반면, 그리스도의 영광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의의 직분으로서 더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말했다(고후3:6-18).
- (5) 이처럼 그리스도는 신분에서나 직분에서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받으신 분이다.
- (6)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영광의 그늘에 살면서 그의 충만한 은혜와 진리를 받아(요1:16) 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분을 영광스럽게 해야 한다.
- (7) 이러한 삶이 바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이며(롬12:1)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과 교체하는 방법이다(요4:23,24).

5. **㉠** '하나님의 온 집'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2절)

- ㉠** (1) '집'에 해당하는 헬라어 <오이코스>는 '가족', '후손', 또는 '가문', '재산'을 의미하기도 한다(참조, 행7:10).
- (2)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가리킬 때 '집'(히,바이트)이란 단어가 사용됐다(참조, 느1:6).
- (3) 그리고 신약 시대에 이르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거룩한 무리인 성도들의 모임으로서의 교회를 가리킬 때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 사용되었다(엡2:21,22; 딤후전3:15; 딤후2:20; 벰전4:17).
- (4) 따라서 '하나님의 온 집'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을 의미한다.
- (5) 이러한 의미에서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을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불렀다(벰전2:9).
- (6) 이와 같이 우리가 비록 육신을 입고 불신자들과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지만 신분에 있어서 그들과 완전히 다르고 더 나아가 생명의 차원에서 그들의 생명(헬, 프쉬케, 단순한 육체적 생명)과 우리의 생명(헬, 조에, 영존하는 생명)이 다르다(참조, 고전15:44-49).

- (7) 그러므로 우리들은 개인적으로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殿)임과 동시에(고전6:19)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권속임을 깨달아 아버지께서 온전하심같이 우리도 온전해야 하며(마5:48) 아버지께서 거룩하심같이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벧전1:16;참조, 롬6:19,22;고후7:1;엡1:4;골1:22;살전4:3).

6. **㉠ 모세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비교하라(3절).**

- ㉠** (1) 모세는 자기를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사환으로서(5절) 자신을 세우신 이에게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영광을 받을 만하다.
 (2) 더우기 그는 출애굽 직후 40일 동안 시내 산상에서 하나님과 만남으로 인해서(율법을 전해 받음) 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을 얼마간 간직했다. 백성들은 모세의 얼굴에서 발하는 광채 때문에 모세를 바라볼 수 없게 되었다(참조, 출34:33;고후3:7).
 (3) 그러나 그의 영광은 결국 사라져 없어질 것에 불과했다(고후3:7,13).
 (4) 한편 그리스도는 자기의 피로 하나님의 집(행20:28)을 세우셨으므로 그 집에 속한 자에 불과한 모세보다 더 존귀하시다.
 (5) 이러한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의의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정죄의 직분을 가진 모세보다 영광스럽다고 했다(고후3:9,10).
 (6)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시요(빌2:5) 영광과 빛의 근원이시기 때문에(참조, 요1:4,5,9,10) 그분과 비교될 만한 영광스러운 존재는 이 세상에 없다.
 (7) 이처럼 빛의 근원이시며 영광스러운 의의 직분을 가지신 그리스도에게 속한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야 할 의무가 있다. 즉 우리는 그분의 영광과 빛을 반사하는 반사경으로서 이 땅에 존재해야 한다(참조, 마5:14-16).

7. **㉠ 저자는 모세의 직분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5절)**

- ㉠** (1)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했다.
 (2) 이 말은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복음에 대하여 증거했다는 것을 의미한다(Calvin). 즉 그는 장차 도래할 예수와 그 복음을 소개하는 자로서 충성을 다했던 것이다.
 (3) 그리고 그는 이러한 계시를 전달하는 임무를 띤 사환이었다(참조, 신18:15). 결국 모세는 예수보다는 열등한 존재라는 것이다.
 (4) 여기에서 사환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테라폰>으로 노예(헬, 둘로스)보다 훨씬 영예로운 종을 의미한다.
 (5) 이와 같은 직분을 맡은 모세가 충성을 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 주신 직무에 충성을 다행해야 한다.
 (6) 왜냐하면 주께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계2:10)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8. **㉠ 하나님의 집이 되는 조건은 무엇인가? (6절)**

- ㉠** (1) 저자는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사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고 했다.
 (2) 그리고 사도 요한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선포했다(요1:12).
 (3) 또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라고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가르쳤다(갈3:26).
 (4) 따라서 저자가 '소망의 담대함과 사랑을 끝까지 잡으면'이라고 했던 말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으면'과 같은 의미임을 알 수 있다(Calvin).
 (5) 이와 같은 의미에서 많은 영역본들은 '담대함'(헬, 파레시아)을 '확신'(KJV,RSV,Jeru-

saalem Bible)으로 번역했다.

- (6) 한편, '하나님의 집'이란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의미한다(참조, Q6).
 (7)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굳게 잡고 인내할 때, 그들이 바라는 소망은 자랑할 만한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이다(참조, 14절; 롬8:23-25).

9. Q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8절)

- A (1) 본귀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로 출애굽할 때에 발생했던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반역 행위를 나타낸다.
 (2) 비록 그들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반항하거나 거역한 적은 없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들의 지도자 모세에게 대적하며 반항했다(참조, 출14:10-14; 15:24; 16:2-9; 17:12 등).
 (3) 이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자를 반역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참조, 민14장 Q12).
 (4) 한편,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대항하는 것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같이 취급될 때도 있다.
 (5) 그 대표적인 예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 성도들을 핍박하여 옥에 던져 넣기 위해 다매섹으로 가던 도중 주께서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신 사실을 들 수 있다(행9:1-5).
 (6)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지도자에 대하여 비난하거나 대적할 때 사사로운 감정을 억제하고 먼저 위하여 기도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조심스럽게 지적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어야지 사람의 권위만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10. Q '마음을 강팍케 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 (8절)

- A (1) '마음'이란 인간의 사고와 행동의 중심적인 요소로서 '속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는데(벧전3:4), 이것은 인간의 지성(욥9:4; 38:36; 잠10:8; 11:29) 감정(민32:7-9; 신28:47; 삼상25:31; 시34:18; 사21:4; 겔27:31)과 의지(4:12; 시64:6; 잠6:18; 전10:2; 눅24:25; 롬10:10; 고전2:9; 엡6:6)의 좌소(坐所)이다.
 (2) 그리고 '강팍케 하다'란 애굽 왕 바로가 하나님의 이적을 보면서도 살아 제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대적했던 것처럼(출3:15)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는 일체 거부해 버리는 성향으로 굳어져 버린 인간의 심성을 표현할 때 사용된다.
 (3) 따라서 '마음을 강팍케 하다'라고 하면 신앙을 가능케 하며 모든 사실에 대한 인식 작용을 하는 마음을 인간 자신이 굳어 버리게 하여 영적인 사실에 대하여 인식할 수도 없으며, 사고할 수도 없는 상태에 빠진 것을 의미한다. 즉 철저히 교만해져 버린 상태를 의미한다.
 (4) 이와 같은 마음의 상태는 하나님의 진노를 격동시켜(8a절) 결국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11b절).
 (5)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하여 깨닫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격동시킨다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힘써야 하겠다(롬12:2).

11. Q '이 세대'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10절)

- A (1) '이 세대'를 문자적으로 적용시켜 다윗이 본인용 시를 쓰던 세대 또는 저자가 그 시를 인용한 세대로 볼 수 있다(별게이트 역, 루터 역).

- (2) 그렇지 않고 본문의 내용에 따라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체험했던 이스라엘 열조들로 볼 수도 있다(16절).
- (3) 이것을 근거로 대부분의 영역본(KJV,RSV,NIV)과 공동 번역은 의역하여 ‘그 세대’(that generation)로 옮겼다.
- (4) 따라서 ‘이 세대’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마음을 강박하게 하여 하나님의 노를 격동 시켰던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한다.
- (5) 그러나 ‘이 세대’가 단순히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도 선지자들의 경고를 듣지 않던 왕국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나(참조, 사5:1-7), 예수 당시 그분이 행하던 표적과 이적을 보고도 믿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마12:39;16:9;눅11:29) 적용된다.
- (6) 뿐만 아니라 이 세대란 말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선포되는 경고를 듣기도 하며 그 말씀을 통해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이적과 기사를 목격하면서도 믿지 못하는 오늘날의 사람들도 해당된다.
- (7)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스라엘 당시와 같이 마음이 강박하여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는 이 세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화를 선포하는 선지자적인 사역도 감당해야 할 뿐 아니라 스스로도 이 세대에 물들지 않는 경건함을 유지해야 한다(참조, 약1:27).

12. ㉠ ‘안식’의 의미에 대하여 설명하라(11절).

- ㉠ (1) ‘안식’이란 단어는 창2:2에서 처음 언급되었으며 그 후 십계명 가운데 ‘안식일’의 규례가 제정되었다(출20:8).
- (2)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안식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되어졌다(신12:9;왕상8:56).
- (3) 그러나 본서의 저자는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다’(4:8,9)라고 말했다.
- (4)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감으로 약속된 안식을 누리는 것은 앞으로 올 영원한 안식의 그림자라는 의미이다.
- (5) 이 영원한 안식은 곧 영적 안식과도 통하는 것으로 안식일의 주인되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성취하셨다(마12:8;막2:28;눅6:5).
- (6)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예수께서 성취하신 그 안식을 바라보며 그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써야 할 일이 아직 남아 있다(4:11).
- (7)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완성된 안식이란 곧 예수의 재림으로 인해 성취될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같은 의미이며, 악의 세력이 전혀 미치지 못하는 의와 공평이 실현된 상태이다(참조, 행7:49;계14:13).

13. ㉠ 살아 계시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2절)

- ㉠ (1) 본서신의 저자는 하나님에 대한 수식으로 ‘살아 계신’이란 말을 첨가하여 자주 사용했다(참조, 9:14;10:31;12:22).
- (2) 이 수식어를 첨가한 목적은 죽어 있어서 인간의 부르짖음에 응답할 수 없는 이방 신들과 강한 대조를 보이기 위해서였다(참조, 시115:4-8;사44:9-20;렘10:1-16;합2:19).
- (3) 한편 ‘떨어지다’(헬, 아피스테미)란 ‘떠나가다’(눅4:13) 또는 ‘배도하다’(눅8:13) 그리고 ‘떨어져 나가다’(행15:38) 등을 의미한다.
- (4) 따라서 살아 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것은 하늘과 땅에서 오직 홀로 참되시고 살아 계시는 하나님에게서 떠나 생명이 없는 우상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 (5) 좀더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본귀절을 살아 계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6) 이와 같이 살아 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 (7) 이 분리의 상태가 영원토록 계속되는 것이 곧 지옥의 형벌이며, 영원한 죽음, 즉 둘째 사망이다(제21:8).
- (8)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길에서 생활해야 하겠다(빌2:12).

14. ㉠ 저자는 성도들이 어떤 때에 서로 권면하라고 했나? (13절)

- ㉠ (1) 저자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죄의 유혹으로부터 강박케 됨을 면하라'고 했다.
- (2)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이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오늘이라 일컬어지고 있는 동안'을 나타낸다.
- (3) 이 말을 좀더 극적으로 표현한다면 '지금 이 순간이라 일컬어지고 있는 동안'이란 의미로 옮겨질 수 있다.
- (4) 다시 말해 이것은 성도들이 경건 생활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매순간마다 시기를 놓치지거나, 미루지 말고 결단해야 함을 가리키는 귀절이다.
- (5) 이처럼 저자가 배교의 위험이 있던 유대인 공동체에게 한 순간이라도 놓치지 말고 서로서로를 권면하여 경건한 삶을 이루어 가도록 힘쓰며 죄의 유혹으로부터 강박케 됨을 면하라고 권면했던 것은 반드시 필요했다.
- (6) 이러한 권면은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으로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박케 될 염려가 항상 있기 때문에 모든 일에 경계(警戒)하며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서로를 권면해야 한다.
- (7)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보라 지금은 은혜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고후6:2)라고 하여 성도들이 시기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구원을 성취하도록 권고했다.

15. ㉠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가? (14절)

- ㉠ (1) 저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의 조건을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는 것'이라고 말했다.
- (2) 여기서 '시작할 때'란 살아 계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를 의미한다(RSV,NIV, Living Bible).
- (3) 그리고 '확실한 것'(헬, 휘포스타시스)이란 '본체'(1:3) 또는 '실상'(11:1)으로 번역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대부분의 영역본처럼 '확신'(confidence)으로 번역함이 가장 적당할 것 같다(KJV,RSV,NIV,Jerusalem Bible 등).
- (4) 왜냐하면 본절의 동사 '견고히 잡다'(헬, 카테코)는 '굳게 지키다' 또는 '유지하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 (5) 그래서 공동 번역도 본귀절을 '처음의 확신을 끝까지 지켜 나가면'이라고 번역했다.
- (6) 한편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란 그리스도의 '동반자'(partner)로 해석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partaker)로도 해석되지만 본서의 저자가 '그리스도와 형제 되어 함께 후사'가 된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아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더 적당하다(참조, 1:2,14:2:11).
- (7)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할 자'란 그리스도를 믿어 낙심치 아니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를 상속할 자를 의미한다.

(8)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은 갈라디아 교회처럼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끝마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끝까지 참고 견디 예비된 나라를 상속해야 하겠다(참조, 마25:34).

16. **㉠**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는가? (17절)

- ㉠** (1) 저자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노하신 대상이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에게'라고 말했다(17절).
- (2) 여기서 '범죄하여'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노정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사실을 가리킨다(8,9절).
- (3) 그리고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란 출애굽 당시 애굽에서 모세의 인도로 나온 자들로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다(참조, 민14:29,30).
- (4) 이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그를 대적하던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로서 이해된다(Matthew Henry).
- (5)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약속된 영원한 가나안 복지도 하나님을 시험하며, 그에게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에 의해서 도무지 허락될 수 없다(참조, 시7:8-14;9:4-8; 롬1:1-5).
- (6)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악한 것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케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될 것이다(딤후2:21). 이같이 우리는 마지막 날 나타내시기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도록 자신을 살피 불의한 것들을 청산해야 하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어야 한다(벧전1:5).

17. **㉠**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예비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18, 19절)

- ㉠** (1)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18절).
- (2) 한편 순종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종종 믿지 않았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참조, 5:9;11:31;신30:20;요3:30;롬1:5;6:17;10:16;16:26;갈5:7).
- (3) 그래서 저자는 그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결론 내리기를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19절) 하였다.
- (4) 이처럼 저자가 배도하려는 유대인들에게 강한 어조(語調)로 경고하고 있는 것은 신앙을 버리고 불신으로 돌이키는 사람들의 행위가 결국 비극적인 운명을 초래할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Leon Morris).
- (5) 그러므로 우리들은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림'(약5:8)같이 하나님으로부터 과거와 현재에 전해진 엄청난 축복을 기억하고(약5:11) 미래마저도 동일한 은혜로 채워 주실 것을 기대하며 어떠한 믿음의 시련이 닥쳐 와도 끝까지 인내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을 선물로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다(참조, 4:9-11).

본장의 요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1절).

제 4 장 믿음으로 얻을 하나님의 안식

단락구분 1 안식에 들어갈 약속 / 2,3 믿음으로 들어가는 안식 / 4-6 복순종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 7-9 남아 있는 안식의 때 / 10,11 안식에 들어가기로 힘쓰라 / 12,13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 14 믿는 도리를 굳게 지켜라 / 15,16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1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2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 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 함이라

3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 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4 제 칠 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 칠 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5 또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6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7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박케 말라 하였나니

8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9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10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11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로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12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찢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13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같이 드러나느니라

14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15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16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갈 것이니라

1. ㉠ 본장의 중심되는 내용은 무엇인가?

㉠ (1) 본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첫 부분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에 대한 설명(1-13절)과 둘째는 5장의 서론격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體恤)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이처럼 저자가 안식에 대한 설명을 하고 난 다음 곧바로 대제사장의 사역을 성취하신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으로 논리를 전개시킨 것은 그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3절)을 확증하기 위해서였다.

(3) 이러한 논리 전개는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교리를 설명하면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을 연관시킨 사실과(참조 롬4:20-5:1; 고전15:1-4; 갈2:16-21) 똑같은 형태이다.

- (4) 다시 말해 본서의 저자와 사도 바울은 용어 선택에 있어서 상이한 점을 보이고 있지만 내용면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강조하므로 그 추구하는 바가 같다고 할 수 있다.
- (5) 이것은 또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요5:39)라고 말씀하신 예수의 증언과도 일치한다.
- (6)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셨다는 사실(12절)을 깊이 깨닫고 자신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예비한 안식에 들어가도록 해야 하겠다(11절; 롬8:22-25).

2. **㉠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1절)**

- ㉠** (1)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했다(8절).
- (2)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의 예표적인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될 영원한 안식의 약속을 의미한다(참조, 9절).
- (3) 다시 말해 본서의 저자가 말하는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택한 백성들을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의 안식을 의미한다(참조, 요14:1-4).
- (4) 한편 본서에서는 ‘약속’(헬, 에판겔리아)이란 단어가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데 이것은 저자가 하나님의 불변하는 약속을 매우 중요한 문제로 보았기 때문이다(Leon Morris).
- (5)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안식은 그들의 불순종으로 그들에게 성취되지 않았지만 그 약속은 변치 않고 계속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이 단어를 거듭 사용하였다. 한편 그 약속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계속 유효한 것이다.
- (6) 또한 본서의 저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약속했던 바를 확증시키기 위해 맹세로 보증(保證)하셨다고 진술했다(16:17).
- (7)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약속과 맹세)을 인하여 소망 가운데 견고히 설 수 있다.

3. **㉠ 저자는 성도들이 어떻게 될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라고 권면하고 있는가? (1절)**

- ㉠** (1) 저자는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성도들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두려워하라고 권면했다.
- (2) 그런데 ‘있을까 함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도케오>를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 본구절의 의미가 약간씩 달라진다.
- (3) 첫째, 개역 성경과 KJV, Living Bible처럼 ‘있을까 함이라’(seem or may be)로 번역하여 본서의 수신자들 중에 실제로 하나님께서 약속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Stuart).
- (4) 둘째, 하나님께서 약속한 안식에 자신이 미치지 못한 것이 아닐까 라고 의심하는 자가 있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Dods). 이것은 <도케오>란 동사에 대한 해석은 옳을지 모르지만 문장 전체를 지나치게 변형시켜 해석했다.
- (5) 마지막으로 <도케오>가 ‘판단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에 착안하여 ‘그것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을까’로 번역하여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예비한 안식에 못 들어갈 사람이 없지만 경고의 의미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RSV, Moffat). 대부분의 권위있는 주석들은 이 견해를 취한다.
- (6) 여기서 우리는 ‘저희는 믿지 아니하므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

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롬11:20)고 권고한 사도 바울의 음성을 듣는 듯하다.

4. ㉠ 왜 우리와 똑 같은 복음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말씀이 유익되지 못했는가? (2절)

- ㉠ (1) 신약 시대의 성도들에게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즉 안식의 약속은 동일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화합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 복음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했다.
- (2) 여기서 '화합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승케케라스메노>는 '함께 섞이다'라는 뜻으로 결국 본질이 의미하는 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된 그 복음이 믿음과 화합하지 못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
- (3) 그렇기 때문에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은 너무도 당연했다
- (4) 한편 '들은 자가 믿음을 화합하지 아니함이라'는 귀절을 어떤 사본에서는 '그들이 들은 자들과 함께 믿음으로 연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번역되어 있다(참조, RSV 난하주).
- (5)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들은 자들 곧 여호수아나 갈렙처럼 말씀에 순종했던 자같이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으로 옮겨질 수 있다.
- (6) 그러나 본절을 중심으로 한 앞뒤 문맥을 살펴볼 때 이와 같은 해석은 적절하지 못하다.
- (7) 왜냐하면 앞장(3장)과 본장 어느 곳에서도 구약의 성도들 중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한 안식을 얻은 사람에 대하여 언급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 (8) 어떻게 우리 성도들은 본절을 통하여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이지만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음으로써 제외되는 불쌍한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힘써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하겠다.

5. ㉠ 저자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이라 했는가? (2, 3a절)

- ㉠ (1)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듣고도 믿음으로 화합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복음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했으나(2절) 믿는 자들은 그 안식에 들어가게 된다(3a절)고 말했다.
- (2) 이로 보건대 성도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믿음이라고 결론내릴 수 있겠다.
- (3) 또 본서의 저자가 사용하고 있는 '믿음'(헬, 피스티스)이란 용어는 '순종'과 거의 동의어로 사용되었다(참조, 2:3;3:18,19).
- (4) 그리고 여기서 저자가 사용한 '믿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정적인 신앙이라기 보다 그 분께 대한 동적이고 실천적인 신앙의 의미로 사용되었다(Leon Morris). 그러므로 이것은 구원 이후의 문제를 논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5) 그렇기 때문에 본귀절에서 순종과 동의어로 언급된 이 믿음이란 단어는 말씀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응답을 가리키면서 동시에 전심 전력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말한다.
- (6) 다시 말해 본서의 저자가 사용한 이 용어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의'(義)와 연관지어 믿음을 말한 것에서 더 진보하여 야고보가 말한 '행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보여진다(약2:14,17,22).
- (7) 그렇다고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전적으로 우리의 행위에 의해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조건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믿음뿐이며(엡2:8)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그 믿음에 따라 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다(참조, 빌2:12).

(8)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인내함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그리스도의 구원을 힘써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6. ㉠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란 귀절이 뜻하는 바는 무엇인가? (3b절)

- ㉠ (1) 본귀절에 언급된 '그 일'이란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데도다'라는 것과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는 것을 가리킨다.
- (2) 첫째,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데도다'라는 귀절에서 '들어가다'(헬. 에이세르코마이)란 동사가 현재형으로서 믿음으로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가는 중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지(Montefiore) 아니면 들어가는 것은 바로 지금이지만 그 성취는 미래에 되는 것인지 확실치 않다.
- (3) 어떠한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이미 창세 전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 (4) 둘째,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에서 '내 안식'이란 앞에서 언급된 하나님께서 약속한 안식이며 창조시에 제정하신 안식이다(창조, 창2:3).
- (5) 따라서 본귀절도 앞귀절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약속한 안식에 들어갈 수 없는 자도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에 계획하시고 완성하셨다는 의미이다.
- (6) 셋째, 사람들을 안식에 들어갈 수 있게 하셨거나 들어갈 수 없게 하셨던 사실 이외에 하나님은 안식 그 자체도 이미 창세 전에 완성하셨다는 것이다.
- (7)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저자가 나타내고자 했던 것은 바로 안식의 창시자 되시며 안식의 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임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8) 이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매일 매시 매순간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며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제공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다.

7. ㉠ 저자가 안식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하나님은 제 칠 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는 귀절을 인용한 이유는 무엇인가? (4절)

- ㉠ (1)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안식의 규례를 설명함으로써 자기가 주장하는 안식에 대하여 강조하는 효과도 얻게 되며 동시에 안식을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깊이 연관지어 설명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 (2) 먼저 강조적인 의미에서라 함은 지금까지 저자가 안식을 창조와 관련짓지 않고 단지 하나님의 약속만으로 언급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연관지음으로써 안식의 의미가 더욱 분명해지고 강조된다는 것이다.
- (3) 다음으로 저자가 안식을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연관지은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완전한 대역사였으며, 그 사역의 완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가 성취하신 일에 더하거나 감할 것도 없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다.
- (4)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 후 안식에 들어가셨다는 사실은 그가 지으신 모든 것이 자신이 보시기에 매우 좋았다는 확인의 증표였다(창1:31).
- (5) 다시 말해 안식이란 말 속에는 창조 이후의 모든 역사도 이미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 완성된 것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타난 것에 불과하므로 인생사의 모든 것들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가운데 있다(엡1:4:9)는 의미를 내포한다.
- (6)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안식이란 말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 사역을 찬양함은 물론 지금도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자신이 창조시에 이루셨던 완벽한 계획대로 이끌어 가심을 믿어야 한다.

8. ㉠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은 무엇인가? (6절)

- ㉠ (1) 그들의 불순종으로 그들에게 주어졌던 안식의 약속이 이방인인 우리들에게로 돌려졌던

것이다(참조, 롬11:11,12).

- (2) 이것은 또한 제사장 나라로서의 축복, 즉 모든 열국의 구속을 위한 대표적인 국가로서의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참조, 출19:6)이 그 축복을 상실한 것도 의미한다.
- (3)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그 언약을 지키지 않은 것은(하나님께 대한 불순종)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및 그분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를 거부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출19:5; 롬10:16,21).
- (4)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대하여 불순종하여 그들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안식의 약속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해서 안식의 약속 자체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확장시키고 견고하게 하며 분명하게 해주는 역할을 했다.
- (5) 그러므로 본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이방인이었던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속의 섭리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에 참여할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 이것에 대하여 우리는 스스로의 의를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해야 할 것이다.

9. ㉠ 왜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는가? (9절)

- (A) (1) 만일 여호수아의 인도에 의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감을 통해 하나님의 안식 약속이 성취되었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7절)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이다(8절).
- (2) 특히 본절에 언급된 '안식'(헬, 사바티스모스)은 지금까지 사용되었던 안식(헬, 카타푸시스)과는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 (3) 즉 전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사람들의 영혼을 위한 거룩한 안식을 의미하지만, 후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마치고 안식의 땅에 들어갔다(신25:19)는 그런 종류의 '쉼'을 의미한다(Leon Morris).
- (4)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사바티스모스>란 용어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 활동을 하신 후 이제껏 쉬신 것(창2:2)과 관련을 짓고 있다(Augustine, Dods).
- (5)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아마 <사바티스모스>란 용어가 70인역(LXX)에서도 잘 언급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신약에서는 본절에서 꼭 한번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 (6) 한편 부카난(Buchanan)과 같은 이들은 '안식'을 영적인 것 곧 비국가적이고 비물질적인 측면에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 (7) 그 이유는 '그들(수신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고대했던 것과 동일한 의미의 안식을 기대해 오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 (8) 그러나 히브리서 전체에 사용되고 있는 '안식'이란 용어는 결코 국가적이고 물질적이며 세상적인 안식이 아닌 것으로 사용되었다(참조, 10,11절). 즉 이 안식 개념은 순전히 영적인 측면에서 다루어졌다.
- (9)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우리들을 위해 남겨 둔 하나님의 안식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으며 그 성취된 안식을 믿음으로써 그것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써야 하겠다(11a절).

10. ㉠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10절)

- (A) (1) Living Bible의 번역과 같이 본귀절을 '그리스도께서 이미 거기에 들어가셨다'로 이해하여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Ebrard, Alford).
- (2) KJV도 이와 유사하게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에서 '그'에 해당하는 단어를 대문자 'He'로 옮겨 그가 그리스도임을 암시했다.
- (3)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본장의 전후 문맥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암시가 조금도 주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해석이라고 할 수 없다.

- (4)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RSV나 NIV와 마찬가지로 부정 과거형으로 사용된 '들어간'(헬, 에이셀톤)을 일반적인 사실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여 현재형으로 해석했다(for whoever enters God's rest; De Wette, Vincent).
- (5)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예비한 안식에 들어가는 자들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쉬었던 것과 같이 자기 일을 쉬게 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 (6) 그러나 이러한 해석도 본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완전하다고 볼 수 없다.
- (7) 그러므로 우리들은 본귀절을 하나님 나라의 개념과 연관시켜 이해하는 편이 훨씬 쉬울 것이다. 즉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으며 그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성취되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시기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이다.
- (8) 이와 같이 안식도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이미 이 땅에서 시작되었으며 그의 부활로 그 약속(마11:28)을 성취하셨다. 그렇지만 그 약속의 완성은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진다.
- (9) 이러한 미래적이지만 현재적인 안식의 구조를 기억한다면, 본귀절에서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을 지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10) 이것은 또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요5:24)는 귀절의 구조와 일맥 상통(一脈相通)한다.

11. ㉠ 본장에 언급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하여 설명하라(12, 13절).

- ㉠ (1)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죄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표현하고 있다(12a절).
- (2)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적이기 때문에(참조, 요1:1-3) 살아 있으며 운동력이 있다고 표현했으며, 그 말씀의 기능이 인간의 마음속에 내재하는 모든 것, 즉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악독 등(롬1:29)을 심판하기 때문에 죄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다고 했다.
- (3) 그래서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찢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하여 말씀이 인간의 가장 깊은 곳까지 예리하게 분석하며 판단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리켜 주고 있다(12b절).
- (4) 뿐만 아니라 말씀은 인간이 마음속으로 품고 있는 모든 생각과 뜻도 감찰한다
- (5) 특히 본귀절의 '감찰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크리티코스>는 '분리하다' 또는 '판단하다', '심판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크리노>의 파생어임을 감안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은 더욱 분명하게 밝혀진다.
- (6)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어떠한 것도 숨겨질 수 없으며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된다(13절). 즉 말씀은 우리의 삶의 척도요 평가 기준이다.
- (7) 그러므로 말씀의 능력을 아는 우리 성도들은 항상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놓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행해야 할 것이다.

12. ㉠ 저자는 예수를 구약의 어떤 인물과 비교하여 설명했는가? (14, 15절)

- ㉠ (1) 저자는 구약 시대의 제사 제도를 상기하여 그 제사를 주관하던 대제사장과 그리스도를 비교 설명했다.
- (2) 구약 시대의 제사 제도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화목케 되는 수단이었다.
- (3) 그러한 사역을 수행하는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 모든 백성들을

대표해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제사를 드렸다(참조, 레16:1-34).

- (4) 이러한 위치와 신분을 가진 대제사장을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한 것은 구약의 제사 제도와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 사건과 긴밀한 연관이 있다. 그분은 당신의 몸을 제물로 드려 십자가에서 운명하심으로써 온 인류에 대한 대속 사역을 모두 감당하셨던 것이다. 특별히 주께서 운명하실 때 성소 회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돌이 된 것(마27:51)은 모든 기존의 틀을 극복하고 누구든지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한 사실과 깊은 연관이 있다.
- (5) 다시 말해 예수께서 구약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자기와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제사를 드렸듯이 예수께서도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자기 몸을 드려 영원한 제사를 드렸던 것이다(7:27).
- (6) 또한 그분은 죄가 없으시면서도 죄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 있는 인간들이 겪어야 할 모든 연약함을 체험(體恤)하시고 인간들과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후에 영원한 하늘나라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제사를 드렸다(9:11-14).
- (7) 이와 같은 대제사장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에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이다(16절).

화보자료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로마의 산타 프덴찌아나 교회 천장을 장식하고 있는 이 모자이크화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까닭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그분께서 친히 자신의 몸을 바쳐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이다(7:26, 27). 그러므로 이제는 그분의 공로를 덧입는 자마다 결코 정죄함을 당하지 않게 되는데(롬8:1) 우리는 이 같은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아야 할 것이다(14절).

제 5 장 레위인들의 제사장직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직

단락구분 1-4 레위인들의 제사장직 / 5-6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 / 7-10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 / 11-14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신앙

1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2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싸여 있음이니라

3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4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5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날 너를 낳았다 하였고

6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7 그는 육체에 제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

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8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9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10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11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하므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12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13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14 단단한 식품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하므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1. ㉠ 본장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라.

- ㉠ (1) 우리는 앞서 4장 후반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시라는 사실을 살펴보았다(4:14-16).
- (2) 그런데 본장 전반부에는 아론 계통의 제사장 직책에 근거한 대제사장의 필수적인 자질에 대하여 소개되고 있다. 즉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어야 하였으며, 어리석은 백성들에 대하여 동정할 줄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여야 하였다(1-4절).
- (3)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와 같은 자질을 모두 갖추신 분이라는 것이 본서 저자의 주장이다. 그 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이에서 뛰어나 멜기세덱(Melchisedec)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라는 것이 본서 저자의 설명이다(5-10절).
- (4) 이러한 사실은 우리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해준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인도자이시다. 즉 그분께서는 스스로 성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이후 자신에게 순종하는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는 능력이 되신 것이다.

(5) 한편 본장 후반부에는 본서신의 수신자(受信者)들에 대하여 나약하고 무지한 신앙의 단계에서 벗어나 장성한 신앙의 단계에로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하는 저자의 충고가 실려 있다(11-14절).

2. ㉠ 1-4절에서 찾아 볼 수 있는 대제사장의 자질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 ㉠ (1) 첫째,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말은 곧 대제사장은 백성들 가운데서 선택된 자여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럴 때만이 그가 백성들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요건을 예수께서는 갖추셨다(참조, 요일4:2).
- (2) 둘째,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용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에 대하여서 동정심조차 발휘하지 못한다면 그는 이미 온 백성을 긍휼히 여겨 그들을 위한 속죄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자이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모든 연약한 영혼들을 용납하신 사랑의 원천이시다(참조, 요13:1).
- (3) 셋째, 죄의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그가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는 것처럼 자신을 위하여서도 속죄제를 드릴 줄 아는 자여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아무리 거룩한 직책을 맡은 자라 할지라도 알게 모르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이다(참조, 롬3:10; 요일1:8,10). 예수께서는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죄있는 모양을 입으시고 죄인의 자리에 서셨다(참조, 롬8:3).
- (4) 마지막으로 이상과 같은 자질을 다 갖춘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소명(召命)을 받지 못하였다면 그는 결코 대제사장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참조, 출29:4; 레8:1).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한 자는 곧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못한 자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자신의 영광을 취하는 거짓 제사장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역자이시다(참조, 요일4:9,10).
- (5) 이처럼 예수께서는 인류 구속을 위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자질과 요건을 모두 갖추신 완전한 사역자로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고유 직책을 온전히 성취하셨다.
- (6) 한편 이상과 같은 내용은 오늘날 하나님을 위한 사역의 최일선에 나서려는 자들에게 좋은 시금석(試金石)이 된다. 그러므로 아무리 자신이 원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이상과 같은 요구 사항 중 하나라도 자신에게 결격된 것이 있을 시에는 그는 수많은 영혼을 책임지게 되는 목회자의 길로 나서지 말아야 할 것이다.

3. ㉠ 대제사장의 직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라(1절).

- ㉠ (1) 대제사장은 제사장직에 있어서 가장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다. 이런 대제사장의 직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백성들을 위한 속죄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차례(대속죄일에) 지성소(至聖所)에 들어가 온 백성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렸다(레16장).
- (2) 이날에는 하나님께 번제물(燔祭物)과 함께 소제물(素祭物)을 바쳤는데(민29:7-11) 본절에 나오는 '예물'(餼, 도론)이란 말이 곧 '소제물'을 의미하며 '속죄하는 제사'(餼, 뒤시아 휘페르 하마르티온)라는 말이 곧 '번제' 또는 '번제물'을 의미한다.
- (3) 번제는 죄를 대속받으며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다짐하기 위한 제사로서 흠 없는 수소, 수염소, 수양, 비둘기를 제물로 삼았다(레1:3-17). 그리고 소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충성을 표하는 제사로서 밀가루, 감람유, 유향, 무교병(無酵餅) 등을 예물로 삼았다(레2:1-16).
- (4) 이렇게 볼 때 예수 그리스도도는 실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대제사장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만 그분은 여느 대제사장과는 달리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로 삼으신 분이니(요일2:2) 바로 여기에 인간 대제사장과는 다른 점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몸이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값 주고 사신 것이라는 점(고전6:20)을 깨닫고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4. **㉠** 대제사장직은 이스라엘 어느 지파 어느 자손이 차지하였는가? (4절)

- ㉠** (1)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12지파 중 레위 지파를 구분하여 제사장직 및 성전 봉사를 담당하게 하셨다(민3장). 하나님께서는 그중에서도 특히 고한 자손인 아론(Aaron)을 초대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셨으니(출29:5-9) 이후 대제사장직은 아론 가문이 세습하였다(출29:29,30).
- (2) 그러나 이러한 대제사장직도 신약 시대에 와서는 더 이상 아론 가문의 점유물이 될 수 없었으며 세습직도 되지 못하였다. 제사장직은 돈을 주고 얻을 수 있었으며 따라서 레위인이 아닌 자도 제사장직을 차지할 수 있었다. 이 같은 자로서는 마카비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베냐민 사람 메넬라우스(Menelaus)를 들 수 있다(외경 마카비하 4:24).
- (3) 그런데 이와 같이 성직(聖職) 매매가 이루어지는 곳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무너지게 되고 결국 인간 중심의 타락한 종교가 탄생하게 된다. 이렇게 영계가 혼탁한 지경에 이르게 되면 자연히 그 사회는 몰락의 위기를 맞게 된다. 죄악으로 물들어 가는 사회에서 방부제 역할을 하여야 할 성직자들이 오히려 타락해 버린다면 어느 누가 방부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 (4) 자신들의 주권이 약화된 채 명맥을 유지하던 신약 시대 유대인들이 A. D. 70년 이후 약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으로 세계 각처를 떠돌아다니게 되었던 것(1948년 독립 국가 형성)도 결코 그러한 타락된 사회상과 무관하지 않다(참조, 눅11:42-44).

5. **㉠**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반차(班次)를 좇는 제사장인가? (5-10절)

- ㉠** (1) 멜기세덱(Melchisedec)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이다. 그런데 여기서 ‘반차를 좇다’(헬, 카타 텐 탁신)는 말은 멜기세덱과 같은 유형의 제사장이라는 의미이지(J. C. Ward) 결코 멜기세덱의 계열을 좇아 된 제사장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왜냐하면 멜기세덱에게는 후손이나 후계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 (2) 사실 멜기세덱은 여러 가지 면에서 그리스도와 유사한 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느 피조물과는 달리 존재의 시작과 끝이 없으신 분이다(참조, 요8:58; 계1:4). 이와 유사하게 멜기세덱은 아버지 없고 어머니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彷彿)한 자였다(7:3).
- (3)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이시자 만왕의 왕이셨듯이(계19:16) 멜기세덱 역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자 살렘 왕이었다(7:1; 창14:18).
- (4) 또한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과 포도주로 예표되는 자신의 몸과 피(마26:26-29)를 인류의 대속물로 준 것과 멜기세덱이 아브람에게 떡과 포도주를 준 것(창14:18) 간에는 상당한 유사성이 있다.
- (5)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레위 지파를 좇는 제사장이 아니지만(유다 지파의 후손) 하나님의 뜻을 좇아 제사장이 되셨듯이 멜기세덱 역시 레위 지파 이전의 인물로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 자이다(7:1).
- (6)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멜기세덱을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적 인물로 그리고 예수는 그 그림자의 실체로 정의할 수 있겠다.
6. **㉠**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낳은 아들이라는 점과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이라는 점은 어떠한 사실을 의미하는가? (5, 6절)
- ㉠** (1)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낳은 아들이라는 점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왕으로, 선지자로, 특히 제사장으로 삼으셨지 그리스도가 스스로 그러한 영광된 직분을 취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뜻한다. 물론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파생된

존재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의 권위는 곧 성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임을 강조한 것이다.

- (2) 이러한 사실은 고대로부터 왕이 자신의 아들이나 양자(養子)를 후계자로 삼으려 할 때 만인들 앞에 그를 세워 놓고서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선포하던 사회적 풍습으로부터도 명백해진다.
- (3) 이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1장 Q 6,7을 참조하라.
- (4) 그리고 그리스도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이라는 점은 멜기세덱이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자로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었던 것(7:3)처럼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무 역시 영원히 계속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 (5) 사실 그렇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단번에 이루신 대속 사역은 이후 그의 보혈(寶血)을 의지하는 자에게 영원토록 효력을 발휘한다(요6:53,54).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간구하신다(7:25; 롬8:34).
- (6) 그러므로 영원히 계속되는 그리스도의 제사장 사역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먼저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그리고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자.
- (7) 더 자세한 내용은 7장 Q 2-4를 참조하라.

7. Q 본문 중에 나오는 인용 귀절은 각각 어디에서 따온 것인가? (5, 6절)

- A (1) 앞 부분에 나오는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라는 귀절은 시2:7에서 따온 것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그분의 출신을 알려 주는 귀절이다.
- (2) 그리고 뒷 부분에 나오는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이라'는 귀절은 시110:4에서 따온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체사장직의 독특성과 초월성을 강조한 것이다.

8. Q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오셨을 때의 상황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7절)

- A (1) 먼저 '육체에 제실 때에'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서 지내시던 때'를 의미한다. 그런데 여기서 '육체'(헬, 사룩스)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이 세상의 삶을 특징짓는 연약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 (2)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그분의 기도를 의미한다(마26:36-46; 눅22:39-46).
- (3) 이때 그분께서는 할 수만 있으면 자신이 죽음을 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였다. 이러한 점은 예수도 인간적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셨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그렇지만 그는 인간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말로 그의 기도를 끝맺었다.
- (4) 이러한 예수의 기도는 응답을 받고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가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죽는 것이었다. 그러기에 예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숨을 거두시면서 '다 이루었다'(요19:30)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점이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이다. 이처럼 하나님 중심의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응답을 받게 된다.

9. Q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순종함을 배우며 온전케 되었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8, 9절)

- A (1) 우선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마지못해 하나님께 순종했다거나 본래는 불순종하던 자였으나 고난을 받고 나서 순종함을 배우게 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다. 만일 이 말을 그런 식으로 이해한다면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 (2) 이 말은 어디까지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며(마11:29) 순종의 미덕을 지니시고 제신 그리스도께서 고난의 과정을 통해 실제적으로 순종을 체휼하셨다는 의미이다.
- (3) 이것은 곧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완수했다고 할 때 그에게는 본래부터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자질이 있었다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 (4) 이러한 점은 그리스도께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는 말에 있어서도 역시 동일하다. 이 말은 결코 그가 불완전한 가운데서 완전하게 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완전함이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좇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음을 의미한다(롬5:17-21).
- (5) 한편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써 고난을 자초할 필요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 대신 고난을 당하셨으니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 노릇을 하지 말자(갈5:1).

10. ㉠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자는 누구이며 그 구원의 성격은 어떠한가? (9절)

- ㉠ (1) 구원을 얻을 자는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자이고 그 구원의 성격은 영원하다.
- (2) 여기서 그리스도에게 순종한다는 말은 곧 그와 그에 대한 진리를 믿으며 그의 말씀을 좇아 사는 것(요8:51;15:7-10)을 의미한다.
- (3) 그리고 그 구원이 영원하다는 것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요3:16)는 약속의 효력이 영원하다는 의미일 뿐 아니라 그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새 생명 자체가 영원한 것이라는 의미이다(참조, 계21:1-4).
- (4) 이처럼 인간이 그리스도께 순종하므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구원은 엄청난 것으로서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것이다(참조, 마13:44-46).
- (5) 그런데 우리 주위에는 이와 같은 구원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영원한 죽음을 향해 치달는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 많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도 우리와 한가지로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힘쓰자.

11. ㉠ 본서신의 수신자들은 어떠한 자들이었는가? (11-14절)

- ㉠ (1) 첫째,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를 알아듣지 못할 만큼 둔한 자들이었다. 여기서 '둔하다'(헬, 노드로이 게고나테)는 말은 날 때부터 우둔한 것을 의미하지 않고 노력을 하지 않아 무지한 상태에 빠진 것을 의미한다.
- (2) 둘째,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된 지 오래므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즉 기독교 신앙의 기본적인 진리들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선생이 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었다.
- (3) 셋째, 따라서 그들은 젓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자들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젓'은 초신자들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구원의 진리를 의미한다. 반면에 '단단한 식물'은 보다 심오한 영적인 진리를 담고 있는 그리스도의 성육신(成肉身) 교리와 같이 초신자들이 믿고 이해하기 어려운 진리를 의미한다.
- (4) 한편 이와 같은 은유적인 표현은 고전3:2에도 나오는데 거기에는 '젓'과 '밥'(단단한 식물과 동일한 의미임)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다.
- (5) 이처럼 본서신의 수신자들은 오랜 신앙의 연륜(年輪)에 걸맞은 신앙 성장을 이루지 못한 자들이었다. 그러기에 본서신의 저자는 이를 안타까이 여겨 그들을 책망하며 나아가 권면하였던 것이다(참조, 6:1,2).
- (6)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 이와 같이 신앙의 연수는 많으면서 오히려 처음 믿을 때보다

퇴보된 상태에 처해 있는 자들이 없는가? 만일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는 게으름을 버리고 열심을 내어 처음 상태를 회복해야 한다. 그리고 그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모든 일에 전심 전력하여 자신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자'(딤후4:15).

12. ㉠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인가? (14절)

- ㉠ (1) 영적으로 장성한 자들이다.
- (2) 이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영적 지각력을 계발(啓發)하며 성경 말씀을 상고하는 자들이므로 능히 영적 일에 있어서의 선악을 분별할 줄 안다.
- (3) 이와 같은 사실은 사도 바울도 증거하고 있는 바로서 그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할 줄 안다'(고전2:15)라고 말하였다.
- (4) 그러면 우리는 그와 같은 경지에까지 이르러 수 있는가? 있다. 아니 있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러한 경지에까지 이르러야 한다.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무엇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숙, 신앙적 성장이라고 일컬을 것인가? 물론 이 말은 지식적인 측면에서의 성장만이 이루어진 자를 가리켜 영적으로 성숙한 자라 칭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참된 영적 성숙에는 지식적인 수준에 걸맞는 행동적 성숙도 뒤따라야 한다는 것은 필연적이다(참조, 약2:14-17).
- (5)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감동, 감화하시는 능력(고전2:10-12)을 힘입는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자'(엡4:13).

연구자료

신약 시대의 편지 양식. 신약 성경은 총 27권 중 21권이 서신서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까닭에 신약 시대 초기의 편지 양식 및 기타 사항에 관해 간략하게나마 살펴보는 것은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다소 도움이 될 것이다. 신약 시대 초기의 편지들도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사적인 편지인가 공적인 편지인가에 따라, 또한 편지의 용도에 따라 몇 가지 양식으로 분류될 수 있었다. 이러한 기준에 의해 신약 서신들을 다음과 같이 분류해 볼 수 있다. ①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부탁한 빌레몬서는 청원서이면서 천거서(薦舉書)이다 ② 갈라디아서는 그릇된 유대주의에 대해 기독교 신앙을 옹호하는 변증서이다 ③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인들이 보낸 편지에 대한 바울의 답신서이다 ④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인들이 보내 준 헌금에 대하여 감사한 감사 편지이다 ⑤ 데살로니가전서는 성도들이 계속해서 신앙 가운데 자라 가기를 원하는 권면서이다. 이외의 나머지 서신서들도 이와 유사하게 분류될 수 있다. 한편 초대 교회 당시에 자신이 친히 편지를 쓰지 않고 대필자를 시켜 쓰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이런 경우 편지 말미에 자신의 서명을 부기하여 그 편지의 내용을 서명자 자신의 것임을 나타내었다(참조, 고전16:21;골4:18). 그리고 편지의 내용을 비밀로 할 경우 대개 그 편지를 접거나 등글게 말은 후 그 위에 개인의 도장을 찍어 봉하였다(참조, 계22:10).

제 6 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굳게 지키자

단락구분 1-3 초보적인 신앙의 단계에서 벗어나자 / 4-6 사(敎)하심을 받을 수 없는 자 / 7-8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 / 9-12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굳게 지키자 / 13-15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 / 16-20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

1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2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3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4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5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6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7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8 만일 가시와 엉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와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9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10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시라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11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

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12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13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14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15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16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루는 일에 최후 확정이니라

17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18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19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갈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20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1. ㉠ 본장과 전장과는 내용상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 ㉠ (1) 본장은 전장 후반부에서 주어졌던 신앙상의 권면(5:11-14)을 계속해서 다루고 있다.
- (2) 즉 본서신의 저자는 수신자들에게 '그리스도 도(道)'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데로 나아갈 것을 계속 권고하고 있다(12절).
- (3) 그리고 이에서 한결음 더 나아가 저자는 자신의 믿음을 성숙시키지 못하고 헛된 교훈에 미혹된 배도자(背道者)의 결국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하여 경고함과 동시에(4-8절) 게으르지 아니하고 오래 참음으로 믿음의 소망을 굳게 지킬 것을 촉구하고 있다(9-20절).

- (4) 결국 이 모든 내용은 퇴보되는 신앙 생활을 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장성하는 신앙 생활을 하라는 권면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그러므로 본장은 본장의 도입부적인 전장 후반부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 (5) 한편 이러한 본장의 내용은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도 적절한 교훈을 주고 있다. 교작 '그리스도 도'의 초보만을 깨닫고서 '그리스도 도'를 완전히 이해한 줄 착각하고서는 교만과 안일(安逸)에 빠져 지속적인 신앙 성장을 이루지 못하는 것과 같은 잘못은 누구나 범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에게 속지 말고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자'(11절).

2. ㉠ '그리스도 도의 초보'라 할 수 있는 것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1, 2절)

- ㉠ (1) 첫째,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사실 죽을 수밖에 없던 지난날의 행실을 뒤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행위인 회개는 세례 요한이나(마3:2), 예수 그리스도(막1:15) 그리고 그의 제자들(행2:38)의 가르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었다.
- (2) 둘째, 세례들과 안수에 관한 교훈이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세례들'(헬, 바티스몬)은 기독교의 '세례'(헬, 바티스마, 롬6:4;엡4:5;골2:12)를 의미하지 않고 유대교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정결 예식을 의미한다(참조, 레11-15장).
- (3) 그런데 초대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는 죄 씻음을 받은 표징을 세례로 볼 것인가 아니면 유대인들의 정결 의식으로 볼 것인가에 대하여 논란이 많았다(참조, 요3:25;행15장). 그런 이유로 해서 '세례들'에 관한 교훈은 당시 기독교 신앙의 초보적인 도에 불과하게 되었을 것이다.
- (4) 한편 축복이나 능력 또는 권위를 전한다는 의미를 지닌 '안수'(按手)는 고대부터 널리 시행되던 관습이었다(참조, 민8:10;신34:9). 기독교에 있어서도 새로운 개종자(행8:17)나 전도 사역자(딤후4:14)에게 종종 안수를 하였다. 이러한 때의 안수는 이후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 같은 안수에 관한 교훈도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 도의 초보'에 불과하였다.
- (5) 셋째,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이다. 이와 같은 주제는 당시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한결같은 관심거리였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들이 전파하는 것도, 믿음도 헛 것이라고 까지 단언(斷言)하였다(고전15:13,14). 그러므로 초대 교회에 있어서도 이러한 주제는 누구나가 익히 아는 초보적인 도에 불과하였을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3. ㉠ 본서신의 저자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와 관련지어 본서신의 수신자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점은 무엇인가? (1, 2절)

- ㉠ (1) '회개',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와 '안수', '부활' 및 '심판'에 관한 교훈 등과 같은 그리스도 도의 초보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보다 완전한 데로 나아가라는 것이다.
- (2) 물론 이 말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초보적인 진리들을 무시하라는 뜻은 결코 아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기본 진리들에 대한 지식을 확고히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렇지만 그러한 기초가 충실히 다져졌을 때에는 다시금 기초를 놓을 필요 없이 그 기초 위에 온전한 기독교 신앙의 집을 지어야 하는 것이다.
- (3)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기독교 신앙의 집'(완전한 데)이란 보다 심오한 기독교 진리를 깨달아 알 뿐만 아니라 그 지식을 좇아 실천할 줄 아는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의미한다(참조, 5장 ㉠ 12).
- (4) 이처럼 모든 성도들은 '일일신 우일신'(日日新又日新)하는 신앙인의 면모를 갖추어야 한다. 만약 한결같이 어린아이의 상태에만 머물러 있는 자라면 그의 신앙은 비정상적

인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같이 현재 자신의 신앙 발육 상태가 어떠한지를 관찰하고 성장에 필요한 각종 영적 영양소를 공급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하자(마7:19).

4. **㉠** 인간이 자신의 힘만으로 완전한 신앙의 경지에까지 이르러 수 있는가? (3절)

- ㉠** (1)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이 우리가 완전한 데까지 나아갈 수 있다.
 (2) 여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도와 주셔야만이’ 또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지하여야만이’라는 뜻이다.
 (3) 이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길뿐이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과 함께 악을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 이 두 마음이 서로 싸워 할 수만 있으면 죄악을 행하도록 충동하기 때문이다(롬7:21-23).
 (4) 이 같은 악한 마음의 충동은 인간의 의지력만으로는 이겨 내기 힘들다.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악한 마음을 품도록 조장하는 것은 사단의 짓이기 때문이다(참조, 고전7:5). 그러므로 이 같은 악의 충동은 십자가상에서 사단을 굴복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여야만이 능히 이겨 낼 수 있다(참조, 마16:21-23; 요19:30).
 (5)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그에 대한 진리를 믿을 수 있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라날 수 있는 믿음의 씨앗을 주셨기 때문이며(엡2:8) 그 씨앗이 성장하여 열매를 맺도록 해주실 수 있는 분 역시 하나님뿐이다.
 (6) 그러므로 우리는 내 자신의 노력이 가미(加味)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나의 신앙이 완전한 데까지 이르러 수 있게 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배후에서 도와 주시는 하나님의 사역 때문이라는 점을 잊지 말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신앙 생활해야 할 것이다(참조, 고전3:5-7).

5. **㉠** ‘다시금 회개케 할 수 없는 자’, 즉 죄 사함 받을 수 없는 자는 어떤 자인가? (4-6절)

- ㉠** (1)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이다.
 (2)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박아 현저히 욕을 보인 자들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3) 그런데 이상한 것은 실제로 거듭난 자로서 이상과 같은 영적 체험을 한 자는 결코 타락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요6:38-40; 롬8:30-39; 살후3:3).
 (4) 그렇다면 저자가 본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인가? 그들은 다름아닌 교회 가운데 알곡과 함께 섞여 있는 가라지 신자들임에 분명하다(마13:24-30). 그들은 일시적이거나 영적 체험을 하고서 은혜 가운데 잠겨 있는 삶을 사는 것처럼 가장하나 결국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배도(背道)하게 된다.
 (5) 따라서 이러한 자들은 회개할 수 없으며 결국은 멸망의 심판에 이르게 된다(마13:30). 한편 이와 같은 가라지 신자는 우리들에게 영적 각성을 촉구하는 좋은 본보기가 된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굳게 부여잡음으로써 믿는 자에게 주시리라고 약속하신 영생의 축복을 온전히 성취하자(딤후6:12).

6. **㉠** 본서신의 저자가 언급하고 있는 영적 체험들이 어떠한 것인지 설명하라 (4, 5절).

- ㉠** (1) 첫째, ‘한번 비침을 얻었다’는 말은 복음에 관한 가르침을 받아 그 뜻을 능히 알게 되었다는 의미이다(고후4:4; 엡1:18,19). 성경에서는 종종 복음의 진리를 가리켜 ‘세상의 빛’(고후4:6; 뵤후1:19)으로 묘사하고 있다.
 (2) 둘째,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다’는 말은 성령의 장중(掌中)에 사로잡혀 사는 가운데 참된 마음의 화평, 기쁨 등과 같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세의

상급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뜻이다.

- (3)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사실(시19:10)을 체득하였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지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내세의 상급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뜻이다(요8:51).
- (4) 이상과 같은 영적 체험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서 그를 신뢰하며, 그를 바라보며, 그를 위한 봉사의 삶을 사는 자이면 누구든지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사(恩賜)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바라보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 원하고 계신다(참조,마7:11). 그러므로 우리는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도록 힘쓰자(고전14:1).

7. ㉠ 7,8절에 나타난 비유에서 각 단어들에 의미하는 바를 풀이하고 본절이 의미하는 바를 약술하라.

- ㉠ (1) 땅 : 여기서는 성도들을 의미한다(참조,마13:18-23).
- (2) 비: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와 성령의 감화, 하늘 등을 의미한다(4,5절;사44:3;55:10).
- (3) 밭 가는 자들 : 성도들과 인간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자들, 즉 성도의 행위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영향을 받는 자들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이를 조금 확대 해석한다면 세상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 (4) 그러므로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낸다'는 것은 '한번 비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4,5절) 성도가 그에 합당한 열매, 즉 첫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다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것을 의미한다.
- (5) 그러나 비를 흡수한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노하시게 만들며 사람들에게는 해(害)가 되는 '육신의 열매'(갈5:19-21)를 맺는 것을 의미한다.
- (6) 따라서 전혀 판이한 열매를 맺는 이들 두 부류의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報應) 역시 다르다. '가시'와 '엉겅퀴'가 저주의 산물이듯이(창3:17,18) 이러한 열매를 맺는 거짓 성도들이 하나님의 저주와 멸망의 심판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그렇지만 신앙의 열매를 맺는 참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임한다.
- (7) 한편 이상과 같은 비유와 그 교훈은 새삼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해준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비를 맛보며 열매를 맺어 나가고 있는 자들이다. 그런데 우리가 키워 나가고 있는 열매는 과연 어떠한 열매일까? 성령의 열매인가 아니면 육신의 열매인가? 만일 육신의 열매일 것 같으면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경 앞에서 자신을 살피 '육체의 소욕(所欲)'(갈5:17)을 버리고 성령을 좇아 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갈5:16).

8. ㉠ 본서신의 저자가 수신자들에 대하여 확신하고 있는 바는 무엇인가? (9,10절)

- ㉠ (1) 자신이 4-8절에서 배도자(背道者)의 결국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하여 경고하기는 하였지만 자신의 글을 받아 읽을 수신자들이 그와 같은 배도자들은 아니라는 점이다.
- (2) 이처럼 저자가 그러한 점을 확신할 수 있었던 까닭은 수신자들의 착한 행실 때문이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사랑으로 다른 성도들에게 봉사하기를 계속하고 있었던 것이다.
- (3) 그러므로 저자는 본절에서 말하기를 '너희가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니 이는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시라 너희가 그의 이름을 위하여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라' 하였던 것이다.

- (4) 그런데 이 같은 말은 자칫 잘못하면 인간이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로 오해되어질 수 있다. 그렇지만 이 말은 결코 그러한 뜻이 아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롬3:28;10:10). 그리고 행위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참된 믿음에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일 뿐이다.
- (5) 저자가 말하고 있는 바는 단지 가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행한 사랑의 행위는 하나님께 기억될 만한 것이라는 점이다. 사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인간에 대한 사랑의 행위를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내지는 것이다(요일4:20,21).

9. **㉠** 본서신의 저자가 수신자들에 대하여 간절히 바라고 있는 점은 무엇인가? (11, 12절)

- ㉠** (1)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다.
- (2) 여기서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른다'는 말은 '온전한 소망을 지닌다'는 뜻이다. 그런데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참된 소망이란 다름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의미한다(롬8:24,25).
- (3) 그리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란 특정한 한 시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어느 때에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을 기업(基業)으로 누리는 자들을 가리킨다. 이러한 점은 '기업으로 받는다'(헬, 클레로노몬)라는 동사의 시상이 현재형이라는 사실에 의해 뒷받침된다.
- (4) 따라서 저자가 수신자들에 대하여 간절히 바라고 있는 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 어떠한 처지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여 남들과 같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라는 것임을 알 수 있다.
- (5) 그런데 사실 우리들도 자신이 게을러서 또는 일시적인 회의(懷疑)로 인해 오히려 퇴보된 신앙 상태에 빠져 자신이 구원받았는지에 대하여서조차도 확신치 못할 경우가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롬11:12). 그리고 진심으로 자신에게 나아오는 자를 온전히 구원하신다(7:25).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낙심치 말자. 그리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12:1,2).

10. **㉠**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은 무엇이었는가? (13-15절)

- ㉠** (1) '내가 반드시 너를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케 하리라'는 것이었다.
- (2) 이 같은 하나님의 약속은 육체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큰 나라를 이루는 것을 의미하며(창12:2;17:5,6;22:17), 영적으로 그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많이 일어날 것을 의미한다(참조, 창22:18).
- (3) 하지만 이 같은 하나님의 약속 중 아브라함의 육체적 후손이 큰 나라를 이루리라는 것만 해도 아브라함 생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아브라함이 첫아들인 이삭을 본 것은 그가 처음 약속을 받은 때(창12:1-4)로부터 25년이 지난 후의 일이었다(창21:5). 그런데 하물며 자신의 제보를 좇아 날 그리스도(마1:1-16)로 말미암아 많은 영적 후손이 생기는 것을 어떻게 그가 볼 수 있었겠는가?
- (4)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는 저자의 말 뜻은 무엇인가? 그것은 비록 자신의 눈으로 볼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리라는 것을 굳게 믿음으로써 본 것과 다름없는 효력을 아브라함이 누렸다는 뜻이다. 이러한 사실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요8:56)는 그리스도의 말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 (5) 이처럼 아브라함은 자신의 당대(當代)에는 이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서 오래 참음으로써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았다. 이 같은 아브라함의 자세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요3:16)는 약속을 받고 있는 우리들에게 좋은 귀감(龜鑑)이 된다.
- (6) 물론 예수를 믿으면 그 즉시 구원을 얻는 것은 사실이지만(참조, 눅19:9) 그러한 구원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재확인된다(마25:31-46; 계20:11-15). 그러므로 우리들도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그날까지 환난 중에서라도 인내하며 연단을 받되 낙심치 말자(롬5:1-4).

11. **㉠**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자신을 가리켜 맹세한 까닭은 무엇인가? (13절)

- ㉠** (1) 하나님 자신보다 더 큰 이가 없었기 때문이다.
- (2) 맹세라는 것은 본래 자기보다 높은 자나 아니면 절대자의 이름을 걸고서 맹세하는 것이 관례이다(16절).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는 말을 많이 한다.
- (3) 그런데 하나님께 있어서는 자신보다 더 높은 이가 있을 수 없다. 그분만이 절대자이시며 지고자(至高者)이시다(시99:2). 그러므로 그분은 맹세하되 자신의 이름을 가리켜 맹세하였던 것이다.
- (4) 한편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變改)함이 없으시다(삼상15:29).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자신의 이름을 걸고서까지 맹세하셨다는 것은 곧 아브라함에게 크나큰 확신을 주시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 (5)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불변성과 신실성은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영향력을 미친다(참조, 13:8).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요3:16)는 하나님의 약속의 확실성을 굳게 믿어야 한다.

12. **㉠**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16절)

- ㉠** (1) 저희 모든 다투는 일에 최후 확정이 되기 때문이다.
- (2) 바로 여기에 맹세의 중요성이 있는 것인데 만일 그가 맹세를 하고서도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자기보다 더 큰 자의 이름을 남용한 죄(명에 훼손죄)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 (3) 그런데 비록 그러한 경우가 발생할지라도 그 큰 자가 맹세자를 대신하여 약속을 이행하여 주겠다고 처음부터 보증할 수도 있다.
- (4) 이와 같이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한 맹세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맹세의 내용이 이행(履行)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처음부터 이행 불가능한 일인 줄 알면서도 맹세하여 약속하기를 금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가 어떠할 것인가?
- (5)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은 교훈을 주고 있다.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나의 미워하는 것임이니라 나 여호와와 같이 말하라'(슌8:17). 따라서 우리들은 다른 사람 뿐 아니라 스스로를 곤경에 처하게 하는 거짓된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13. **㉠** 하나님께서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맹세로 보증하신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 (17, 18절)

- ㉠** (1) 그 이유는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 즉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인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 함이다.
- (2) 그리고 그렇게 한 목적은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安慰)를 받게 하려 함이다.
- (3) 여기서 성도들이 피하여 가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 수 없다. 그렇

지만 성도들이 피하여야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죄악된 삶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만일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죄악 세상뿐이라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란 좌절뿐일 것이다.

- (4)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비록 이 세상에 살면서도 현상적(現象的)인 것 이상을 본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과업이자 약속인 구원의 성취를 대망한다. 이와 같이 우리는 구원을 소망하는 가운데 안위를 얻는 것이다(참조, 고후4:16-18).

14. **㉠** 하나님께서 맹세로 보증하신 그 일(그 뜻)이란 무엇인가? (17절)

- ㉠**(1)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축복이다.
 (2)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창22:18)고 약속하셨다. 이것은 곧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영생의 축복을 얻을 것을 뜻한다.
 (3)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맹세한(창22:16) 그 맹세는 비단 아브라함에게만 미치는 맹세가 아니라 그의 영적 후손인 우리 모두에게 미치는 맹세가 되는 것이다.
 (4)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단지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보증하셨다.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는 생명을 그분께 바쳐도 아깝지 않는 성격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초 보은(結草報恩)하는 의미로 오직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삶을 살자(롬14:8).

15. **㉠**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이란 무엇인가? (18절)

- ㉠**(1) 첫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하신 약속이다. 두번째, 그 약속에 대하여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신 맹세이다.
 (2) 이러한 점은 하나님의 양면적인 특성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약속을 하는 입장에 있어서 하나님은 계약자이시다. 동시에 그 약속에 대하여 맹세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보증인 이시다.
 (3)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약속만으로도 충분한데 그 위에 보증까지 해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약속과 보증에 의지하여 험한 세상 중에서도 크나큰 위안을 얻게 된다.
 (4) 사도 바울은 이 같은 사실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롬8:39)는 확신에 찬 고백으로 표현하고 있다. 사실 우리는 실망시킬 수 있는 것이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赤身)이나 위협이나 칼이'(롬8:35) 될 수 없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으니 소망에 굳게 서서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자(롬8:37).

16. **㉠** 성도들에게 있는 소망의 특성과 역할에 대하여 살펴보라(19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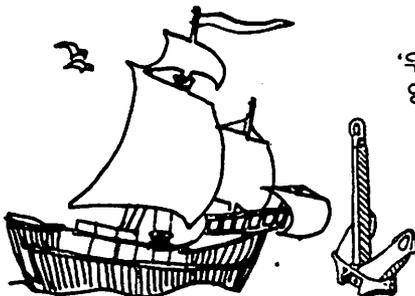
- ㉠**(1) 성도들에게 있는 구원에 대한 소망은 마치 영혼의 닻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다는 게 그 특성이다.
 (2) 여기서 '영혼'(헬, 프쉬케)은 단지 사람의 영적 측면만을 뜻하지 않고 인간의 생명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위의 말은 '소망은 인간 전생(全生)에 있어서의 닻과 같다'는 의미이다.
 (3) 그리고 '튼튼하고 견고하다'는 말에 대하여선 웨스트코트(B. F. Westcott)가 다음과 같이 풀이하고 있다. '튼튼한'(헬, 아스팔레스)이란 말은 '외적인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요동치 않는 것'을 의미한다. '견고한'(헬, 베바이아)이란 말은 '타고난 성질 자체가 굳건한 것'을 의미한다.
 (4) 한편 이 같은 소망이 하는 역할이란 성도들을 휘장 곧 지성소(至聖所) 안으로 인도해 들어오는 것이다.

- (5) 지성소는 휘장으로 막혀 있는 장막으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이다(출26:31-37). 이곳은 대제사장 외에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곳으로서(레16장) 곧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모형이다.
- (6)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구원에 대한 소망은 우리를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에도 넉넉히 인도해 들인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듯 그 약속을 성취시켜 주실 분 역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참조, 엡1:3-14).
- (7)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더라도 낙심치 말자. 그리고 오직 구원의 주(主)이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가운데 참된 평안을 누리도록 하자(요16:33).

17. ㉠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은 무엇인가? (20절)

- ㉠ (1) 우리를 위하여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휘장(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신 것이다.
- (2)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영원한 대제사장' 이시라는 것에 대하여선 5장 ㉠ 5,6을 참조하라.
- (3) 한편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다는 말은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의미이다.
- (4) 이러한 사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예루살렘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들이 되었던 사실(마27:50,51)에 의해서도 입증된다. 이것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그분 앞에 기꺼이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께서 죄의 세력을 격파(擊破)하셨음을 의미한다(참조, 창3:15; 롬5:10).
- (5) 이처럼 하늘의 지성소인 하나님 나라로 가신 예수께서는 이제 우리를 위하여 그곳에 처소를 예비해 놓고 계신다(요14:2,3).
- (6)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몸은 세상에 속해 있지만 마음만은 영원한 소망의 대상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성(11:16)은 그 어떤 악의 세력도 넘보지 못하는 '새 예루살렘'이다. 그곳에서 우리는 사망이나 애통, 곡하는 것이나 아픔을 결코 맛보지 아니하며 살아갈 것이다(계2:2,4).

본장의 요절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닻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19절).

제 7 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단락구분 1-3 살렘 왕이며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 / 4-10 레위인 제사장과 멜기세덱의 차이점 / 11-13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의 필요성 / 14-19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 20-25 영원한 제사장인 예수의 직무 / 26-28 단번에 속죄 사역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1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입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2 아브라함이 일체 십분의 일을 그에게 나눠 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3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4 이 사람의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략물 중 좋은 것으로 십분의 일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5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자들이 율법을 좇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십분의 일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6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십분의 일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7 폐일언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을 받느니라

8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십분의 일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9 또한 십분의 일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십분의 일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10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니라

11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좇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12 제사 직분이 번역한즉 율법도 반드시 번역하리니

13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14 우리 주께서 유대로 좇아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15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16 그는 육체에 상판된 계명의 법을 좇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좇아 된 것이니

17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18 전옛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하므로 폐하고

19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20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21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22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23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효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있지 못함이로되

24 예수는 영원히 계시므로 그 제사 직분도 같리지 아니하나니

25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시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26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27 저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러 이루셨음이니라

28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1. ㉠ 본장의 개요를 살펴보자.

- ㉠(1) 본서의 저자는 이미 5장에서 멜기세덱에 관해 언급하면서 예수를 멜기세덱과 같은 대제사장으로 소개했었으나(5:6-11) 지극히 간략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 (2) 그런데 이제 본장에서 저자는 그 내용을 확대시키고 있다(1-10절). 그리고 그 내용은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 이심을 증거하고 있다(14-25절).
- (3) 하지만 정통적인 유대인들에게 있어선 레위 계열을 좇지 않는 다른 계통의 제사장이 존재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저자는 본장에서 왜 새로운 반차를 좇는 제사장이 필요한지에 대하여서까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다(11-13절).
- (4) 아뭏든 이러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속죄 제사를 드리셨으니(27절) 이제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행16:31).

2. ㉠ 멜기세덱은 어떠한 자인가? (1-3절)

- ㉠(1) 첫째, 그는 살렘 왕이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빈 자이다(창14:17-20).
- (2) 여기서 '살렘'(Salem)은 예루살렘(Jerusalem)을 가리키는 또 다른 칭호로서 '평화'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참조, 시76:2).
- (3) 둘째, 그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彷彿)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자이다.
- (4) 여기서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다'는 말은 멜기세덱의 부모가 누구이며 그 혈통이 어느 계보를 좇아 난 것인지에 대한 기록이 없는 만큼 그의 출생과 사망에 관한 기록이 없다는 뜻이다.
- (5) 그런데 이러한 멜기세덱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 '항상', 즉 그의 전생애 동안 제사장 직무를 행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 있어서 제사장의 족보 문제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바벨론 포로 이후 족보가 확실치 않았던 제사장들은 부정하게 여겨져 제사장 직무를 행치 못하였던 것(느7:64)에 의해서도 알 수 있다.
- (6) 아뭏든 이상과 같은 멜기세덱의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방불하다. 예수는 '만왕의 왕'(계19:16)이시자 '큰 대제사장'(4:14)이시다. 뿐만 아니라 그의 '근본은 상고(上古)에, 태초에'(미5:2)이시다. 그리고 예수의 제사장직은 영원한 것으로서 그분은 지금도 그 직무를 수행하고 계신다(참조, 5장 ㉠6). 그러므로 우리는 멜기세덱을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라고 칭할 수 있다.

3. ㉠ '멜기세덱'이란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2절)

- ㉠(1) '나의 왕은 의롭도다'이다.
- (2) 이 말은 '나의 왕'이란 히브리어 <말키>와 '의'라는 히브리어 <체덱>이 결합된 것이다.
- (3) 그런데 저자는 본절에서 이 이름의 뜻을 간략하게 '의(義)의 왕'으로 풀이하고 있다. 그리고 멜기세덱이 '살렘 왕'인 점을 들어 '평강의 왕'(참조, ㉠2)이라는 뜻을 덧붙이고 있다.
- (4) 이 같은 이름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인 양 우리를 착각하게 만든다. 시편 기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을 미래의 구원 사역에 관해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는 것'(시85:10)으로 노래하였다. 또한 선지자 이사야와 예레미야는 장차 나실 그리스도를 가리켜 각각 '평강의 왕'(사9:6), '여호와 우리의 의'(렘23:6)로 칭하였었다.
- (5) 이처럼 이름에 있어서조차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멜기세덱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해 해준다. 첫째,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에게 참된 평강을 주러 오셨다(마11:28). 둘째, 장차 그가 다스릴 왕국은 공의(公義)가 넘치는 나라가 될 것이다(참조, 사9:7; 11:1-5).

- (6) 이중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평강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받아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의로 다스릴 왕국은 장차 완성될 성격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할 때(제20:4)까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을 참고 견디 나가야 한다(롬8:17).

4. **㉠** 멜기세덱과 레위인 제사장 간의 차이점에 대하여 살펴보라(4-10절).

- ㉠** (1) 멜기세덱은 레위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서 십일조를 받았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다. 그러나 레위인 제사장들은 단지 자기 형제인 백성들에게서 십일조를 취하였을 뿐이다.
- (2) 그리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십일조를 바쳤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레위인 제사장들이 멜기세덱에게 십일조를 바쳤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조상을 가리켜 말할 때 그 후손까지도 모두 포함하는 어법(語法)이 종종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참조, 창25:23; 고전15:22).
- (3) 또한 레위 제사장들은 유한한 존재로서 반드시 죽음을 맛볼 자들이었으나 멜기세덱은 '죽보' 및 '출생과 사망 년 월 일'에 관한 성경상의 기록이 없는 자였다(참조, ㉠2).
- (4) 결국 이상과 같은 차이점은 멜기세덱이 레위 제사장들은 물론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자였음을 증거해 준다. 그런데 이러한 점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역시 그러하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요8:58)고 친히 말씀하셨다.
- (5) 따라서 우리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救主)가 되셨음을 기뻐하자. 왜냐하면 그분만이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26절)로서 우리를 위한 속죄 제사를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실 수 있었기 때문이다'(27절).

5. **㉠** 5절의 '허리에서 난 자', 10절의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 등과 같은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 ㉠** (1) 자녀(후손) 출산 및 잉태를 의미한다.
- (2) 성경에서 '허리'라는 말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로 쓰이고 있다. 첫째, 활동을 위한 준비 태세를 갖춘다는 의미이다(왕상18:46). 둘째, 힘의 근원을 의미한다(나2:1). 세째, 본절에서와 같이 잉태 및 출산과 관련된 생식 기능을 의미한다.
- (3) 그러므로 우리는 창35:11에서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네게서 나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는 말도 찾아 볼 수 있다.
- (4) 한편 '허리에서 난 자'란 이미 탄생한 자를 뜻하며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다'는 말은 아직 탄생하기 전을 의미한다.

6. **㉠** 레위 계통이 아닌 다른 반차를 좇는 제사장이 필요하게 된 까닭은 무엇인가? (11절)

- ㉠** (1)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에 의해서는 사람들이 온전함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 (2) 여기서 말하는 '온전함'이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갖추어야 할 조건들을 구비(具備)한 완전한 상태를 의미한다.
- (3) 이러한 조건들 중 두 가지를 들 것 같으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죄가 없거나 죄를 완전히 사(赦)함 받았어야 한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죄 있는 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참조, 출20:18,19; 사6:1-7). 둘째, 마음이 청결하여야 한다(참조, 마5:8).
- (4) 그런데 레위인 제사장들의 제사 행위로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죄악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들에게서 받은 율법은 사람들의 죄를 깨닫게 해줄 뿐 그것을 온전히 지켜 의롭다 함을 얻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참조, 롬5:20).

(5) 따라서 레위 제통이 아닌 다른 반차를 좇는 제사장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그는 곧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이시다(참조, 5장 Q5). 그는 친히 우리의 죄를 걸머지고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맛보셨다. 그리하여 이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없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다(사53:4-6; 고후5:21).

(6) 이것이 곧 우리의 기쁨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예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살려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에게 관용(寬容)을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빌4:4,5). 진정 이러한 자세만이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가 취할 자세가 아니겠는가?

7. Q 제사 직분이 변역(變易)되면 율법도 자연히 변역되는 까닭에 대해 살펴보라(12, 13절).

A(1) 레위 제통의 제사장 직분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출28,29장)에 근거하여 세워진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제사장 직분에 결함이 있다는 것은 곧 율법 자체에 결함이 있다는 뜻이 된다.

(2) 그러므로 제사 직분이 변역되면 그에 따라 율법도 자연히 변역되어야 마땅하다.

(3) 한편 여기서 말하는 '율법의 변역'은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로부터 한 제사장이 좇아 나는 것을 의미한다.

8. Q 예수께서 속한 지파의 특성에 관하여 살펴보라(13, 14절).

A(1) 예수께서 속한 지파는 유다 지파이다(참조, 계5:5). 마태 및 누가가 기록한 예수의 족보를 살펴보면 예수는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으로 소개되어 있다(마1:1-16; 눅3:23-38).

(2) 이 유다 지파는 제사장 지파가 아닌 왕족 지파였다. 다윗과 솔로몬은 물론이고 남왕국 유다의 전왕(全王) 및 예후(Jehu, B.C.841-814)에서부터 살룸(Shallum, B.C.752)에 이르기까지의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섯 왕도 유다 지파 출신이다.

(3) 이러한 유다 지파 가운데서는 제단(祭壇) 일을 받드는 제사장이 단 한 명도 배출될 수 없었다.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에 레위 지파만이 제단 일을 받들도록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민34장).

(4) 그러나 레위 제통의 제사 직분으로는 사람이 온전케 될 수 없었으니(참조, Q6) 멜기세덱과 같은 제사장인 예수께서 불가불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이 되셨다(참조, 6장 Q17).

(5) 이처럼 제사 직분 및 율법이 변역된 것은 전적으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다시 살리려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起因)한다(참조, Q6).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생각할 때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9. Q 예수께서는 무엇을 좇아 제사장이 되셨는가? (16, 17절)

A(1) 레위인 제사장들이 제사장 된 것은 어디까지나 '육체에 상관된 제명의 법'을 좇아 된 것이었다. 그렇지만 이와는 달리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어디까지나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좇아 된 것이다.

(2) 여기서 '육체에 상관된 제명의 법'이란 모세의 율법을 의미한다. 그것은 일시적이며 썩어 없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 육체에 상관된 의식적 규례(儀式的規例)를 상세히 규정해 놓은 것이다.

(3) 그러나 이에 반해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란 예수의 신성(神性)과 신적 권위를 의미한다. 즉 예수께서 제사장 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특별한 권위에 의해서 된 것이다(참조, 5장 Q6).

(4) 한편 이 예수는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만세(萬歲)의 왕'(딤후 1:17)이시다. 그러므로 그의 제사장직은 영원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해 성경은 '네가

영원히 떨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이라'(시110:4)고 증거하고 있다.

10. **㉠** 율법이 번역된 결과 우리들에게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무엇인가? (18, 19절)

- ㉠** (A) (1) 이제는 누구든지 부르심을 받은 자(롬8:28,30)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다.
- (2)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자는 오직 그 앞에서 온전한 자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6에서 살펴보았다. 그런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11절).
- (3) 그러한 처지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셨다. 그것은 곧 예수의 대속 사역을 믿는 자마다 그의 의(義)를 힘입어 죄로부터 완전함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다(12:2;골1:28).
- (4)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와 꺼져 가는 등불과 같은 우리들(사42:3)에게 영원하고 참된 소망을 주셨다.
- (5) 따라서 이 같은 소망에 근거하여 새 생명을 얻은 우리 성도들은 더 이상 '씩어져 가는 구습(舊習)'(엡5:22)을 좇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義)를 좇는 새 생활을 힘써야 한다(마6:33).

11. **㉠** 예수의 제사장직과 레위인 제사장직 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20-25절)

- ㉠** (A) (1) 첫째, 예수께서 제사장 되신 것은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나 레위인들이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다.
- (2) 하나님께서는 예수께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너는 떨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한 제사장이라'(시110:4)하셨다. 그렇지만 레위인들이 제사장 될 때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맹세가 없었다. 그들은 다만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16절)을 좇아 직분을 취하였을 뿐이다.
- (3) 둘째, 레위인 제사장들의 수효는 많으며 그 직분은 일시적인 것인데 반해 예수와 같은 제사장은 단 한 분이시며 그 직분은 영원하다.
- (4) 왜냐하면 레위인 제사장들은 인간인지라 죽음과 함께 그 직무가 끝나고 다른 사람이 그를 대신하여야 하는데 반해 예수께서는 죽지 않으시고 항상 살아 제서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시기 때문이다.
- (5) 따라서 하나님의 맹세로 제사장이 되시고 항상 살아 제서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예수는 '더 좋은 언약' 곧 '더 좋은 소망'(19절)의 보증이 되신다(참조, 6장 ㉠15).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예수를 힘입어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자.

12. **㉠** 예수께서 항상 살아 제서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25절)

- ㉠** (A) (1) 이 말의 의미는 이제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제서 항상 우리를 위한 중재 사역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이다(롬8:34).
- (2)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중재 사역이란 예수께서 하나님께 우리들의 죄를 눈감아 달라고 간청한다거나 우리들에게 특별한 축복을 내려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 (3) 단지 예수의 중재 사역이란 인류를 위해 대속(代贖)의 죽음을 겪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당신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제서서 항상 우리들을 지켜 보고 계시는 것 자체를 의미한다(Snell).
- (4) 우리는 이 같은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시인하는 것만으로 넉넉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주(主)로 시인하면 예수께서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자신이 피 흘려 사신 성도로 시인하실 것이기 때문이다(마10:32,33).
- (5) 이러한 점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예수의 중재 사역은 항상 시행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참조, 5장 ㉒6).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환난이나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치 않음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야 할 것이다(참조, 빌2:12).

13. ㉒ 예수와 인간 대제사장 간의 근본적인 차이점에 대하여 살펴보라(26, 27절).

- ㉒ (1) 인간 대제사장들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 항상 자기 죄를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린다(참조, 레4:3-12). 왜냐하면 그도 역시 불완전한 인간인 지라 부주의로 인해 범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 (2) 그리고 그는 날마다 백성들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린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어느 때고 간에 범죄할 뿐 아니라 그의 제사장 직분 역시 불완전한 것(참조, ㉒6)이기 때문이다.
- (3) 이에 반해 예수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 자이므로 자신을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필요치 않으신 분이다(참조, 4:15).
- (4) 뿐만 아니라 그는 인간들의 죄를 위하여서도 여러 번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으신 분이시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속죄 제물로 드려 단번에 인간의 죄를 사(赦)하셨기 때문이다(9:12,28;10:10;롬6:10).
- (5) 이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실로 우리의 주인이시며 구세주가 되시기에 합당하다. 그분만이 우리의 영적 필요를 채워 주실 수 있다. 그 필요란 다름아닌 죄로부터의 해방이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죄로부터의 해방을 얻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다시금 죄에 얽매어 사는 죄의 종이 되지 말자(롬6:6-23).

14. ㉒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린다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가? (27절)

- ㉒ (1) 본절의 이 같은 말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은 1년에 단 한번 속죄일(贖罪日)에 행해지기 때문이다(참조, 5장 ㉒3).
- (2) 그렇다면 본절이 뜻하는 바는 무엇일까? 이에 대하여선 다음과 같은 추정을 해볼 수 있다. 첫째, 여기서 말하는 ‘날마다’란 ‘해마다’란 뜻이다. 둘째, 인간 대제사장은 매일같이 제사를 드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본절이 의미하는 바이다.
- (3) 이 두 가지 견해 중 그 어느 쪽을 취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그렇지만 예수께서는 날마다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분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두번째 의미가 본절에 좀더 잘 부합된다고 하겠다.

15. ㉒ ‘율법’과 하나님께서 하신 ‘맹세의 말씀’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라(28절).

- ㉒ (1)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맹세의 말씀’(시110:4)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사장으로 세웠다.
- (2) 여기서 사람들이 가진 ‘약점’(헬, 아스데네이아)이란 ‘모든 인간이 타고나는 육체적 한계, 연약성, 폐단’을 의미한다(Baur, Arndt, Gingrich의 신약 헬라어-영어 사전).
- (3) 그리고 예수께서 ‘영원히 온전케 되셨다’는 말은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신 것’(5:8,9)을 의미한다.
- (4) 한편 이러한 점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맹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새 언약’(22절)이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운 ‘영원히 온전케 된 예수’는 이제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5:9)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12:2)인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어떠한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인내하는 신앙 생활을 영위하자.

제 8 장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운 새 언약

단락구분 1-2 우리에게 있는 하늘의 대제사장 / 3-6 언약의 중보를 위해 세움 받은 예수 / 7-10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주신 하나님의 새 언약 / 11-13 다시금 기억되지 아니할 우리의 죄

1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2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3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4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시었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좇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5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좇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6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7 저 첫 언약이 무효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 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8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불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

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9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다도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10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라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11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지니라

12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13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매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1. ㉠ 본장의 중심되는 내용은 무엇인가?

- ㉠ (1) 본장의 중심 내용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옛 언약이 어떻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언약으로 대체(代替)되었는가에 대한 설명이다.
- (2) 이에 대한 첫번째 설명으로서 본서의 저자는 모세의 율법으로 말미암은 모든 제사 제도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1-5절).
- (3) 따라서 그 같은 모형은 궁극적으로 실제적인 것에 의해 대체될 수밖에 없는데 그 실제적인 것이란 다름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라는 것이다(6절).
- (4) 두번째, 이처럼 인간적 제사 제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으로 대체되는 것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이 저자의 설명이다(7-12절).
- (5) 그러므로 우리는 본장에서 옛 언약은 낡아 없어지는 성격의 것이지만 새 언약은 이후로 영원토록 우리에게 적용되는 불변의 언약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 ㉠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어떠한 분이신가? (1, 2절)

- ㉠ (1) 첫째,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시다.

(2) 여기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말은 그가 지존(至尊)한 영광의 자리에 계시다는 뜻이다.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의미한다(참조, 계19:16). 그는 지금도 하나님과 더불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지만 장차 성도들과 함께 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실 것이다(계20:4).

(3) 둘째, 그는 성소와 참장막에서 부리는 자이다.

(4) 여기서 '성소'(헬, 톤. 하기온)와 '참장막'(헬, 테 스케네 테 알레디네)은 같은 말로서 예수께서 중보 사역을 행하고 계시는 하늘 처소를 의미한다(롬8:34). 그리고 '부리는 자'(헬, 호 레이루르그스)는 어떤 형태로든 공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예수께서 '성소와 참장막에서 부리는 자'시라는 말은 그가 하늘나라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 사역을 행하고 계시는 자(참조, 7장 ㉑12)이심을 밝혀 준다.

(5) 이상과 같이 우리에게 계시는 대제사장은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일 뿐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하늘나라에서 간구하시는 분(7:25)이다. 따라서 이제 이러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 대하여선 그 누구도 결코 정죄할 수 없다(롬8:1).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 결국 그분이 우리의 삶에서 승리하시고 영광받으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참조, 요17:21-23).

3. ㉑ 예물과 제사를 드리는 일에 있어 대제사장들과 예수 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3절)

㉑(1) 대제사장들은 '예물'(헬, 도론), 즉 '소제물'(素祭物)과 수소, 수염소, 수양, 비둘기 같은 번제물(燔祭物)로써 하나님께 1년에 한번 속죄 제사를 드렸다(참조, 5장 ㉑3).

(2) 그러면 예수께서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 대속 사역을 이루셨는가? 본장에는 이에 대한 답이 나와 있지 않다. 그렇지만 우리는 9장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예수께서는 오직 흠 없는 자신의 몸과 피를 하나님께 드려 대속 사역을 이루셨다(9:12,14).

(3) 이러한 점에서 대제사장들의 제사 직분은 어디까지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예표하는 모형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제단 앞에서 뿌려진 짐승들의 피(레4:13-21)는 인간의 죄를 속해 주는 예수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9:18-26). 더우기 그 짐승의 피는 1회에 국한된 사죄의 효과를 가져오지만 예수의 피는 영원한 사죄의 효력을 제공한다.

(4) 이와 같이 예수께서는 우리들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희생하셨다. 그러면 이 같은 은혜를 입은 우리는 무엇으로써 보답할 것인가? 사실 무엇으로써 그 은혜를 보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다. 다만 우리는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그를 사랑하며 그의 계명을 좇아 살기를 힘써야 할 것이다(참조, 요14:15).

4. ㉒ 예수께서 땅에 계셨으면 제사장이 아니 되셨을 것이라는 말의 뜻은 무엇인가? (4절)

㉒(1) 예수의 제사장직이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2)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라는 말은 반어적(反語的)인 표현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서 하늘로 승천하셨기 때문에 비로소 제사장이 되셨다는 의미가 된다.

(3) 이 땅에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제사장들이 있었다. 그들은 이 땅의 성소에서 모세의 율법을 좇아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였다.

(4) 그렇지만 예수의 제사장직은 이 땅의 성소에서 수행되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물론 그가 자신의 몸을 바쳐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구속 사역을 이루신 곳은 이 땅이지만 마치 제사장의 장막 밖에서 잡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간 것(레4:45)처럼 예수께서는 이 땅에서 보혈을 흘리신 몸을 가지고 하늘의 성소로 들어가셨다(9:12,24).

(5) 예수께서는 그 후로부터 지금까지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제사장적

중보 사역을 행하시고 계시는 것이다(7:25).

- (6) 한편 이 같은 제사장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1절; 마28:20)은 참된 축복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그분이 이 세상을 이긴 것처럼 우리도 그분 안에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요16:33).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예수의 도우심을 힘입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 나가야 한다(롬12:21).

5. **㉠** 이 땅의 대제사장들이 직분을 수행하던 곳인 성소는 무엇에 지나지 않는가? (5절)

- ㉠** (1) 하늘에 있는 것, 즉 '하늘 성소'의 모형과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2) 따라서 이 말은 지상 성소에서 행해진 각종 제사 제도 자체가 이미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암시해 준다(참조, 7:11).
 (3) 이 땅의 성소(장막)는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보여 주신 식양(式樣)대로 지어진 것이다(출25:40; 39:32). 그렇지만 이 같은 식양을 따라 세워진 성소와 성소의 각종 기구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상징적 의미를 지닌 것들(출25-40장)에 불과하다.
 (4) 그러므로 이러한 모든 것들은 언젠가 실제적인 것에 의해 대체(代替)될 수밖에 없었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대체되었다.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속죄 제물로 바쳤을 때 성소의 휘장(揮帳)이 찢어진 것(마27:51)은 더 이상 이 땅의 성소가 필요 없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예수께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땅의 성소는 하늘의 성소로, 인간 제사장의 사역은 하늘 성소에서의 예수의 중보 사역으로 완전히 대체되었다(참조, **㉠** 4).
 (5) 한편 이러한 변화가 우리들에게 미치는 결과는 엄청난 것이다. 이제는 그 누구도 자신의 죄를 사함 받기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를 자신의 '영원한 구원의 근거'(5:21)로 받아들이는 것뿐이다. 그렇게 할 때에야 비로소 예수께서는 우리를 죄없는 자로 칭하여 주실 것이다(참조, 고후5:21). 우리는 이 같은 새 생명의 도(道)를 내 이웃에게도 증거하며 모든 사람이 함께 구원을 얻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6. **㉠** 예수께서 취하신 제사장 직분은 어떠한 성격의 것인가? (6절)

- ㉠** (1) 지상 성소에서 사역하는 인간 제사장들의 직분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다.
 (2) 여기서 '아름다운'이란 말은 헬라어로 <디아포르테라스>인데 '보다 존귀한', '보다 탁월한'이란 뜻이다. 그렇지만 이 말은 상대적인 탁월성을 의미한다기 보다는 인간 제사장들의 직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예롭고 가치가 있는 절대적인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된 제사장이시기 때문이다(참조, 5장 **㉠** 5,6).
 (3) 한편 이 같은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다.
 (4) 여기서 '더 좋은 언약'이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더불어 세우신 새로운 계약(8절)을 의미한다. 그리고 '더 좋은 약속'이란 이 같은 계약에 담겨져 있는 내용(10-12절)을 의미하는데 그 내용이 우리들에게 절대적으로 유익한 것이므로 '더 좋은 약속'이라고 일컬은 것이다. 그리고 '중보자'란 예수께서 새로운 계약이 반드시 이행되도록 보증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이다. 사실 이 새 계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성취되었다(참조, 요19:30).
 (5) 한편 이상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더불어 맺으신 계약은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자손인 성도들에게 그대로 적용된다(참조, **㉠** 9). 따라서 우리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거저 얻은 셈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같은 생명을

가지고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위하여 살도록 해야 한다(빌1:20,21).

7. **㉠** ‘첫 언약’과 ‘둘째 것’은 각각 무엇을 가리키는가? (7절)

- ㉠** (1) ‘첫 언약’이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계약, 즉 유대인들의 율법과 규례와 제명을 가리킨다(참조, 출19:3-8;24:7;신6:1-3).
- (2) 그리고 ‘둘째 것’이란 ‘새 언약’(8절),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더불어 세우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새로운 계약을 의미한다(참조, 막14:24;요19:30).
- (3) 그런데 이처럼 새로운 언약이 세워졌다는 것은 ‘첫 언약’이 불완전하였다는 것을 뜻한다(참조, 7장 **㉠** 7). 뿐만 아니라 이제 그 같은 ‘첫 언약’이 쓸모없다는 것을 뜻한다.
- (4) 그렇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인정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부활 승천하셨으며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7:25; 롬8:34)는 사실을 믿는 믿음에 의해서이다(롬4:28).
- (5)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받기 위하여 제명을 지킬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께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의 제명을 준행할 필요성은 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13:34)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랑을 좇아 행하며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8. **㉠** 새 언약의 성격을 밝혀 주기 위하여 저자가 8-12절에서 인용하고 있는 성경은 어디에서 따온 것인가?

- ㉠** (1) 렘31:31-34에서 인용한 것이다.
- (2) 이러한 긴 인용문은 이스라엘의 종교 생활 및 일반 생활을 지배해 왔던 옛 언약이 새 언약으로 대체(代替)되어 폐기된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다.
- (3) 또한 이 같은 인용문은 새로운 언약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하여서도 밝혀 주고 있다. 새 언약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를 속함 받게 된다. 그리고 이후로는 영원히 죄 없다 함을 받는다(참조, 행3:19).
- (4) 그러므로 이러한 새 언약을 가리켜 저자가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이라고 칭한 것(6절)은 실로 당연한 것이라 하겠다.

9. **㉠** 하나님께서는 언제, 누구와 더불어 새 언약을 세우겠다고 하셨는가? (8절)

- ㉠** (1) 첫째, 하나님께서는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고 하셨다(참조, 렘31:31). 여기서 ‘날이 이르리니’ 또는 ‘그날 후에’(10절)라는 말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즐겨 쓴 말로서(참조, 렘30:3;31:27,31,38) 곧 앞으로 도래할 메시아 시대를 의미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시는 때란 다름아닌 신약 시대임을 알 수 있다.
- (2) 둘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더불어 새 언약을 세우겠다고 하셨다(참조, 렘31:31).
- (3) 그런데 예레미야 당시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한 국가로서 존속하여 있지 못하고 두 왕국으로 나뉘어져 이미 북이스라엘 왕국은 망하고 남유다만이 남아 있던 때이다(참조, 렘1:2). 따라서 위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에게 언젠가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더불어 회복되어 한 국가를 이룰 것이라는 희망을 안겨 주었을 것이다.
- (4)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간에 구별 없이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자들과 더불어 새 언약을 세우시겠

다는 상징적 의미도 띠고 있다.

- (5) 이러한 사실은 신약 시대에 이르러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의 진리가 남녀 노소, 유대인, 이방인을 불문하고 모든 이에게 주어진 점에 의해 입증된다(참조, 행10:44-48).
- (6)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대속의 죽임을 당하심으로써 온전히 성취되었다(참조, ㉔5,6,7).
- (7)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사역에 대해 '그가 찢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사53:5)고 노래하였다.

10. ㉔9절에서 지적되고 있는 옛 언약과 새 언약 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 ㉔A (1) 옛 언약은 유종(有終)의 미를 거두지 못한 것이지만 새 언약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 (2)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와 같은 처지에 있던 이스라엘 열조(列祖)들의 손을 붙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던 날에 주신 것이다(출19장).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저버리고 그 같은 언약을 준행치 아니하였다. 따라서 자동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맺어졌던 옛 언약은 효력을 상실하고 말았다.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지 못하고 진노의 심판을 선고받았다(렘22:5).
- (3) 그러나 이에 반해 새 언약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본질에 암시되어 있는 의미이다. 옛 언약은 사람들의 불의로 인해 그 효력이 상실되었지만 새 언약은 사람들의 불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효력을 간직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회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것(12절)이 새 언약의 주요 골자이기 때문이다.
- (4) 따라서 이 같은 새 언약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마치 '영혼의 닻 갈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6:19) 우리를 넉넉히 구원의 자리에로까지 인도하여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 (5) 그러니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구원의 확실성에 대하여 결코 의심하지 말자. 그리고 다만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6:11,12) 신앙의 열매를 거두자.

11. ㉔ 새 언약의 특성은 무엇인가? (10절)

- ㉔A (1) 첫째, 새 언약은 내적인 것이며 힘있는 언약이라는 점이다.
- (2) 옛 언약의 폐단은 그 외형성에 있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율법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돌판에 새겨진 것이었다(출32:15,16;34:1-4,28).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면서도 제대로 그것을 준행하지 못했다.
- (3) 그렇지만 새 언약은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같은 언약은 자연적으로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 줄 것이다. 왜냐하면 역사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 우리들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찢러 조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4:12).
- (4) 둘째, 새 언약의 특성은 '저회에게 하나님이' 되실 하나님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 '내 백성이' 될 백성들 사이에 긴밀한 관계가 형성된다는 점이다.
- (5) 물론 하나님께서는 옛 언약을 체결하기에 앞서서도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출6:7)라고 하셨었다. 그러나 옛 언약과 새 언약에 있어서의 이런 말에는 의미상 차이가 있다. 왜냐하면 옛 언약에 있어서의 강조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사실에 있는데 반해(출19:5,6) 새 언약에 있어서는 구원자 하나

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과 함께 하신다는 점에 강조점이 있기 때문이다(참조, 마 1:21-23; 요1:9-12; 3:16).

- (6) 새 언약의 주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과 부활 등 그분의 삶 전체가 성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새 언약의 근거로서 주어진 것이다(참조, 요일4:10). 이제 우리는 새 언약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매일매일을 함께 해야 하며 그분의 뜻을 받드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참조, 갈2:20).

12. ㉠ 새 언약의 또 다른 특성은 무엇인가? (11, 12절)

- ㉠ (1) 첫째, 새 언약에 참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 (2) 그러므로 사람들은 더 이상 이웃, 형제, 가족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지 않아도 된다. 물론 이 말은 기독교의 진리를 먼저 습득한 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에 대하여 증거해 줄 필요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그 같은 전도 사역은 기독교의 근간을 이루는 주요 사역 중의 하나이다(참조, 눅10:1-16; 고전1:21).
- (3) 이 말은 어디까지나 사람들이 증거해 줌으로써 알게 되는 지식은 객관적인 지식일 뿐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이고도 실제적인 지식은 개인이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야 비로소 갖게 된다는 의미이다(참조, 골1:10).
- (4) 둘째, 새 언약 속에서는 영원한 죄 사함이 있다는 것이다. 이 말은 곧 이제는 죄를 위하여 반복해서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말과 동일하다(참조, 7:27).
- (5) 옛 언약하에 있던 사람들은 자신이 범죄할 때마다 제사장에게 가서 속죄 제사를 드려 달라고 요청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이제 새 언약하에 있는 사람들은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 왜냐하면 새 언약의 증보자이신 예수(6절)께서 단 한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해 버리는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이다(7:27; 10:10).
- (6)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이 범죄할 때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다시는 그 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뿐이다(요5:14; 갈4:8,9).

13. ㉠ '첫 언약'은 언제 '새 언약'으로 대체되었는가? (13절)

- ㉠ (1) 본질의 의미는 예레미야가 8-12절 내용을 예언하였던 때를 염두에 두고서 이해되어야 한다(렘13:31-34).
- (2) 그 당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새 언약'에 대하여 언급하셨다는 것은 곧 '첫 언약'이 낡은 것이라는 점을 암시한 것이 된다. 따라서 이 '첫 언약'은 예레미야 당시부터 '새 언약'으로 대체될 날을 바라보면서 낡아 없어질 것으로서 그 명맥을 유지해 왔다고 보아야 한다.
- (3)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첫 언약'은 그 기능을 상실하고 '새 언약'으로 대체될 막바지에 놓이었다(참조, 마5:17). 그리고 예수의 대속 사역은 그 '첫 언약'을 완전히 새 것으로 대체시켜 놓고 말았다(참조, ㉠ 5).
- (4) 이제 모든 불완전하고 의심스러운 것들은 지나가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어진 확실한 구원과 화해와 사랑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더 이상 죄악 세상에서 방황하거나 하나님을 단순히 두려움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담대한 마음으로 매일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할 것이다.

본장의 요절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12절).

제 9 장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

단락구분 1-5 첫 언약에 따라 구비된 장막 / 6-10 불완전한 제사 / 11-14 그리스도의 피 / 15-22 새 언약의 중보자 / 23-28 완전한 제사

1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2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3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4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쓴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싹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5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6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7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일 년 일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8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9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 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10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 둔 것이니라

11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12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13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14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15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6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17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18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19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제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20 이르되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21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22 율법을 좇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음즉 사람이 없느니라

23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써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24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25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26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러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27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28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번째 나타나시리라

1. ㉠ 본장에서 대조되는 두 가지 개념은 무엇인가?

- ㉠ (1) 8장에서 저자는 새 언약을 밝히면서 새 언약은 첫 언약을 낡게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첫 언약과 새 언약의 관계는 모형과 원형 그리고 그림자에 대한 실제의 관계와 같다.
- (2) 따라서 저자는 첫 언약 속에서 제사를 중심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설명한다. 그런데 첫 언약의 제사는 인간의 죄를 영원히 씻지 못한 대신에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몸을 제물로 드려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다.
- (3) 즉 대제사장은 해마다 한 번씩 자신과 백성들을 위해 죄사함을 얻는 제사를 드려야 하였지만 죄가 없으신 예수께서는 자신을 제물로 삼아 인류의 죄를 완전히 대속하는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신 것이다.
- (4) 이와 같이 저자는 본장에서 낡아 없어져 버린 첫 언약의 제사 제도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언약의 제사 직분을 대조시킴으로써 우리들에게 새 언약의 참된 가치를 일깨워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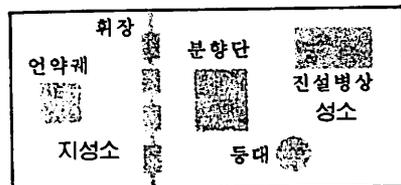
2. ㉠ '세상에 속한'이란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1절)

- ㉠ (1) 첫 언약에도 예배에 관한 규례가 규정되어 있었다(참조, 레1-7장).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창시하신 것인 만큼 비록 새 언약의 것에 미치지지는 못하지만 그 나름대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 (2) 또한 이러한 첫 언약에는 규례 뿐 아니라 '세상에 속한'이라고 표현된 성소도 있었다. 그런데 이것은 나쁜 의미에서 성소가 세상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일하시는 곳인 하늘 성소(11절)에 대비시켜 볼 때 단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는 의미이다.
- (3) 이 '세상에 속한 성소'는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최초로 세워진 것이다. 즉 성막의 형태로 존재했던 성소가 최초의 것으로서 이것은 영구한 것이 되지 못하고 성전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세상에 속한 성소'는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를 만나는 일시적인 장소라는 데 그 의의가 있다.
- (4) 아뉘든 첫 언약으로 말미암은 제사 제도와 세상에 속한 성소는 새 언약으로 말미암은 하늘나라 것의 모형에 불과하였으니 결국에는 낡아 없어지고 새로운 것으로 대체될 뿐이었다(참조, 8장 ㉠ 13).
- (5)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을 만나 그를 예배하는 장소들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요 완전한 것이 못 된다. 그런 의미에서 그곳을 성역화(聖域化)한다든지 어떤 특정한 율법을 적용시켜 신성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이 땅의 사라질 것이 아닌 영원한 하늘 성소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것을 기대하며 이 땅의 일시적 예배 장소에 참여해야 한다.

3. ㉠ '이 세상에 속한 성소(sanctuary)', 즉 '첫 장막(tabernacle)'의 구조에 대하여 설명하라(2, 3절).

각소

- ㉠ (1) 성소는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 곳은 '성소'(the Holy-Place)로서 등대와 상, 진설병이 놓여 있는 곳이고 또 한 곳은 '지성소'(the Holy of Holies)로서 언약궤가 놓여 있는 곳이다.
- (2) 그런데 이 성소와 지성소는 옆의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휘장(揮帳)으로써 구분되어 있을 뿐이다(출26:33). 본절에서 말하고 있는 '둘째 휘장'이란 바로 이 휘장을 의미한다.
- (3) 한편 이 지성소는 특별히 하나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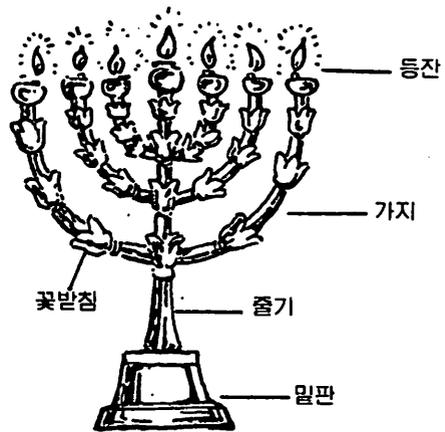
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로서 1년에 한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가 제사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성소는 제사장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곳으로서 그들은 매일같이 그곳을 관리하기 위하여 드나들었다(참조, 출27:21).

- (4) 그렇지만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대속 사역을 완수하셨을 때(요19:30)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던 휘장이 찢어졌다(마27:51). 이 사건은 결국 더 이상 인간적인 제약을 받지 않고 누구나 지성소, 즉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 (5)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의 죄문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만나뵙지 못하는 일들이 없어지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인격에게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아래서도 만나 주시며, 도움의 손길을 내미신다.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깊은 죄 의식으로 고민하며 절망하는 형제들이 많이 있다.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께서 베푸신 은총을 설명하며 하나님께로 그들을 인도하여야 한다. 그리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실 것이다(참조, 눅15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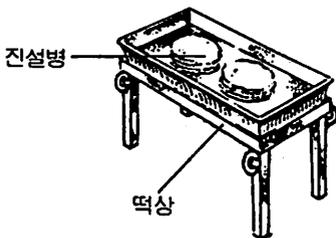
4. **Q** 성소(the Holy Place)에 있는 기구들에 대하여 살펴보라(2절).

A (1) 성소에는 등대와 상 그리고 진설병이 있다. 그러한 것들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등대 : 이것은 정금을 쳐서 만든 것으로 옆의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7개의 등잔, 22개의 꽃받침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등대는 저녁부터 다음 아침까지 성소 안을 밝히기 위해 켜 두는 것으로서(출28:20,21) 곧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참조, 요1:4-9;12:46).



(3) 상 : 진설병을 놓아 두는 떡상이다. 이 상은 조각목(皂角木) 곧 아카시아 수종의 나무로 만들었는데 길이가 90 cm, 넓이가 45cm 그리고 높이가 67.5 cm로 되어 있다. 이것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네 다리가 달린 넓적한



판 모양을 이루고 있다.

(4) 진설병(陳說餅) : 이것은 발효시키지 않은 고운 가루로써 구운 떡인데 하나님께 바치기 위한 것이었다. 이 떡은 항상 12개씩 떡 상 위에 진열되는데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교환되었다(레24:8). 이 같은 떡은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예수께서는 직접 자신을 가리켜 '생명의 떡' 이라고 말씀하셨다(요6: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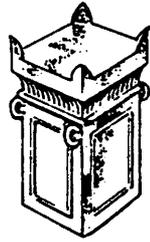
5. **Q** 지성소에 금 향로가 있다는 말에 대하여 살펴보라(4절).

A (1) 지성소에는 실제로 금향로가 없다. 지성소에 있는 것이라곤 언약궤와 금향아리, 지팡이, 십계명 판 그리고 속죄소가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지성소에 금향로가 있다는 본 절의 말은 무슨 뜻인가?

(2) 이 말은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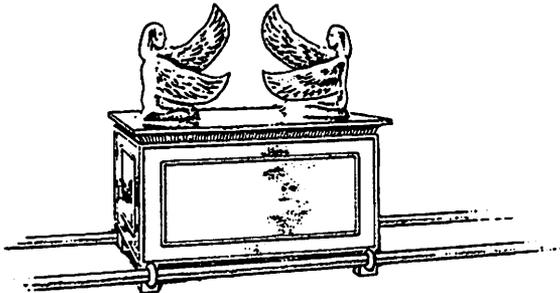
반드시 향을 피운 향로를 가지고 들어갔다. 그리하여 그는 속죄제를 드리기 위하여 앞서 하나님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香煙)으로 속죄소를 가리웠다(레16:12,13). 이 같은 행위는 향의 연기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와 그 위의 속죄소를 가리워 범죄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면하도록 하는 데 그 상징적 의미가 있다(참조, 출20:18,19;사6:1-5).

- (3) 따라서 금향로는 비록 항상 지성소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성소와 관계된, 즉 지성소에 속한 물건으로 볼 수 있다. 바로 이것이 본질이 뜻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사실은 '있다'에 해당하는 헬리어 <에코>가 '...에 속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단어라는 점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 (4) 한편 이 금향로에 담아 지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향불은 성소에 놓여 있는 옆의 그림과 같은 향단에서 취하도록 되어 있다(레16:12).



6. ㉠ 지성소에는 어떠한 것들이 놓여 있는가? (4, 5절)

- ㉠ (1) 언약궤와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아론의 싹 난 지팡이, 언약의 비석 그리고 속죄소가 놓여 있다.
- (2) 언약궤는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바깥을 금으로 싹 길이가 114cm, 넓이 68.4cm, 높이 68.4cm의 상자이다(출16:10,11). 그런데 이것을 이름하여 '언약궤'(言約櫃)라고 한 까닭은 그 안에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언약의 비석(碑石)들', 즉 십계명 판 2개를 담아 두었기 때문이다(출16:21).
- (3) 그런데 솔로몬 시대 이전까지 이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판 외에도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출16:32-34)와 아론의 싹 난 지팡이가 함께 들어 있었다. 그러나 솔로몬 시대에 와서는 언약궤 안에 있는 것이라고는 십계명 판뿐이었다(왕상8:9). 왜냐하면 갈태아인들의 침략으로 그들이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던 성전 기구들을 탈취해 갔기 때문이다.
- (4) 그리고 속죄소(贖罪所)란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언약궤의 뚜껑을 가리킨다. 그런데 이것을 이름하여 속죄소라고 하는 까닭은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이곳에 죄를 속하는 피를 뿌리기 때문이다(레16:14,15). 따라서 죄를 속하는 피는 예수 그리스도도의 보혈(참조, 12-14절)을, 하나님의 임재 장소인 속죄소(참조, 출25:22)는 예수의 보혈을 가납(嘉納)하시는 하나님 자체를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5) 한편 이 같은 속죄소 위에는 그림에서와 같이 그것을 덮고 있는 그룹(cherubim)들이 있다. '그룹'은 하나님의 보좌를 수호하는 천사들인데(참조, 겔10:1-8;계4:6-8) 이들이 날개를 높이 펴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해 비스듬히 숙여 있는 것(출25:20)은 그들이 속죄소를 지키고 있음을 의미한다.

7. ㉠ 제사장들이 들어가 섬기는 곳과 대제사장이 들어가 섬기는 곳은 어디인가? (6, 7절)

- ㉠ (1) 제사장들이 들어가 섬기는 곳은 '첫 장막'이고 대제사장이 들어가 섬기는 곳은 '둘째 장막'이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첫 장막'이란 '처음으로 세워진 장막'이란 뜻인 2절의 '첫 장막'과는 달리 '성소'(the Holy Place)를 가리킨다. 그리고 '둘째 장막'이란 '지성소'(the Holy of Holies)를 가리킨다.
- (2)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 주셨던 식양(式樣)을 따라(출25:40;39:32) 성소(sanctuary)가 완성되고 모든 제사 제도가 갖추어지자 제사장들은 성소에서 봉사하였다. 그들이 하는 일에는 아침마다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며(출30:7) ~~자력으로든 등대에게 물로 밝히는 일~~ (출27:20,21) 그리고 떡상에 진설병을 올리는 일(레24:5-8) 등이 포함되어 있다.
- (3) 그러나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들어가 섬기는데 그것도 피 없이는 들어갈 수 없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도 백성들과 똑같은 죄인이므로 죄를 속함 받기 위한 피 제사를 드려야 했기 때문이다(레16:11-14).
- (4) 이상과 같이 백성들을 위하여 섬길 제사장과 대제사장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은 그들이 백성들을 위하여 드린 제사 행위조차 불완전하였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드러내 준다.
- (5) 그렇지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드린 속죄 제사는 완전하다. 왜냐하면 흠 없고 거룩하며 완전하시어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께서 자신을 대속 제물로 바쳐 이 루신 제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놓고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 예수께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참조, 제4:9).

8. ㉠ 성령께서 첫 언약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보여 주신 것은 무엇인가? (8절)

- ㉠ (1)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다'는 점이다.
- (2) 여기서 '첫 장막'이란 첫 언약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지상 성소(sanctuary)를 가리킨다. 그리고 '성소'란 다름아닌 지성소를 가리킨다.
- (3) 따라서 첫 언약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란 지상 성소가 이 세상에 세워져 있는 동안은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자유롭게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임을 알 수 있다.
- (4) 사실 대제사장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러했다. 그들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때는 속죄일뿐이었다. 그것도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에만 가능하였다.
- (5)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이 같은 제한을 없애 주시려고 새로운 언약을 세우셨다(8:8-13).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언약을 성취하셨다(참조, 8장 ㉠6).

9. ㉠ 첫 언약으로 말미암은 장막(tabernacle)은 단지 무엇에 불과한가? (9, 10절)

- ㉠ (1) '현재까지의 비유'에 불과하다.
- (2) 여기서 '현재까지'란 말은 헬라어로 <에이스 톤 카이론 톤 에네스테코타>인데 '현재의 때를 위한' 또는 '현재의 때를 향한'이란 뜻이다. 즉 첫 언약으로 말미암은 장막은 신약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참장막(8:2)의 모형에 불과하다는 것이 본질의 의미이다.
- (3) 따라서 그러한 장막에 의지하여 드린 예물과 제사 역시 참된 것의 모형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은 당연하다. 어디까지나 그러한 것들은 '먹는 것'(레11장), '마시는 것'(레10:8,9;11:33-38;민6:2,3) 그리고 '여러 가지 정결 예식'(출30:20;레15:4-27;17:15,16;민19:7-13) 등과 관계된 외형적인 예법(육체의 예법)에 불과하다.
- (4) 그러므로 그 같은 예법은 인간의 심층적인 문제, 즉 양심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었다. 그러기에 것처럼 불완전한 것은 처음부터 완전한 것으로 대체될 필요성이 내포된 채 인간에게 주어진 것(참조, 7:11,12;8:7,13)이라고 할 수 있다.

(5) 저자가 이에 대하여 본절에서 '개혁할 때까지 맡겨 둔 것'이라고 지칭한 의미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한편 '개혁할 때'란 율법을 좇은 구약의 모든 행위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 언약으로 바뀌는 때를 뜻한다(참조 롬10:4,9,10).

10. ㉠ 그리스도의 직분 및 그의 사역에 대하여 저자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11, 12절)

- ㉠ (1) 첫째,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취하신 직분이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 (2) 여기서 '장래 좋은 일'이란 예수와 그의 십자가의 도가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는 구원과 영적 축복을 의미한다(참조, 요4:10; 엡2:16-18).
- (3) 둘째,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간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 (4) 그런데 여기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혹자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몸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며(Calvin) 또 혹자는 천국을 가리키는 것으로 본다(Bruce). 그러나 본절의 문맥 관계 및 기타 다른 곳의 언급(24절;10:20)으로 미루어 보아 전자의 견해가 타당한 것 같다.
- (5) 따라서 예수께서 하신 사역은 곧 자신의 몸과 피로써 인류를 위한 대속 사역을 이루신 후 단번에 하늘 성소로 들어가신 것이라고 하겠다(참조, 8장 ㉠ 4).
- (6) 이제 것처럼 하여 하늘 성소에 제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6:20)으로서 중보 사역을 수행하고 제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때로는 피곤하며 때로는 낙심되는 일을 만나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제시는 그리스도(7:25)를 생각하며 새 힘을 얻자.

11. ㉠ 우리를 죽은 행실로부터 깨끗케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13, 14절)

- ㉠ (1)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이다.
- (2) '영원하신 성령'(헬, 프뉴마토스 아이오니우)이란 보통 성부, 성자, 성령 중 제 삼 위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가리킨다. 그러나 본절에서는 성령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영(靈), 즉 그리스도의 전인격을 의미한다.
- (3) 그의 전인격은 완전한 인성(人性) 뿐 아니라 신성(神性)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그에게는 각종 악이나 더러움이 있을 수 없다(7:26).
- (4) 이 같은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이 인간의 죄를 깨끗케 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던 염소와 황소, 암송아지의 재가 인간의 육체를 의식적으로 깨끗케 할 수 있었는데 하물며 절대 순결한 그리스도의 피라?
- (5)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8:12)는 새 언약을 세우셨다. 그런데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으므로(22절)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세우셨다(18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입어 사죄함을 얻고 그 결과 이전의 죽은 행실로부터 떠나 하나님을 섬기는 새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다(참조, 엡4:22,23).
- (6) 그런즉 이미 이 같은 은혜를 누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행여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음'(엡4:26)으로써 다시는 지난날의 죽은 행실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한다.

12. ㉠ '암송아지의 재'로써 부정한 자의 육체를 정결케 한다는 것은 구약 성경 어디에서 유래한 것인가? (13절)

- ㉠ (1) 이는 민19:1-22에 나오는 정결 의례에서 유래하였다.
- (2) 제사장은 백성들이 끌고 온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메지 아니한 붉은 암송

아지를 백향목과 우슬초, 홍색실과 함께 불사른다. 그리고 나서 남은 재를 가지고 부정한 것을 깨끗케 하는 물을 만든다. 이렇게 하여 만들어진 물은 시체를 만졌거나 시체가 있는 장막에 들어감으로 인해 부정하여진 자의 몸을 정결케 하는 의식에 사용되었다.

- (3) 여기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메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는 절대 순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온전하여 흠이 없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순결성을, '아직 멍에를 메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그가 장차 십자가를 지실 것을 상징한다. 그리고 그 암송아지가 '붉은 색'을 띠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4) 그리고 백향목(cedar wood)은 잘 썩지 않는 나무로서, 우슬초(hyssop)는 방부제 구실을 할 수 있는 향기로운 약용 식물로서 둘 다 영원을 상징하는 성격의 것들이다. 또한 홍색실은 붉은 색 암송아지와 마찬가지로 예수의 보혈을 상징한다.
- (5) 따라서 암송아지를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과 함께 태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영원히 정결케 하는 것을 상징한다 하겠다.
- (6) 한편 이상과 같은 사실에서도 우리는 구약의 모든 정결 의식과 제사 제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바라보는 모형에 지나지 않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과 같이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자(요일1:7).

13. ㉠ '이를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시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15절)

- ㉠ (1) 여기서 '이'(헬, 루토)란 14절에 언급된 사실 곧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들을 죽은 행실로부터 깨끗하게 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2) 그리고 이와 같은 사실 때문에 예수께서 새 언약의 중보시라는 것이 본질이 의미하는 바이다. 여기서 '새 언약'이란 앞에서 누차 살펴보아 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더불어 세우신 둘째 언약'(8:7,8)을 뜻한다.
- (3) 사실 예수께서는 인간이 '첫 언약 때 범한 죄', 즉 구약의 율법 아래에서 범한 죄를 속량해 주시려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 그리하여 하나님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롬8:28-30)로 하여금 영원한 기쁨의 약속을 얻도록 하셨다(6:17-20).
- (4) 그런즉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죄와 율법의 굴레로부터의 자유 및 영생의 소중함을 통감(痛感)하자. 그리고 행여 그 같은 자유를 잃어버리고 다시금 죽음의 길로 빠져 들지 않도록 삼가 조심해야 한다.

14. ㉠ 유언한 자가 죽은 후에야 비로소 그 유언이 효력을 발휘케 된다는 사실을 통하여 저 자가 의미하려 하는 바는 무엇인가? (16, 17절)

- ㉠ (1) 예수께서 죽으신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세우신 새 언약이 효력을 발휘케 되었다는 사실이다.
- (2) 물론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들과 세우신 것이다(8:8).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후 거듭 밝히신 사실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러 왔다는 것이었다(요4:34;6:38,39).
- (3)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요6:40), 곧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새 언약의 내용(8:9-12) 그 자체를 의미한다.
- (4)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유언과도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사실 그분께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요11:25,26)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예고하시면서 자신이 죽어야만 모든 사

람들에게 유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요16:7).

- (5)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 언약을 자신의 유언으로 남겨 놓으신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그 유언을 완전한 것으로 만들어 놓으셨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 유언의 효력을 덧입게 되었다. 바로 이것이 '유언한 자가 죽은 후에야 비로소 유언이 효력을 발휘케 된다'는 사실을 통하여 저자가 의미하러 하였던 바인 것이다.
- (6) 그런데 위와 같은 사실을 통하여 우리가 거듭 알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인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바치려는 것이었다는 점이다(마20:28).
- (7)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극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새삼 깨닫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그 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어떻게 보답할 것인가? 말로써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것인가? 정녕 그분을 사랑할진대 우리는 어느 때 어느 곳에서라도 그분께 영광 돌리는 일을 행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고전10:31).

15. ㉠ 첫 언약이 세워진 과정에 대하여 살펴보라(18-21절).

- (A) (1)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우셨던 첫 언약은 모세를 통하여 세워졌는데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였다(출24:3-8).
- (2) 첫째, 모세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율례를 백성들에게 다 말하였다(출24:3). 즉 그는 언약의 항목과 조건들을 백성들에게 공포한 것이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언약을 받아들임으로써 그 내용을 준수할 책임을 지니게 되었다.
- (3) 둘째, 모세는 백성들에게 공포한 언약의 내용들을 책에 기록하였다(출24:4). 이로써 그 언약은 명실 공히 명문화(明文化)된 법전이 된 것이다.
- (4) 셋째,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제단을 쌓고 짐승의 피를 가져다 제단에 뿌렸다(출24:4-6). 그런 후 언약서를 가져다 백성들에게 그 내용을 들려줌으로써 백성들로부터 언약을 준수하겠다는 다짐을 재차 받았다(출24:7). 그리고 나서 백성들에게 피를 뿌리면서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출24:8)고 선언함으로써 언약에 대한 인준(認准) 절차가 끝난다.

16. ㉠ 첫 언약이 세워진 과정에 대한 본저자의 기록과 출24:3-8 기록 간의 차이점에 대하여 살펴보라(18-21절).

- (A) (1) 모세가 염소와 송아지 같은 짐승의 피를 백성들에게 뿌렸다는 점에 있어서 양자간의 기록이 일치한다. 그런데 피와 함께 물, 붉은 양털, 우슬초를 백성들에게 뿌렸다는 기록은 출24:3-8에 나오지 않는다.
- (2) 구약 시대에 있어서 물과 붉은 것 그리고 우슬초는 대개 시체로 인해 부정해진 자(민19:1-22), 문둥병자(레14:4-6) 등을 정결케 하는 의식에 사용되었다.
- (3)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이 첫 언약을 세우는 의식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 왜냐하면 피를 뿌릴 때 물도 함께 곁들여 뿌리는 경우가 성경상에 언급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붉은 양털과 우슬초는 피와 물을 찍어 뿌리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레14:51).
- (4) 한편 짐승의 피와 물을 백성들에게 뿐 아니라 언약서에도 뿌렸다는 본저자의 말은 다음과 같이 이해될 수 있다. 언약서 역시 사람의 손으로 기록한 것이므로 부정을 제거하기 위하여 피 뿌림을 당하였을 것이다. 다만 이에 대한 언급이 출24:3-8에는 나와 있지 않을 뿐이다.
- (5) 마지막으로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다'는 말은 다음과 같이 이해되어야 한다. 장막(tabernacle)과 제사를 드리는 데 필요한 모든 기구 및 그릇이 갖추어진 때는 모세가 백성들에게 첫 언약을 공포한 이후의 일이다. 그러나 그것들이 다 갖추어진 이후에 모세는 장막과 각종 기구에 관유(灌油, the anointing oil)를 발라 성

별하였으니 본저자가 언급하고 있는 바는 바로 이 점일 것이다.

17. ㉠ 율법을 좇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만 정결케 되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라(22절).

- ㉠ (1) 첫째, 산비둘기나 집비둘기와 같은 새조차 준비할 수 없었던 가난한 자들은 곡물로써 제사를 드려 죄 사함을 얻을 수 있었다(레5:11-13).
- (2) 둘째, 유출병(流出病) 있는 자가 나왔을 때에는 물로써 몸을 씻고 옷을 세탁함으로 정결함을 얻을 수 있었다(레15:13). 그리고 유출병 환자와 그가 사용하는 물건에 접촉한 자 역시 물로 몸과 옷을 씻음으로써 부정을 면할 수 있었다(레15:5-12).
- (3) 셋째, 금, 은, 동, 철, 상납(上鐵), 납과 같은 금속물은 불에 넣었다가 꺼내 '정결케 하는 물'(참조, 민31:22, 23)로 씻음으로써 깨끗하게 할 수 있었다.
- (4) 그 외에도 향을 피움으로써 속죄하는 일(민16:46-48) 등이 있었는데 이러한 모든 것은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죄와 부정을 씻을 때에는 언제나 피로써 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피가 없는(회생이 없는) 제사는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고 인간의 죄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은 곧 우리에게 속죄에 대한 확실한 언약인 것이다(참조, 마26:28; 엡1:7).

18. ㉠ 구약의 율법 아래에서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도 없었던 까닭은 무엇일까?(22절)

- ㉠ (1)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말씀과 사실들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까닭을 추정해 볼 수 있다.
- (2)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경우 죽임을 당하리라고 선고하셨다(창2:17). 그런데 그들은 범죄하고 말았으니 이후 모든 인간은 원죄(原罪)와 자범죄(自犯罪)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였다.
- (3) 그런데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죽는다면 그 다른 사람은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4) 한편 레17:11에 의하면 인간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한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위해 피를 흘리고 죽으면 그 피가 다른 사람의 죄를 속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레17:11)는 성경 말씀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 (5) 그러므로 구약의 율법 아래에선 반드시 못 사람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켜 속죄의 피를 흘리도록 규정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 (6) 그런데 그 같은 구약의 율법 아래에선 인간이 죄를 범할 때마다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하지만 신약 시대에 와서 더 이상 그러한 피 흘림이 필요치 않게 되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자신의 보혈을 흘리셨기 때문이다(참조, 14절).
- (7) 한편 이와 같은 대속 사건을 기념토록 예수께서는 친히 우리들에게 성찬 예식을 제정해 주시고 이를 지키도록 명하셨다(눅22:17-20). 그러므로 우리는 그 같은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과 그의 육체적 고통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19. ㉠ 지상 성소 및 그릇들은 피로써 정결케 되나 하늘 성소는 '더 좋은 제물'로써 정결케 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23절)

- ㉠ (1) 여기서 우리들에게 혼란을 가져다 주는 것은 하늘 성소도 짐승들의 피보다 더 좋은 제물로써 정결케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이다.
- (2) 물론 이 지상의 성소 및 그에 딸린 각종 기구와 그릇들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오염 되었으므로 정결 예법을 좇아 깨끗케 할 필요가 있었다(참조, ㉠16). 그러나 어떻게

해서 죄로 오염되지 않은 하늘 성소조차 '더 좋은 제물'로써 정결케 될 필요성이 있게 되었을까?

- (3) 따라서 우리는 저자가 뜻하려 하는 본질의 의미는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본질에서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이란 하늘 성소 자체를 뜻하지 아니하고 장차 하늘 성소에 들어가게 될 성도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짐승의 피보다 '더 좋은 제물'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한다.
- (4) 그러므로 본질의 의미는 '장차 하늘 성소에 가게 될 성도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Delitzsch).
- (5) 우리의 구원의 재료는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다. 우리가 그분의 피 흘림을 믿고 그분의 사랑을 확신할 때 우리의 죄는 우리로부터 영원히 제하여질 것이다. 그렇게 될 때 하늘의 영광스러운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주어진다.

20. ㉠ 그리스도께서 지상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참 하늘에 들어가신 까닭 및 목적은 무엇인가? (24절)

- ㉠ (1)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기 위함이다. 여기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중보 사역을 행하시다는 뜻이다.
- (2) 지상 성소에서 드리는 제사장들의 예물과 제사는 인간의 양심을 온전케 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다(9,10절).
- (3)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단번에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12,14절). 그리하여 이제 예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롬8:34).
- (4) 이제 우리들은 그분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쳐 쓰러질 때 그분께선 우리들에게 새 힘 주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며(참조, 눅 22:43),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르렀을 때 그분께선 우리를 자신이 피로써 산 자녀로 하나님께 고해 주시기 때문이다(눅12:8).
- (5) 이상에서와 같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넘어지지 아니하며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까닭은 어디까지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 때문이다(벧전4:11).

21. ㉠ 저자가 25, 26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점은 무엇인가?

- ㉠ (1) 그리스도께서 단 한번 드리신 속죄 제사의 완전성이다. 즉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대속 제물로 바쳐 단번에 드리신 제사가 인간의 죄를 완전히 속하였다는 점이다(14절; 7:27).
- (2) 만일 그렇지 못하였다면 대제사장이 해마다 짐승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 속죄 제사를 드린 것(레16장)처럼 예수께서도 창세(創世) 이후로 자주 '고난', 즉 '죽임'을 당하셔야 했을 것이다.
- (3) 왜냐하면 인간의 역사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창3:6) 이래 가인의 살인(창4:8), 소돔 거민의 음란(창19:1-11) 등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각종 죄악으로 얼룩져 왔기 때문이다.
- (4)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신의 보혈로써 단 한번 속죄 제사를 드려 인간의 모든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초림(初臨)하셨다. 여기서 '세상 끝'이란 말은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저자가 예수 탄생의 때를 세상 종말이 가까운 때와 역사의 절정기(絶頂期)로 보고 있음을 나타내 준다.
- (5) 그리고 오신바 그 목적을 달성하셨다. 바로 여기에 인간 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들의 속죄 제사와 그리스도의 대속 제사 간의 본질적인 차이점이 있다.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결과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실로 엄청나다(14,15절).

22. **㉠** 그리스도께서 초립하신 목적과 재림하시는 목적 간의 차이점을 살펴보라(27, 28절).
- ㉡** (1) 그리스도께서 초립하신 목적은 인간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재림하시는 목적은 죄와 상관없이 자신을 바라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다.
- (2) 물론 그리스도께서 초립하신 이후 누구든지 그와 그분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것은 사실이다(요1:10-12; 3:16; 12:48). 그러나 이러한 구원은 실제적인 구원이라기 보다는 구원에 대한 절대적인 약속과 보증이라고 하겠다(참조, 6:17-20). 그리고 그 같은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비로소 온전히 주어진다(마25:31-46).
- (3) 하지만 이와는 달리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의 재림 날이 심판의 날과 형벌에 처하는 날이 될 것이다(마25:31-46; 계20:11-15).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곧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저버리고 도리어 악으로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사람들간에도 은혜를 도리어 악으로 갚는 자에 대하여선 분노할 터인데 하물며 하나님이사라!
- (4)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미련하게 저버리지도 말고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까지 그 구원을 소유한 양 교만치도 말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꾀대를 향하여 쫓아가자'(빌3:13,14).

연구자료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 기독교는 인간 구원의 종교이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어디까지나 개인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지 사회 개혁이라는 측면에서 오늘날의 진보주의 신학자들이 주창하는 것과 같은 사회 구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복음의 진리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救主)로 시인함으로써 구원을 얻는 것은 순전히 인간 개인에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사회 구원이라는 측면에서는 그 어떠한 활동도 할 수 없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도 사회의 일원으로서 이 땅에서의 삶을 영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구하고 있기 때문이다(마6:10).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같은 하나님 나라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자신의 섭리와 역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긴 하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사역에 당신의 자녀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자신의 일군으로 삼으시고 계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첫째,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28:19, 20)는 하나님의 명령을 성실히 준행하자. 둘째, 진리가 왜곡되는 암담한 사회에선 공의를 부르짖음으로써(암5:14, 15)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자(마5:13-16). 바로 이러한 우리들의 활동이 곧 개인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사회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길이 될 것이다.

제 10 장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인내 (忍耐)

단락구분 1-2 장래 일의 그림자인 율법 / 3-4 율법을 좇아 드린 제사의 역할 / 5-9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리스도의 몸 / 10-14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 / 15-18 하나님의 새 언약 / 19-25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 26-31 사람 받을 수 없는 죄 / 32-34 우리에게 있는 더 낮고 영구한 산업 / 35-39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인내

1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2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3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4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지 못함이라

5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6 전제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7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며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8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제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9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10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11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12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13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14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15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16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17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18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19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21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22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23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적이지 말고 굳게 잡아

24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5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26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27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28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29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30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

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31 살아 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32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33 혹 비방과 환난으로써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34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낮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이라

35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

이 큰 상을 얻느니라

36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37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38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39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1. ㉠ 전장과 본장의 내용을 간략히 대비하라.

- ㉠ (1) 전장의 주된 내용은 예수께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던 그의 피가 어떠한 효능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하여 밝히는 것이었다.
- (2) 그러나 본장은 예수께서 드리신 속죄 제사가 단회적인 것일 뿐 아니라 인간의 죄를 말끔히 씻어 준 완전한 것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 (3) 이를 위해 저자는 율법을 좇아 드렸던 옛 제사의 불완전성을 지적하고 있으며(1-4절) 그 다음으로 예수께서 드리신 속죄 제사의 성격을 밝혀 주고 있다(5-18절).
- (4) 이에 덧붙여 예수의 속죄 제사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성도들이 짐짓 죄를 범할 때 어떠한 결과가 따를 것인지에 대하여 경고하면서(26-31절)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신앙의 인내를 하여야 한다고 교훈하고 있다(32-39절).

2. ㉠ 본장 초두에서 강조하고 있는 점은 무엇인가? (1, 2절)

- ㉠ (1) 첫째,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 참형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 (2) 둘째, 율법을 좇아 해마다 드리는 속죄 제사로는 인간의 양심을 온전케 할 수 없다는 점이다.
- (3) 이상과 같은 사실은 우리가 이미 7:11;8:5;9:11,24 등에서 누차 살펴봐 온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가 본장에서 다시금 언급하고 있는 까닭은 예수의 속죄 제사으로써 우리가 온전케 되었다는 점을 거듭 주지시키기 위해서였다(10절).
- (4) 한편 '장차 오는 좋은 일'에 관하여는 9장 ㉠10을 참조하라.

3. ㉠ 짐승의 피가 죄를 사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좇아 드린 제사가 인간들에게 끼친 유익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3, 4절)

- ㉠ (1)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깨달으며 기억하게 해주었다는 것이다.
- (2) 이처럼 사람들이 자신의 죄에 대하여 기억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자신의 죄를 제거하기 위하여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해마다 드리는 속죄 제사로는 결코 죄가 제거될 수 없었다.
- (3) 사람들이 이 같은 딜레마(dilemma)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8:8)고 약속하셨다. 그 새 언약이란 다름아닌 '내가 너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너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8:12)는 것이다.
- (4)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속죄 제물이자 영원한 대제사장이자(7-18절;7:28;사53장). 그러므로 사람들은 해마다 드리는 제사로 인하여 자신의 죄를 기억할 때마다 새 언약의 실행자(메시아)가 속히 오셔서 자신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고대하였을 것이다.

(5) 한편 이런 점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갈3:24에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蒙學先生)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였다’고 갈파(喝破)한 것에 대하여 쉽게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4. ㉠ 저자는 본문 가운데 인용한 성경 귀절은 어디에서 따온 것이며 그 같은 귀절로써 밝히고 있는 점은 무엇인가? (5-10절)

㉠ (1) 시40:6-8에서 인용한 것이며 그것으로써 밝히고 있는 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成肉身)하시게 된 이유이다(8-10절).

(2) 여기에 인용된 귀절은 원래 다윗의 시로써 하나님께 대한 그의 헌신을 맹세하고 있는 신앙 고백이다. 그렇지만 본서의 저자는 이 같은 다윗의 시를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예시하는 암시적 의미도 담고 있는 성경 말씀으로 이해하여 이것을 그리스도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3) 아뭏든 저자는 이와 같이 구약 성경을 적절하게 인용해 가면서 자신의 논지를 매우 설득력 있게 펴 나가고 있는데 이 같은 점은 본서 전반에 걸쳐 고루 나타난다(16-18절; 1장; 2:6-8, 12, 13; 5:5, 6; 8:8-12; 11장). 신구약 성경은 분명히 상호 긴밀한 연관이 있으며 이 같은 사실을 이해할 때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이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게 된다면 또 다른 진리의 광맥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5. ㉠ ‘세상에 임하실 때’란 어느 때를 가리키는가? (5절)

㉠ (1)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때를 예수께서 성육신하신 때, 즉 처음으로 이 세상에 강림하신 때로 보고 있다(Riggenbach, Schlatter). 그러나 일부 신학자들은 이때를 예수께서 처음으로 공생애(公生涯)를 시작하신 때(눅3:23)로 보고 있기도 하다.

(2) 물론 이 같은 두 견해 중 그 어느 쪽을 취하여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는 7,9절의 말과 의미상 호응 관계가 상치되지는 않는다.

(3) 그런데 후자의 견해는 전자에 비해 다소 그 의미가 제한적이다. 예수께서 성육신하신 자체가 이미 인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시기 시작한, 즉 공적 사역을 시작하신 행위로 볼 수 있지 않는가?

(4) 그러므로 위의 양 견해를 놓고서 굳이 택일(擇一)하여야 할 것 같으면 전자를 택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5) 한편 이상과 같은 사실에서도 우리는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데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오신 예수는 자신의 피를 흘려 새 생명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19,20절). 그러니 우리는 이처럼 은혜로운 피의 능력을 감사히 여길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들에게 그 피의 능력을 소개하여 그들에게 우리와 동일한 기쁨을 누리도록 하자(딤후4:2).

6. ㉠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라는 귀절과 관계된 사본상의 문제에 대하여 살펴 보라(5절).

㉠ (1)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본절의 전거(典據) 자료인 히브리어 원문(시40:7)과 이를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70인역(LXX)의 문장 간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2) 본절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오즈나임 카리타 리>는 ‘주께서 나를 위하여 귀를 뚫어 주셨나이다’ 또는 ‘주께서 내 귀에 구멍을 뚫으셨나이다’라는 의미이다. 그런데 이를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문장 <소마 카테르티소 모이>는 한글 개역 성경에서와 같이 ‘주께서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나이다’라는 의미이다.

(3) 그러면 히브리어 원문이 이 같은 헬라어 문장으로 번역된 까닭은 무엇일까?

(4) 우선 70인역의 ‘주께서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인간의 몸과 인성(人性)을 입으시게끔 하셨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히브리 원문의 '주께서 내 귀에 구멍을 뚫으셨다'는 말은 종이 스스로 자유할 기회를 포기하고 주인에게 종신토록 종 노릇하기 원할 때 주인에게 가서 송곳으로 자신의 귀를 뚫어 주도록 간청하였던 히브리인들의 관습(출21:5,6;신15:16,17)에 근거한 말이다. 따라서 이 말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종이 되셨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참조, 빌2:7).

(5) 그런데 본질의 정확한 의미를 예수께서 인간의 몸과 인성(人性)을 입으신 것으로 이해하든 하나님의 종이 되신 것으로 이해하든 그것이 별다른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성육(成肉)하시는 것도 종이 되시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7,9절).

(6) 따라서 우리는 본질과 관계된 사본상의 문제를 70인역의 저자가 히브리 원문을 옮기면서 이를 본질에서와 같이 의역(意譯)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7. ㉠ 하나님께서 제사와 예물, 번제와 속죄제를 원치도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5, 6절)

㉠ (1) 이 말은 결코 율법을 좇아 드린 제사가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것이라거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라는 뜻이 아니다.

(2) 어디까지나 이 말은 진정으로 참회하는 마음이 없이 단순히 형식적으로 드리는 각종 제사를 하나님께서 원치도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는 의미이다.

(3) 따라서 만일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 하듯이 제사를 드렸다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같은 제사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으로서 새 언약으로 대체되기 전까지는 불완전한 것이기는 하나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한 방향으로 존속시킬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다(3절:9:10).

(4) 한편 이와 같이 진정한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은 비단 제사 행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일상 생활 가운데서 그분의 뜻을 좇아 이웃을 사랑하며 경건된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는 않은 채 하나님께 형식적인 예배나 헌금만을 드린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삼상15:22,23)

(5)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박하와 회향(茴香)과 근채(芹菜)의 심일조를 드리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하나님과 사람에게 대해서 의(義)와 인(仁)과 신(信)을 지키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마23:24).

8. ㉡ 제사, 예물, 번제와 속죄제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라 (5, 6절).

㉡ (1) 여기서 말하는 '제사'(헬, 뒤시아)란 구약에 나오는 각종 제사를 통틀어 일컫고 있는 총체적인 표현이다. 구약에 언급되어 있는 제사들로는 번제, 소제(素祭),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贖愆祭)가 있다(레1-5장).

(2) 그리고 '예물'(헬, 프로스포라)이란 잡아서 피를 흘려 하나님께 바치는 희생 제물 뿐 아니라 곡식과 같이 피 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레2:4-7,14,15;5:11-13)도 포함한 말이다.

(3) 한편 '번제'(헬, 홀로카우토마)에 대해서는 5장 ㉢ 3을 참조하라.

(4) 마지막으로 '속죄제'는 '속건제'와 함께 '번제'에 해당하는 제사이다. 그러나 '속건제'(trespass offering)가 주로 인간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드리는 제사임에 반해 '속죄제'(sin offering)는 하나님의 뜻을 어겼을 경우에 드리는 제사라는 차이점이 있다.

9. ㉢ 두루마리 책이란 무엇을 가리키는가? (7절)

㉢ (1) 좁은 의미에서는 모세의 율법서(모세 오경)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율법서는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순종을 가르치고 있는 책이기 때문이다.

- (2) 이 같은 순종의 도(道)를 몸소 그리고 완전하게 행하셨을 뿐 아니라 그로써 우리들에게 본을 보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은 공생애 기간 중 누차 자신이 세상에 온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요4:34;6:38,39). 그리고 그 뜻을 이행하려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빌2:8).
- (3) 따라서 본절에 언급된 두루마리 책은 좁은 의미에서 보았을 때 모세의 율법서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4) 그런데 이를 좀더 확대시켜서 볼 것 같으면 두루마리 책(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장차 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에 관한 예언 서이기 때문이다.
- (5)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 때가 되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메시아를 보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민24:17;시2:7-12;사9:6,7). 예수께서는 이 같은 약속에 의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으셨다(요8:42). 그리고 오셔서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셨다(참조, 요2:17).
- (6) 그러므로 우리는, 본절에서 말하는 두루마리 책은 넓은 의미로 볼 때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0. ㉠ 8-10절은 5-7절에 대한 저자의 해석 부분이다. 여기서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점은 무엇인가?

- ㉠ (1) 하나님의 뜻은 그가 싫어하시는 바 ‘첫 것’, 즉 각종 제사 제도(율법)를 폐지하고 ‘둘째 것’, 즉 새 언약을 세우시려는 것이다(참조, 8:7,8).
- (2) 예수께서는 이 같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으며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새 언약을 온전히 세우셨다(7:27,28;9:11,12,15).
- (3) 그리하여 그 결과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얻고 거룩함을 입게 되었다(9:14). 바로 이상과 같은 점이 저자가 본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의 요지(要旨)이다.
- (4) 한편 이 같은 사실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언약과 구약의 제사 제도가 상호 병존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새 언약이 세워진 이후 구약의 제사 제도는 완전히 폐기되어 버렸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 자신의 범죄로 인해 다시금 속죄 제사를 드리지는 않는다.
- (5) 이러한 점은 간접적이거나 우리들의 삶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준다. 우리들도 지난날에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무자비한 자’(롬1:30,31)였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죄를 사함 받고 정결케 된 자들이다. 그런데도 우리가 여전히 이전의 행실에 사로잡혀 있어 되겠는가? 결코 그럴 수는 없다.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한 존재로서의 위치를 계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이다(참조, 살전4:3).

11. ㉠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신 예수께서는 이제 어디에서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가? (12-14절)

- ㉠ (1) 하나님 우편에서 앉아 계시며 또한 장차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
- (2) 여기서 ‘하나님 우편’이 어떠한 자리인가에 대하여서는 8장 ㉠ 2를 참조하라. 한편 예수께서 앉아 계시다는 말은 그의 대속 사역을 완전히 마치신 후 쉬고 계시다는 의미이다.
- (3) 그렇지만 그가 쉬고 계시다 해서 아무런 일도 하시지 않고 계시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 안식하시면서도(창2:2,3) 해와 달, 별들의 운행을 주

관하신 것처럼 그분께서는 인류를 위한 구속 사역을 완수하신 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도 우리를 위한 중보 사역을 끊임없이 수행하고 계신다(7:25).

(4) 그리고 그가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를 기다리신다는 말은 시110:1을 인용한 것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을 진멸할 날인 자신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의미이다(참조, 1장 ④ 12). 한편 '발등상'(헬, 휘포포디온)이란 다름아닌 발을 올려 놓고서 피로를 풀 수 있는 발 받침대(footstool)를 가리킨다.

- ◎ 가리킨다.
- (5) 이처럼 구속 사역을 완수하신 그리스도께 있어서 이제 남은 일이라곤 자기를 대적하는 자는 영벌에, 자기를 믿고 의지하는 자는 영생에 처하도록 하시기 위해 심판주로서 강림하시는 것뿐이다(마25:31-46).
- (6) 그런데 이러한 때인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조심하여야 할 점이 있다. 그것은 곧 마귀의 유혹에 이끌려 신앙 생활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할 수만 있으면 성도들이라도 미혹하려 하기 때문이다(막13:22; 뱀전5:8). 우리는 마치 파수군이 경성하여 아침을 기다리듯이 항상 깨어 있어 예수 재림의 날까지 우리의 신앙을 굳게 지키도록 하자(시130:5:6).

12. ④ 저자가 8장에서 이미 인용한 적이 있는 뱀31:33, 34을 재인용해 가면서까지 본단원에서 강조하고 있는 점은 무엇인가? (15-18절)

- Ⓐ (1)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자신의 몸으로 대속 제사를 드려 새 언약을 세우셨은즉 다시금 우리가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 (2)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말은 곧 성령이 그와 같은 사실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사실 모든 성경은 성령께서 성경 기자들을 감동시키시어 기록케 한 것으로 곧 성령의 저작물이다(참조, 딤후3:16). 그러므로 성령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라 하여도 틀린 말이 될 수 없다.
- (3) 이러한 성령께서는 또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靈眼)을 열어 주신다(고전2:6-10).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신 것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들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도 깨닫고 믿을 수 있는 것이다.
- (4) 아름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으니 이제 다시금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짐짓 죄를 범할까? 결코 그럴 수는 없다. 그 같은 행위는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악으로 갚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시지 않으신다(26-29절).
- (5)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죄를 짓지 않고 살 수는 없지만 모르고 짓는 죄 외에 그것이 죄란 사실을 알면서도 세상 욕심에 이끌려 짐짓 죄를 범하는 잘못을 행하지는 말아야 한다. 사실 우리는 항상 범죄할 가능성을 가진 연약한 존재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마6:13).

13. ④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써 우리를 위해 열어 주신 길은 어떠한 길인가? (19, 20절)

- Ⓐ (1)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 즉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sanctuary)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다.
- (2) 여기서 '휘장'은 비유적인 의미로서 예수 자신의 몸을 가리키는데 대제사장이 성막 가운데 쳐져 있는 휘장(참조, 9장 ④ 3)을 찢히고서야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지성소(출25:22; 30:6)로 나아갈 수 있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십자가 위에서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 사실을 시사해 주고 있다.

- (3) 이 같은 사실은 사람들에게 의해 현상적(現象的) 사건으로도 목격되었다. 즉 공판 복음서 기자들은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운명하실 때 예루살렘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었다고 증거하고 있다(마27:51; 막15:38; 눅23:45).
- (4) 이처럼 예수는 자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다. 여기서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로 나아가다' 또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사귀를 갖는다는 의미이다(요일1:3).
- (5) 한편 이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과 사귀 때 감히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을까? (롬8:1)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이 있다 하고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정죄하실 것이다(참조, 요일1:6-10). 그런즉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열어 주신 살길을 선용치 못하고 여전히 자신의 악 가운데 행하다가 죽는 미련한 자가 되지 않도록 하자.

14. **㉠**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신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21절)

- ㉠** (1) 우리는 이미 3:6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집 말은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 같은 예수께서 '큰 제사장', 즉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은 2장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꾸준히 살펴봐 오고 있는 점이다(2:17; 3:1,4; 14,15; 5:6,10; 6:20; 7:20-26; 8:1,9; 11). 따라서 이 두 직분을 병합시킨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임을 알 수 있다.
- (2)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집'이란 다름아닌 교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성도들의 무리를 의미한다(참조, 3장 **㉠** 5).
- (3) 그러므로 본질의 의미는 성도들을 다스리시며 돌보시고, 위하여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드리고 계시는(7:25)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마28:20) 그리고 이후에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참조, 계21:3).
- (4) 한편 이상과 같은 사실은 비록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셨지만 그 자신의 신분이 근본적으로 비천한 것이 아님을 일깨워 준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못 사람들에겐 자랑하자. 그리하여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자'(빌1:20).

15. **㉠**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은 우리들에게 저자가 권면하고 있는 세 가지 내용은 무엇인가? (22-25절)

- ㉠** (1) 첫째,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것이다.
- (2) 여기서 '마음'은 사람의 내면적인 삶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적으로 참되어야 한다는 것은 중요하다(참조, 대상29:17). 그리고 '온전한 믿음'이란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것을 뜻하는데 그분의 대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은 우리가 그분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엡1:7).
- (3) 둘째,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자는 것이다.
- (4) 여기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이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행16:31)는 사실과 영광스런 성도의 부활(고전15:42-58), 새 하늘과 새 땅(계21장) 등과 같은 약속된 기독교 신앙이 성취되기를 기대하는 우리의 기대감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같은 우리의 기대감은 반드시 충족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變改)함이 없으시기 때문이다(삼상15:29).
- (5) 셋째,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날', 즉 그리스도 재림의 날(참조,

고전3:13;살후1:10)이 가까울수록 서로 모이기를 힘쓰자는 것이다.

- (6) 사랑은 기독교의 핵심이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 주신 것도 이 세상을 사랑하신 까닭이며(요3:16)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주신 것도 우리를 사랑하신 까닭이다. 그런즉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선을 베풀도록 힘쓰는 것은 은혜를 입은 자가 마땅히 할 바이다(참조, 요13:34).
- (7) 그리고 성도들이 예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까닭은 날로 격해지는 사단의 활동 때문이다(참조, 벰전5:8). 그러한 때 성도가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떠나 개인적 신앙 생활을 영위하는 것은 위험하다. 왜냐하면 난로 밖에 내놓은 장작 불이 쉽게 꺼지듯이 개인적 신앙 생활을 하는 자는 쉽사리 신앙적 열정이 식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기도 쉽기 때문이다.
- (8) 그러므로 우리는 이상과 같은 저자의 세 가지 권면 내용을 성실히 준행함으로써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며 승리하는 신앙 생활을 하자(롬12:21).

16. ㉠ '마음에 뿌림을 받는 것'과 '몸을 맑은 물로 씻는 것'은 각각 무엇을 뜻하는가? (22절)

- ㉠ (1) 저자가 본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마음에 뿌림을 받는 것'이란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에 효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 우리는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며 또한 죽은 행실로부터 깨끗함을 얻게 된다(9:14).
- (2) 그리고 '몸을 맑은 물로 씻는 것'이란 우리의 양심이 깨끗케 된 것을 상징하는 외형적 표식(標識)으로서 받는 세례를 의미한다.
- (3) 아뭏든 이처럼 영육간에 씻음을 받은 성도들이 다시금 죄 아래 사로잡혀 지낸다는 것은 마치 물로 씻기움을 받은 돼지가 더러운 우리 안에 널려 있는 오물 위에 다시금 덩구는 것과 같은 행위라 하겠다.
- (4) 그런즉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의 공로가 무익한 것이 되지 않게끔 항상 자신을 돌아보아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딤후3:9) 되기를 힘쓰자.

17. ㉠ 성도들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하면 어떠한 결과가 따르게 되는가? (26-29절)

- ㉠ (1) 그를 위해 다시 속죄할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게 될 것이다.
- (2) 여기서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다'는 말은 가르침을 받아 진리를 깨달았다는 말로서 골 6:4에 나오는 '한번 비침을 얻었다'는 말과 같은 뜻이다(참조, 6장 ㉠ 6). 그리고 '짐짓 죄를 범하다'는 말은 계속해서 자의적(自意的)으로 죄악을 행한다는 뜻이다.
- (3) 이처럼 기독교의 심오한 진리를 깨닫고도 계속해서 고의적인 죄를 범하는 자는 다시금 죄사함 받을 수 없고 다만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될 뿐이다.
- (4) 왜냐하면 그 같은 자의 행위는 첫째, 하나님의 아들을 밟는 것이며 둘째, 자기를 거룩하게 한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며 셋째,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5) 구약 시대에 있어서도 모세의 율법을 어긴 자를 하나님을 배척한 자로 여겨 사형에 처하였는데(참조, 신17:2-7)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배척하며 성령을 모독한 자가 당할 결국이랴? (6:4-6; 마12:31,32)
- (6) 그러므로 우리는 행여 농담으로라도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성령을 거역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또한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구원의 도리(道理)를 굳게 잡아 좌로나 우로 치우침이 없는 신앙 생활을 힘써야 할 것이다(빌2:12).

18. ㉠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29절)

- Ⓐ (1) 첫째, '하나님의 아들을 밟다'는 말에 있어서의 '밟다'는 헬라어로 <카타파테오>인데 '짓밟다'는 의미 외에도 '깎보다', '오만하다', '쫓아내다' 등의 뜻을 지니고 있는 단어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을 밟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배척하며 모독한다(참조, 마27:29,30,39-44)는 의미임을 알 수 있다.
- (2) 둘째,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다'는 말에 있어서 '언약의 피'란 짐승의 피로써 옛 언약을 세웠듯이(9:18-22) 새 언약을 세움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세운 것(9:11-15)을 의미한다. 그리고 '부정한 것'에 해당되는 헬라어<토 코이논>은 '속된 것', '불결한 것'이란 뜻 외에도 '일반적인 것', '하찮은 것'이란 뜻을 지니고 있는 단어이다.
- (3) 따라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다'는 말은 '인간의 죄를 다시금 기억치 않으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새 언약을 성취시킨 그리스도의 보혈을 하찮은 것으로 여긴다는 의미임을 알 수 있다. 즉 이 말은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여느 인간이 겪는 일반적 죽음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의미이다.
- (4) 셋째,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다'는 말에 있어서 '은혜의 성령'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구원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실 뿐 아니라(고전2:10)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분 또한 성령이심(롬8:14)을 의미한다. 그리고 '욕되게 하다'(헬, 에뉘브리조)는 말은 '모욕하다', '멸시하다'라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다'는 말은 성령을 모독한다는 의미일 뿐 아니라 성령의 사역을 훼방한다(마12:32;막3:29;눅12:10)는 의미임을 알 수 있다.

19. ㉠ 30절은 구약 성경 어느 부분을 인용한 말인가?

- Ⓐ (1)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는 말은 신32:35을 인용한 것이다. 그리고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는 말은 신32:36을 인용한 것이다.
- (2) 그런데 저자가 본절에서 이 같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 까닭은 비록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그가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公義)의 원칙에 따라 그를 처벌하신다(욥34:10-12)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 (3)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볍게 여겨 한번쯤이야 하는 마음으로 죄를 짓는 어리석음을 범치 말아야 할 것이다. 그 같은 행위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니 반드시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렘17:10).

20. ㉠ 32-34절에서 저자가 본서신의 수신자들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는 점은 무엇인가?

- Ⓐ (1) 그들이 '빛'을 받은 이후로 '고난의 큰 싸움'에 참았던 점이다. 여기서 '빛'이란 복음을 가리키며 '빛을 받았다'는 것은 복음에 관한 가르침을 받아 그 뜻을 알게 되었다는 의미이다(참조, 6장 ㉠ 6).
- (2) 그리고 '고난'은 그리스도인이라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당하는 각종 비방과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과 감핍,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등의 일(고후 6:3-5)을 가리킨다. 또한 '큰 싸움'이란 영적(靈的)인 경기(athletics)를 가리킨다. 따라서 '고난의 큰 싸움에 참았다'는 말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당하는 각종 고난을 인내로써 참아 내었다는 의미이다.
- (3) 저자가 증거하는 바에 의하면 본서신의 수신자들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 실제로 비방과 환난을 당하거나 자신의 재산을 빼앗겨도 기쁘게 인내하였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수치를 무릅쓰고 비방과 환난당하는 자들의 친구가 되었으며 감옥에 갇힌 자들을 동정하여 도움을 주었음도 알 수 있다.
- (4) 그렇다면 이들이 이와 같이 인내하며 행동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

들에게 이 세상의 것과는 족히 비교할 수 없는 ‘더 낫고 영구한 산업’, 즉 구원과 하늘나라에서의 상급(고전3:8,14)이 약속되어 있었기 때문이다(참조, 계2:10).

- (5) 이처럼 저자는 본서신의 수신자들에게 그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인내하여 왔던 점을 상기시켜 주면서 이후로도 담대히 인내함으로써 하늘나라에서의 상급을 차지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 (6) 그런데 내세의 상급은 그들에게 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약속되어 있는 것이다(딤후4:8; 약1:12). 그리고 우리 역시 지금까지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당하는 각종 불이익과 어려움을 참아 온 자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계속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을 지킴으로 의의 면류관을 쟁취하도록 하자(딤후4:7, 8).

21. **㉠** 인내를 촉구하기 위해 저자가 인용하고 있는 성경 구절은 무엇인가? (36-39절)

- ㉠** (1) 합2:3,4이다.
- (2) 저자는 우선 합2:3을 인용하여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날이 멀지 않다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신앙의 인내를 경주하고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다. 그렇다. 초림하신 후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속히 재림하실 것이다. 이 점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약속하신 바이다(계3:11).
- (3) 그러므로 우리들은 해산하는 여인이 마지막 고통을 이겨냄으로써 자녀를 얻듯이 조금만 더 하나님을 신앙하며 인내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자(롬8:17, 18).
- (4) 다음으로 저자는 합2:4을 인용하여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만 신앙의 길에서 퇴보하여 타락하는 자를 기뻐하시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그렇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은 어디까지나 전진하는 믿음이지 뒤로 퇴보하거나 차지도 덤지도 아니한 정체(停滯) 상태의 믿음은 아니다(계3:15,16).
- (5) 그러므로 우리들은 신앙 생활에 있어서도 전심 전력하여 우리의 진보된 모습을 하나님 뿐 아니라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어 그들에게 위로를 제공하며 기쁨을 끼칠 수 있도록 하자(딤후4:15).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예비해 놓으신 상급은 크고도 풍성한 것이 될 것이다(참조, 고후9:6).

본장의 요절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25절).

제 11 장 믿음의 본질과 그로 인한 삶

답락구분 1-3 믿음의 정의 / 4-12 삶을 통해서 믿음을 증거한 사람들 / 13-16 믿음으로 본향을 사모하다 / 17-22 족장(族長)들의 믿음 / 23-26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다 / 27-31 믿음의 사건 출애굽 / 32-34 믿음으로 얻은 승리 / 35-38 믿음으로 인한 시련 / 39-40 믿음에 주어지는 약속

- 1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 2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 3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 4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 5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 6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 7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 8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이요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 9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 10 이는 하나님의 경역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 11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임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앎이라
- 12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 13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

- 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 하였으니
- 14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 15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 16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 17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됨 드렸느니라
- 18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 19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 20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 21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 22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골을 위하여 명하였으며
- 23 믿음으로 모세가 낫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 24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 25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 26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 27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같이 하여 참았으며
- 28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

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29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30 믿음으로 칠 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매 성이 무너졌으며

31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군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32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33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34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35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행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36 또 어떤 이들은 회통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37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38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39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40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1. **㉠ 본장의 주제에 대해 설명하라.**

- ㉠** (1) 전장(前章)에서 영적 생활의 원리와 인내라는 관점에서 믿음을 묘사했던 저자는 본장에서 믿음이 제공하는 중요한 특성에 대해 언급하며 그것이 어떻게 실천적으로 이행되어 왔는지를 보여 준다.
- (2) 즉 저자는 믿음의 정의를 하박국이 말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명제(합2:4)와 야고보의 ‘행함으로 사람이 의롭게 된다’는(약2:22) 또 다른 명제와의 합(合)을 통해 설명하였다.
- (3)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선물로 제공한 믿음은(참조, 엡2:8) 단순히 우리가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기뻐할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킴으로써 그 믿음을 완성시켜 나가야 한다.
- (4) 한편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선물인 믿음을 자신들의 삶을 통해 완성시켜 나갔던 사람들은 모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었으며 미래에야 주어질 약속(그 약속 가운데는 자신이 아니라 후대에 이르러서 성취된 것들도 있다)과 그들이 기다리고 희망해야 할 것들을 믿었다. 더우기 어려운 일들과 고통스러운 일들이 그들에게 시련을 가했으나 그들의 믿음을 꺾지는 못했다.
- (5) 이처럼 믿음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인간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이며 그 믿음의 소유자가 비록 나약한 인간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모든 사건과 환경을 다스리시며 그 믿음의 소유자를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참조, 12:2; 고후4:7). 오늘 이 믿음에 대한 설교와 가르침을 많이 접하지만 우리의 삶에 믿음의 흔적이 없다는 것이 우리들의 숙제이다.

2. **㉠ ‘실상’과 ‘증거’가 가리키는 것은 무엇인가? (1절)**

- ㉠** (1) 여기서 ‘실상’(헬, 휘포스타시스)이란 그 자체가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실체화된 것을 가리킨다.
- (2) 즉 우리가 물질적인 증거로는 확인할 수 없는 어떤 실체가 있다는 것을 확신함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 실체들이 존재함을 알게 하고 그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한다.
- (3) 또한 ‘증거’(헬, 엘렝코스)란 우리에게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존재한다는 확신을 갖게

해주는 것이다. 즉 믿음은 우리의 미래에 대한 증거이다. 따라서 ‘실상’이 우리 안에 영감을 불어넣으면, ‘증거’가 우리 안에 새겨짐에 따라 우리 안에는 믿음 생활을 가능케 하는 힘이 생긴다.

- (4) 왜냐하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무엇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살아 숨쉬게 되기 때문이다.
- (5) 이와 같은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확신 가운데 살게 하며 결코 낙심 가운데서 헤매지 않게 한다. 그러므로 믿음의 삶을 사는 자는 모든 일에 적극적이며 여유를 가지고 대처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참조, 마8:8).

3. **Q**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2, 3절)

- A** (1) 우리는 그것을 단지 믿음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그것이 부인되는 것이다.
- (2) 저자는 믿음의 선진(先進)들에 대한 언급에 앞서서 믿음은 이 세상이 창조된 사실에 까지도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 (3) 즉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창조가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이룩되었다라는 사실은 믿음의 눈이 아니고서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저자는 눈에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 (4) 여기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라는 사실과 함께 그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식하는 자들은 믿음으로 행동했으며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보여 주려는 것이다.
- (5)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음성과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믿음에 의한 사고와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능케 할 뿐 아니라 올바른 세계관과 가치관을 형성해 준다(참조, 롬1:20).

4. **Q**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인가? (4절)

- A** (1) 아벨은 그 제사를 믿음으로 드렸다. 여기서 저자는 결코 제물의 종류와 성질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 (2) 즉 아벨의 희생 제물은 그의 믿음을 표시하는 증거였고 이 믿음으로 인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라는 인정을 받았다(참조, 창4:4).
- (3)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진 어떤 사람의 믿음을 공적으로 증거하실 때에는 그의 행위를 강조하신다(참조, 마25:34).
- (4) 또한 하나님께서는 비록 아벨이 죽어도 계속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셨으며(참조, 창4:10; 시116:15) 그의 믿음을 오늘날의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지도록 하셨다.
- (5) 이와 같이 믿음으로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인들의 기억속에 계속 남아 있게 될 살아 있는 메시지이다. 오늘 우리가 하는 행동이나 말은 그 모두가 믿음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가?

5. **Q** 에녹은 행실이 어떠한 자였는가? (5, 6절)

- A** (1)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
- (2) 에녹에 대한 이 같은 묘사는 저자가 70인역(LXX)을 따른 것이며 히브리 원문에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서술되어 있다(창5:24).
- (3) 사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최선의 방법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자체가 자신의 삶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의미이며 그분의 뜻을 잘 이해하여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 (4) 한편 저자는 에녹의 경우를 예로 들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신 것'과 같이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는 상주시는 분으로 묘사하였다.
- (5) 그러므로 여기서도 강조되는 것은 믿음은 하나님을 가장 바람직하게 섬기는 삶의 기본이며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분에 의해 약속된 상이 비록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확실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신케 해주는 증거이다.
- (6) 이와 같이 믿음이란 나에게 하나님이 존재케 하는 것이며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천국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그 믿음은 결코 노력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참조, 고전12:9).

6. **㉠** 믿음으로 노아는 무슨 일을 하였는가? (7절)

- ㉠** (1) 첫째, '자신의 집을 구원하였다'. 비록 아직 보지 못한 일이며 또한 실현성이 없지만 그는 하나님의 경고(창6:13)를 그대로 믿고 그분의 명령에 따라 방주를 준비하였다(창 7:5).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이 구원을 얻도록 하셨다.
- (2) 둘째, '세상을 정죄하였다'. 행동으로 나타난 노아의 믿음은 그의 본보기와 메시지에 불응한 당시 사람들을 정죄하는 역할을 했다. 이처럼 바른 행실은 언제나 죄악을 정죄하는 위치에 서게 된다(참조, 마12:41; 눅11:31,32; 요일3:12).
- (3) 셋째,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後嗣)가 되었다'. 성경에서는 노아를 처음으로 의인이라 불렀다(창6:9). 그런데 그가 믿음으로 의의 계승자가 되었다는 것은 바울이 말한 '의'의 개념과 같다고 볼 수 있다(참조, 롬5:1).
- (4) 노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애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느냐 아니면 자신의 뜻대로 하느냐'라는 기로에 설 때가 있다. 이때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찾아오고 선택을 주저하게 되지만 자신의 양심의 소리와 믿음에 근거한 결단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좋은 계획을 실천하게 하실 기회를 제공한다.
- (5) 믿음으로 생활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 각자의 삶 속에서 당신의 깊은 뜻과 계획을 설정해 두시고 그 계획의 성취를 위해 활동하신다(참조, 빌2:13).

7. **㉠** 믿음에 근거한 아브라함의 결단은 무엇이었는가? (8절)

- ㉠** (1) 그는 단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基業)으로 받을 땅을 향해 떠났지만 그의 앞길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 (2) 사람들은 자신들의 앞일과 자신들이 가는 곳이 어디인지를 알기 원하며 그 길을 안 후에야 비로소 발걸음을 옮긴다. 또한 스스로가 자신이 가는 길을 선택하기를 원한다.
- (3)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미구에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실 가나안에 대한 지식을 전혀 가지지 못한 채 단지 하나님의 말씀 한 마디에 자신의 전삶을 의탁했던 것이다. 이는 일종의 모험이라고 할 수 있다.
- (4)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제한된 인식력으로 도저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신자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 길이 어떠한 길인지 알지 못하더라도 그 길을 따라야 한다. 이처럼 인간의 편협하고 불완전한 사고와 판단력을 접어 두고 무한한 지혜와 역사의 주도권을 잡고 계신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는 자에게 당신께서는 크고 비밀한 일을 계시하시며 또한 필요에 따라 만족하게 채우실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에도 모험이 필요하다고 하겠다(참조, 마14:28,29).

8. **㉠**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거한 아브라함은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9절)

- ㉠** (1)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은 머지않아 아브라함의 본토가 되도록 되어 있었지만 그는 그곳에서 나그네로 살아야 했다.
- (2) 여기서 '우거하다'(헬. 파로케센)라는 말은 아브라함의 상태를 잘 말해 주는 말인데

‘나그네처럼 기거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 (3) 이것은 그와 똑같은 약속을 받았던 이삭과 야곱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비록 그들이 가나안 땅에 ‘거했지만’(‘정착하다’라는 개념을 가짐) 그들도 역시 그 땅의 주인이 되지 못한 채 유랑하는 생활을 했다.
- (4) 한편 여기서 ‘장막에 거하다’는 말은 완전히 정착된 생활을 하지 못하고 나그네 생활을 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표현이다. 끝없는 나그네 생활은 인간을 피곤하게 만들고 끝내 삶의 모든 희망을 내던져 버리고 좌절하게 만든다.
- (5) 한편 이같이 지루하고 절망적인 상태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바를(창12:2,3) 굳게 믿었다. 여기서 우리는 인내하는 믿음을 보게 된다.
- (6) 사람들이 어떤 일을 결심할 때에는 흥분과 감격이 있고 그 일이 성취된 때에는 만족과 기쁨이 있지만 그 중간 과정인 기다림에는 오직 고통과 지루함만을 느낄 때가 많다. 그러나 믿음은 인내를 수반해야만이 참다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인내를 통해서만 바라는 바를 얻을 수 있다(10:36).

9. ㉠ 아브라함이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10절)

- ㉠ (1) 그것은 하나님의 경영(經營)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기 때문이다.
- (2) 실제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터를 잡고 살게 되었다. 그러나 지상의 약속의 땅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12:22)의 모형에 불과하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기다렸던 것도 지상의 가나안과 예루살렘은 아니었다.
- (3) 그가 바라던 성은 ‘영구한 기초를 지닌 성’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시고 건축하신 곳이다(참조, 제2:14,19). 비록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이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하고 죽어도 그들은 그 성취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
- (4) 아브라함은 자신의 눈으로 목격하지 못하고 죽어 갔으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도성을 그의 영적인 자손(믿음의 후손)들에게 선물하셨다.
- (5) 따라서 그의 믿음은 보지 못한 것에 대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그는 체험하지 못한 것을 체험했으며 소유하지 못한 것을 소유했던 것이다. 것처럼 참된 믿음은 불확실하고 빈곤한 현실 가운데서 풍요하고 확실한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한다.

10. ㉠ 늙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떻게 자식을 볼 수 있었는가? (11, 12절)

- ㉠ (1) 그들의 후손이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까지도 믿었기에 자식(이삭)을 얻을 수 있었다(참조, 창15:5;22:17;출32:13;신1:10).
- (2) 인간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이러한 일은 전혀 희망이 없으며 믿을 수 없는 사실이다. 즉 그들은 늙어서 이미 잉태할 능력을 상실했다(죽은 자와 방불했다). 자신들이 후손을 가질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은 웃지 않을 수 없었다(창17:17;18:12).
- (3)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해하고서 그분의 신실하심에 비추어 자식에 대한 약속을 믿지 않을 수 없었다(신7:9;롬4:17-23).
- (4) 그러므로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100세에 이삭을 낳은 기적을 가능케 했으며(창21:6) 그의 자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화되도록 하였다(창12:2).
- (5) 이와 같이 믿음이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힘이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참조, 롬4:21).
- (6) 한편 계속되는 믿음의 위대성은 잘못하면 인간 의지의 승리라는 관점에서 취급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위대성은 하나님의 신실성과 사랑이라는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기적을 이루는 주체는 믿음을 소유한 인간이 아니라 믿음을 소유하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11. ㉠ 믿음의 선조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13-16절)

- ㉠ (1) 그들은 더 나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영원한 땅을 사모하였다.
 (2) 비록 그들은 살아서 하나님의 약속의 완전한 성취 곧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준비하신 것을 볼 수 없었지만 믿음의 눈을 통해서는 그 영원한 땅을 바라보았다.
 (3) 따라서 그들이 만일 아브라함의 고향 메소포타미아(창11:31)로 돌아가고자 했더라면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하늘에 있는 본향에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존재하는 것에 대해 만족할 수 있었다(9절).
 (4)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 같은 용기와 믿음을 인정하셔서 자신을 그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창28:13;출3:6,15)이라고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 곧 영원한 성을 예비하셨다.
 (5) 이와 같이 믿음이 있는 자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 볼 수 없는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으며, 믿음이 없는 자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다(참조, 막9:23).
 (6) 결국 이 믿음은 하늘나라의 시민만이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다(참조, 엡2:8). 그러므로 하늘나라 시민 된 우리가 현실의 삶에 급급하다면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선물을 무시하는 처사라 할 수밖에 없다.

12. ㉠ 아브라함은 어떻게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는가? (17-19절)

- ㉠ (1) 그는 비록 자신의 독자 이삭이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진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이라고 믿었다.
 (2) 그러나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사항인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창12:2)는 약속에 위배되는 명령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자손이 이삭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창16:18,19).
 (3) 더우기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독자를 죽인다는 것은 인륜(人倫) 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4)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순종자인 이삭을 생각지 않을 수 없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언약의 자손이 있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이미 알고 있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자신이 번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창22:9,10).
 (5) 이같이 하나님의 명령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어도 그들 부자(父子)는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명령에 복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다.
 (6) 즉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리라는 것과 이삭을 통해 그 민족이 번성하리라는 하나님의 처음 약속을 믿었다. 결국 그 믿음이 그 언약을 이루게 했으며 그들을 살렸던 것이다.
 (7) 이처럼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 준 행동은 '하나님께서서는 절대로 자신의 언약을 위배치 않으시며 그 언약을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언약이 지키신다'는 사실을 증명해 준다(참조, 신7:9;왕상8:56).

13. ㉠ 20-22절에 나타난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믿음은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는가?

- ㉠ (1) 그들은 모두 자신들의 죽음이 임박했을 때 죽음 저편에 있는 소망을 바라보았다.
 (2) 즉 죽음의 앞에 서서 이삭은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을 하였고(창27:27-29,39,40) 야곱은 복을 빌었으며(창48장) 요셉은 교훈을 하였던 것이다(창50:24,25;출13:19;수24:32).
 (3) 이처럼 그들에게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은 죽음이 하나님의 섭리를 좌절시킬 수 없다는 강한 확신이었다.
 (4) 즉 그들은 자신들이 죽은 후에 이루어질 일들을 자신 있게 말하였으며 비록 자신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살아서 볼 수는 없지만 그것이 장차 실현될 것을 믿었다. 그러므로 그들의 믿음은 죽음마저도 패배시킬 수 있는 것이었다.

- (5) 이처럼 우리 성도들도 우리의 소망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기 때문이다(참조, 수23:5-15).

14. **㉠** 모세의 출생시 부모가 보여 준 믿음의 자세는 어떠했는가? (23절)

- ㉠** (1)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맡은 무슨 표적을 보았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그를 석달 동안 숨겼다.
- (2) 출2:2에 의하면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준수하다'고 했는데 자기 자식이 아름답거나 사랑스럽지 않은 부모가 없을 것이지만 특별히 본절에서 저자는 모세의 부모가 믿음을 가지고 바로의 명령을 어긴 사실을 강조한다.
- (3) 즉 그들은 바로의 권력 횡포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더욱 믿었기에 바로의 명을 어길 수 있었다. 즉 그들도 죽음보다 강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 (4) 이처럼 믿음이란 이 세상의 어떠한 존재보다도 하나님께서 우월하시다는 생각에서 나올 수 있으며 두려움을 극복하고 올바른 일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참조, 단 3:17).

15. **㉠**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고 취한 모세의 믿음의 행동은 무엇인가? (24, 25절)

- ㉠** (1)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최악의 낙을 누리는데서보다 더 좋아하였다.
- (2) 즉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구원하실 것을 믿었다(참조, 행7:25). 그래서 그는 바로의 왕궁에서의 삶을 포기하였다.
- (3) 바로의 왕궁에서의 그의 지위는 보장되었지만 그는 하나님과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자손의 고난을 바라만 볼 수 없었으며 그들과 함께 참된 자유를 누리기 위해 그들과 더불어 고통의 자리에 머물렀었다.
- (4) 우리에게 자그마한 평안과 부가 약속되면 사람들은 이제까지의 영적 투쟁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하나님 안에서의 생활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때문이다.
- (5) 그러나 현재의 고난을 이기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자신의 인내로 말미암아 주위의 이웃에게 끼치는 은혜는 놀라울 정도로 클 것이다(참조, 막16:16).

16. **㉠** 저자는 모세가 고난을 받은 것을 무엇에 비유하였는가? (26절)

- ㉠** (1) 그는 그 고난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에 비유하였다.
- (2) 그런데 본절에서 저자가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출애굽은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의 전형이며 준비였다. 그러므로 출애굽의 축진을 위하여 모세가 당한 고난은 이 경우에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었다.
- (3)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출애굽 사건에 참여했을 뿐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있었다는 사상에서 비롯된 것이다(참조, 사63:9; 고전10:4).
- (4) 따라서 모세는 바로의 왕궁에서 누리는 희락보다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 기꺼이 자신의 몸을 던졌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 (5) 이처럼 믿음으로 살아간 모세는 이 세상의 부귀 영화를 버렸지만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구원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축복을 기대했기에 현재의 고난에 과감히 뛰어 들 수 있었다. 이처럼 믿음은 위대한 용기와 결단을 산출해 내기도 한다.
- (6) 인간은 곧 없어질 부귀와 영화를 위해 시기와 질투, 미움과 분쟁, 배신과 분리를 행하지만 믿음이 있는 자는 이같이 순간적인 일에 집착하지 않고 영원한 보화를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친다(참조, 고후4:18).

17. ㉠ 모세가 애굽을 떠나 인내의 생활을 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가? (27절)

- ㉠ (1) 그는 믿음으로 바로의 노함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같이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 (2) 본절에서 모세가 애굽을 떠난 사실은 그가 애굽인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떠난 사건(출2:11-15)을 가리킨다.
- (3) 그런데 모세는 오랜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보이지 아니하는 자’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참조, 출33:11; 민12:7,8)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믿음으로 기다렸다.
- (4) 이처럼 믿음의 눈은 현재의 고난을 너머 저편에 있는 평안과 구원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이라도 참아 내게 한다(참조, 롬8:18).
- (5) 더우기 믿음의 눈은 보이는 이 세상의 권력자보다 보이지 않는 전능자를 더욱 신뢰하게 한다. 우리는 시각이 항상 보이지 않는 존재이신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을 때 경건에 힘쓸 수 있을 뿐 아니라 과단성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18. ㉠ 이스라엘 민족이 유월절을 지키고 장자(長子)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무슨 이유에서인가? (28절)

- ㉠ (1) 그것은 모세가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기 때문이다.
- (2) 애굽 전역에 대한 하나님의 재앙이 있던 밤에 모세는 문설주와 인방에 어린양의 피를 바르게 했는데 이는 죽음의 천사가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가리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믿음으로 수용하였기 때문이다(출12:7).
- (3) 결국 모세가 믿음으로 지시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탈출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애굽의 장자들은 죽임을 당했으나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
- (4) 이와 같이 믿음은 곧 적극적인 행동을 하게 하며 그 행동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하는 근거가 되게 한다(참조, 롬10:9,10).

19. ㉠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과 빠져 죽은 애굽인들의 차이는 무엇인가? (29절)

- ㉠ (1)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으나 애굽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시험하였기 때문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다.
- (2)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인이 홍해에 들어선 것은 다같이 용감한 행동이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았고 그분의 돌보심도 믿었기 때문에 무사할 수 있었던 반면, 애굽인들은 하나님도 알지 못하였고 홍해의 물이 과연 자신들을 가만히 나들지 않을지 심하는 가운데 뛰어들었다.
- (3) 이처럼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대로 확실한 행동을 하며 살아 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
- (4) 그러나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믿음도 없는 자들은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의 불확실한 것만을 의지하기 때문에 확신있는 행동을 하지 못한다(참조, 창3:1-6).
- (5) 더우기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우습게 알고 자신의 힘만을 신뢰한다거나 하나님 이외의 다른 존재에게 자신의 운명을 맡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과연 어떠한 분이신가를 심판과 징계와 형벌들을 통하여 계시하신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으로 계시하실 때 그분을 구주로 믿은 자들이다.

20. ㉠ 여리고 성의 함락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30, 31절)

- ㉠ (1)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으로 여리고 성 주위를 7일 동안 돌음으로써 그 성을 함락시켰다. 한편 여리고 성내에 있던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군을 도움으로써 그 함락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그로 인해 자신의 목숨도 건질 수 있었다.

- (2) 견고한 여리고 성이 무너지리라고 어느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다. 더우기 여리고를 공략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명령은 단지 하루에 한번 그 성 주위를 돌리는 것이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써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명령이었다.
- (3)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 명령을 따랐으며 결국 난공 불락으로 여겨졌던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다. 한편 이 같은 승리를 가능케 했던 단 하나의 인물을 찾을 수 있는데 그가 바로 라합이라는 기생 출신의 여인이었다. 성내에 있던 기생 라합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성을 함락시킬 수 있다는 믿음과 부패한 여리고 성의 필연적인 멸망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정탐군을 도와 줄 수 있었던 것이다.
- (4) 우리가 이들의 행동을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 너무도 무모한 것 같으며 맹목적인 것 같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한 것뿐이다. 그들은 살아 있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었다(참조, 약2:26).
- (5) 이처럼 믿음이란 도저히 믿을 수 없고, 불합리하며, 이해가 되지 않는 사실마저도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인정한다는 측면에서 믿는 것을 말한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을 위한 목적하에서일 때이다(참조, 요20:30,31).

21. ㉠ 32절에 언급된 사람들은 어떤 성격의 인물들인가?

- ㉠ (1) 그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인 사사 시대와 왕정 초기의 인물들이다.
- (2)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두번째 사사로서 미디안의 군대를 무찌른 사람이었다(삿7장). 그리고 바락은 첫번째 사사인데 가나안 족속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인물이었다(삿4장).
- (3) 삼손은 무서운 힘의 소유자로서 그 힘을 사용하여 블레셋을 괴롭힌 사사였다(삿13-16장). 또한 입다는 사생자로 방랑 생활을 하다가 암몬 족속의 위협을 받던 이스라엘의 부름을 받고 큰 전과를 거두었던 사사였다(삿11,12장).
- (4) 한편 다윗은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의 두번째 왕이 된 인물로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였다(삼상16:1-13).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얻은 아들인데 일찌기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져 주의 율례를 배웠으며 성장 후 이스라엘의 사사요 제사장이요 왕적 기능을 담당하는 자로서 쉽게 믿음을 저버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늘 신앙의 길로 인도한 선지자였다.
- (5) 그런데 이들의 위대한 점은 그들이 모두 위기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그 위기들을 믿음으로 이겨 냈다는 것이다. 물론 그들에게도 인간적인 약점이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환난을 겪기도 하였다.
- (6) 이처럼 이들은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이기는 물론 고난을 물리치고 큰 승리를 얻을 수 있었다. 그것은 그들의 연약함만을 보지 않고 그들 속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도우셨던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성취할 수 있었던 일이다(참조, 고후4:7).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러내어야 할 부분은 자신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

22. ㉠ 저자가 예로 든 믿음의 승리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33, 34절)

- ㉠ (1) 먼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겼다'. 이것은 32절에 나타난 믿음의 용사들의 행동을 가리키는데 유대 사가(史家) 요세푸스(Josephus)에 의하면 이 부분의 내용은 블레셋과 모압과 수리아 그리고 에돔을 정복했던 다윗을 가장 중점적으로 가리킨 것이라고 하였다.
- (2) 둘째, '의를 행하기도 하였다'. 이는 의롭고 바르게 통치하였던 사사들과 열왕들을 일 반적으로 가리킨 것이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곧 불의와의 결별을 의미하는 것이기

도 하다.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였고 불의 세력을 떨하기도 하였다’. 이는 다니엘의 이야기(단6:22)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단3:19-28)의 이야기를 언급한 것이다. 믿음이 제공하는 능력은 인간에게 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과 자연 현상에도 적용된다.

- (3) 세째, ‘칼날을 피하기도 하였다’. 이는 다윗(삼상18:11)과 엘리야(왕상19:1-14)와 엘리사(왕하6:31-33)가 정적으로부터의 암살을 피한 사실을 가리킨다. 믿음은 곧 하나님을 자신의 방패로 삼는 것이기도 하다(참조, 시18:2).
- (4) 네째,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였다’. 이는 연약한 가운데 있었던 히스기야(왕하20장; 사38장)나 삼손(삿16:28-31)이 여호와와 은혜로 다시 회복된 사실을 가리킨다. 믿음은 곧 새 생명의 탄생이나 새로운 삶을 가능케 한다(참조, 사40:31).
- (5) 다섯째,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였다’. 이는 여호수아나 사사들 그리고 다윗의 전쟁사 등을 가리킨 것이다.
- (6) 이와 같이 믿음이 강했던 이들은 이 세상의 어떠한 권세나 군대의 세력 그리고 위협도 물리칠 수 있었으며 자신들이 바라던 바를 성취할 수 있었다.
- (7)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기도만 들으시고 이들의 믿음만을 보시는 분이신가? 그 분께서는 오늘의 상황 속에서 자신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며 믿음의 행동을 보이는 자들에게도 합당한 은혜를 내리신다(참조, 빌4:19). 하나님은 분명 믿음의 주체자로서 당신을 신뢰하는 자들의 힘이 되어 주신다. 우리가 그분에게 모든 것을 의탁할 때 그분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실 것이다.

23. ㉠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한 자들 중에는 어떤 자들이 있는가? (35절)

- ㉠ (1) 선지자 엘리야 때 사르밧 과부는 그의 죽은 아들이 다시 사는 기쁨을 맛보았다(왕상17:17,18).
- (2) 또한 선지자 엘리사 때 수넴의 한 여인에게도 위와 같은 기쁨이 주어졌다(왕하4:32-38). 그런데 여기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된 것은 이 여인들의 믿음이라기 보다는 선지자들의 믿음이 그 일을 가능케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3) 한편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의 생명보다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세상의 생명을 얻으려고 어떠한 고문도 참아 내었다(참조, 외경 마카비하7:23,29).
- (4) 즉 이들은 이 세상에서 구차하게 생명을 연장하기 보다는 하나님과 의를 위해 자신들의 생명을 기꺼이 바칠 수 있었으며 그 행동의 배후에는 자신들에게 새로운 삶과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
- (5) 이처럼 믿음은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게도 하며, 용기를 보이게도 한다.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의 삶에 생명력이 있게 하는 요소가 된다. 이런 관점에서 날마다 죄악의 파도가 넘실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믿음 없이는 그 모든 악의 세력을 이겨 낼 수 없다는 것을 배울 수 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곧 생명이다(참조, 요3:15,16,36;5:24;6:40,47).

24. ㉠ 저자는 믿음의 선조들이 당한 고난을 어떻게 표시하였는가? (36, 37절)

- ㉠ (1) 먼저 ‘어떤 이들은 희롱(戲弄)과 채찍질,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당했다’고 묘사하였다. 이는 외경 마카비상·하서에 나타난 기록을 가리키는데 마카비 전쟁 당시 시리아의 침략군들은 신앙을 지키려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혹한 고문을 가하였다(마카비하7:1).
- (2) 둘째로 묘사된 ‘돌로 치는 행위’는 유대인들 사이에 전통적으로 전해지던 처형법이다. 결국 이 형벌을 당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동족들의 손에서 고난을 받기까지 했던 자이다(참조, 대하24:20,21).
- (3) 세째로는 ‘뚝으로 켜는 것’이다. 전설에 의하면 이사야가 이러한 죽임을 당했다고 한

다. 또한 우리야(렘26:23)의 경우에는 여호야김 왕(B.C.608-597)에게 칼로 죽임을 당했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무력이 법으로 통용되었던 시대에 매우 빈번하였다(참조, 외경 마카비상2:38).

- (4) 또한 어떤 이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비참한 모습을 한 채 압제자들을 피해 다녔는데 그들은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기까지 했다'고 묘사되었다(참조, 마카비상1:28;마카비하5:27;6:11;10:6).
- (5) 그들은 비록 이 세상에서 비참하게 살다가 죽어 갔으나 결코 자신들을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릴 수 없었으며 내세에서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현세에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과감하게 내어 줄 수 있었다.
- (6) 이처럼 믿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용기이며 가장 뛰어난 능력이며 가장 아름다운 삶의 형태이다. 어떠한 고난과 핍박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을 향한 믿음에서 떼어놓을 수 없었다(참조, 롬8:34-39).

25. ㉠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다)'란 무슨 의미인가? (38절)

- ㉠ (1) 그들은 이 세상에서 비록 보잘것없었으며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서 유리하였지만 세상은 그들을 유혹할 수도 없었고, 그들의 믿음을 빼앗을 수도 없었다.
- (2) 그들에게는 핍박과 환난이 문제시될 수 없었으며 세상적인 부귀와 영화가 그들의 마음을 돌려놓을 수 없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었다. 그들이 압제자들의 위협을 피해 고난을 감수하며 방랑했던 것은 하늘나라의 집에 대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 (3) 결국 본절에서 강조된 바는 그들이 그러한 환난 가운데서도 일반적인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았고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랐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1절).
- (4) 이들과 같이 오늘날에도 이 세상에 살면서 보이는 이 세상의 질서와 횡포와 압제에 구애됨이 없이 하늘나라의 질서와 그 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 비록 이들은 현실 속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고난과 핍박을 받지만 세상이 그들의 마음을 돌려놓지는 못한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자에게 세상은 별로 기대할 만한 그리고 가치가 없는 곳임에 분명하다(참조, 행22:22).
- (5) 믿음으로 생활하는 자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며, 생각할 수 없는 것을 행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제공하는 것들에 절대 만족을 얻지 못하며 세상이 제공하는 핍박도 큰 문제가 될 수는 없다. 결국 그들은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소망하고 사는 것이다(참조, 요일5:4).

26. ㉠ 믿음의 용사들이 모두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39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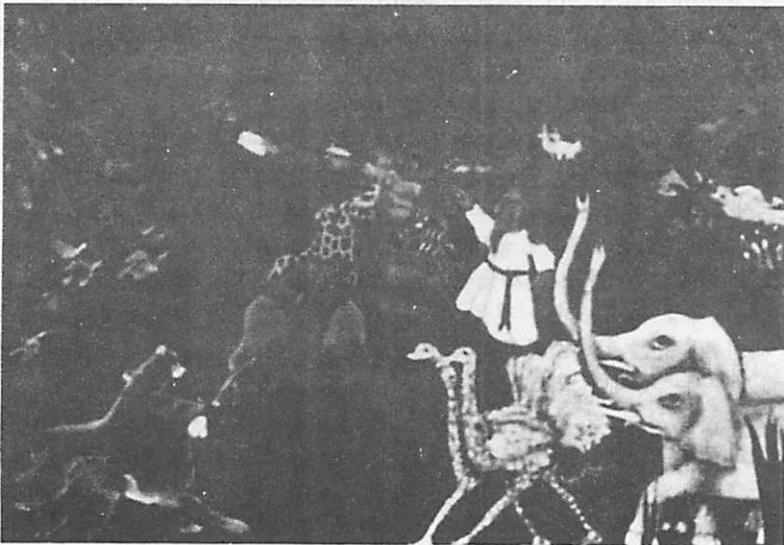
- ㉠ (1) 그것은 그들의 믿음이 결핍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그리스도를 통한 인류 구속)이 옛 언약 아래에 있는 그들에게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이다.
- (2) 한편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이후로부터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 약속이 주어졌고 그들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무리들이 많았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궁극적이고 영원한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약속은 영원한 하늘나라의 구원을 가리킨다.
- (3) 하나님의 계획은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참여할 때까지 그 '약속'을 보류하시는 것이다.
- (4) 그런데 그때는 구약 시대의 믿음의 용사들과 그 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간에 전혀 차별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질 약속의 성취가 있을 것이다. 신약의 그림자 역할을 했던 구약의 사건과 인물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의 믿음이

두드러지게 되었다.

- (5) 한편 여기에는 그리스도인들의 특권과 책임이 나타나 있다. 즉 ‘하나님께서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으며’,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면 구약의 인물들을 온전함으로 인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 자체가 구약 시대의 신앙 인물보다 우월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신약 시대 성도들을 구원하신 것이 크고 귀하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옳을 것이다.
- (6) 그러므로 이 말은 구약의 믿음의 인물들의 구원이나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이나 그 모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렸다는 것을 말해 준다. 따라서 여기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도 그리스도를 향한 전적인 신뢰와 복종 그리고 변함없는 믿음인 것이다(참조, 롬1:16; 고전1:21).

화보자료

노아의 방주. 노아가 각종 짐승들을 암수 한 쌍씩(참조, 창6:19, 20) 방주에 태우고 있는 장면을 그린 이 그림은 미국 태생의 유대인 여류 화가 크리스틴 홉퍼의 작품이다.



본장은 일명 ‘믿음의 장(章)’으로 불리운다. 왜냐하면 본장에는 믿음을 좇아 살았던 신앙 선조들의 행적이 열거되어 있어 우리들의 믿음을 고취시켜 주기 때문이다. 그 같은 선조 가운데는 노아도 있는데(7절)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좇아 믿음으로 방주를 건조, 자신의 가족 뿐 아니라 기식(氣息)있는 각양 짐승들을 살린 것은 우리들에게 깊은 감명을 준다.

제 12 장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단락구분 1-3 우리의 모범이 되신 그리스도를 따르라 / 4-8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는 징계 / 9-11 징계의 목적 / 12-17 성도의 생활에 대한 권면 / 18-24 옛 공포(시내 산)와 새 영광(시온 산) / 25-29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시민으로서 굳건한 믿음의 자세를 보이라

1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2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3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4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5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이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6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7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8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9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10 너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예케 하시니라

11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합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12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13 너희 발을 위하여 끈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14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15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16 음행하는 자와 혹은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17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18 너희의 이른 곳은 만질만한 불붙는 산과 흑운과 흑암과 폭풍과

19 나팔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20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함이라

21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니

22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 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23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24 새 언약의 증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낮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25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 좇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나

26 그 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27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의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28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1. ㉠ 저자가 본장에서 수신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 ㉠ (1) 먼저 저자는 전장(前章)에서 언급한 영광스러운 믿음의 표본들을 언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자라면 현재 그들이 당하고 있는 환난 가운데서 인내하라고 권면하였다. 즉 전장이 과거의 믿음의 표본들을 열거한 것이라면 본장은 현재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다.
- (2) 그런데 고난과 믿음의 상관 관계를 다루고 있는 본장에서 그 전제 조건으로 수신자들이 알아야 할 것은 그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자녀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라는 사실이다.
- (3)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 된 자들은 비록 그들의 삶이 괴로움과 두려움으로 점철되어 있다고 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어야 한다.
- (4) 마지막으로 저자는 수신자들이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견지해 주길 바랐다. 그것은 그들이 이미 구원과 영원한 나라에 대한 언약을 받았기 때문이다(25-29절).
- (5) 주를 따르는 성도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이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가기란 참으로 어렵다. 갖은 유혹과 위협이 찾아와서 우리를 흔들리게 하지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꾀박도 유혹도, 또한 유혹이 보장하는 환상도 모두가 일시적이라는 사실이다.
- (6)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야 하는 것은 유혹과 꾀박에 쉽게 넘어지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이며 또한 눈에 보이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인 것이다(참조, 마6:10,33).

2. ㉠ 인내의 경주를 하기에 앞서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가? (1절)

- ㉠ (1)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이다.
- (2) 여기서 '무거운 것'(헬, 옹코스)이란 적당한 훈련을 하여 제거해야 할 군살이나 의복과 같이 벗어버릴 수 있는 어떤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본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운동 경기에 장애가 되는 요소처럼 신앙 생활에 절대 방해 요인이 되는 어떤 것들을 의미한다.
- (3) 또한 '얽매이기 쉬운'(헬, 유페리스타토스)이란 '우리의 주위에 있으면서 우리에게 쉽게 영향력을 미치는 상황 또는 사물'을 말한다. 따라서 그 죄란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 같으면서도 늘 우리 곁에서 떠나지 않으며 우리를 괴롭히는 죄일 수도 있고 우리의 사고와 행동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죄일 수도 있다. 그중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죄는 불신앙의 죄이다.
- (4) 한편 저자가 말하는 경주란 단거리가 아니라 오랜 인내를 요구하는 장거리 경주이다. 그러므로 선수들은 불필요한 치장과 경기하기에 거주장스러운 모든 것들을 벗어버려야 한다.
- (5)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 방해가 되는 것을 모두 벗어버려야 그 경주를 올바르게 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 (6) 우리 주위에 항존하는 자신의 성격적 결함, 쉽게 저지르는 죄, 끊을 수 없는 습관들은 우리를 머나먼 신앙의 경주에서 탈락시키거나 좌절케 할 수도 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데 방해 요소로 여겨지는 그 어떤 것도 담대히 떨쳐 버릴 수 있어야 한다(참조, 뱀전2:11). 우리가 이 경기를 모두 마친 후에 영광의 면류관(하늘의 상급)을 누릴 것이다(참조, 딤후4:7,8).

3. ㉠ 예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주이며 온전케 하시는 분'이 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2절)

- Ⓐ (1) 예수께서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기 때문이다.
- (2) 여기서 앞에 있는 '즐거움'이란 그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가져다 줄 구원의 즐거움이란 의미이다. 따라서 예수께서는 어떠한 고난도 참아 내셨던 것이다.
- (3) 즉 예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이 당신에게 있어서 크나큰 기쁨이었기에 십자가의 형벌과 죽음의 고통을 참으셨던 것이다. 특별히 '개의치 아니한다'는 말은 '굳이 회피하지 않는다' 또는 '가볍게 여긴다'는 말로서 결국 인류 구원의 대전제 앞에 예수께서는 당신을 향한 조소와 채찍은 가볍게 여길 만한 것이었으며 또한 굳이 회피할 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참조, 사53:3).
- (4)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주로 바라보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고난의 대표자로서만이 아니다. 그분은 그 십자가의 고통을 끝내 이겨 내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승리와 영광의 대표자이시기도 하다(참조, 1:3).
- (5) 기독교는 고난과 죽음만을 강조하는 패배 의식에 찌든 종교가 아니다. 십자가 이후에 있을 부활의 영광을 함께 보여 주는 소망과 기쁨의 종교이다. 오늘 이 패역한 세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비록 짜증스럽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을지라도 거역, 아픔, 고난, 배신 그리고 죽음을 경험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좇아야 할 뿐 아니라 하늘 보좌 우편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앉아 계시서 우리를 보살피시는 그분의 영광을 찬양할 수도 있어야 한다(참조, 빌2:5-11).
- (6) 그런데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함에 있어서 바라보아야 할 목표(모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참조, 뱀전2:21).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바라보지 말자.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만 믿음을 지속시킬 수 있고 또한 그분을 통해서만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 피곤하여 낙심하는 자를 위해 저자가 본(本)으로 제시한 것은 무엇인가? (3절)

- Ⓐ (1) 그것은 죄인들이 자신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것이다.
- (2) 저자는 수신자들을 낙심케 하는 박해를 염두에 두고 권면하였다. 즉 그들의 고난이 아무리 가혹하더라도 예수께서 당하신 고난에 비하면 충분히 견딜 수 있다는 것이다.
- (3) 여기서 '피곤하여 낙심하다'란 말은 그들이 당하는 박해가 너무도 혹독하여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전의(戰意)를 상실한 상태를 가리킨다.
- (4) 인간은 작은 것 하나에도 낙심을 하거나 아니면 지속적이며 극심한 고난에 의해 삶의 소망마저도 상실할 때가 있다. 특히 고난이 극심하면 할수록 자기 혼자만이 그 같은 고난에 처해 있다는 자기 연민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성도들이 서로 위로하고 권면한다면 그의 고난은 훨씬 덜어질 것이며 그들의 합심된 기도는 하나님의 위로로 얻어 낼 수 있을 것이다(참조, 살전5:14).
- (5) 더우기 인간의 약한 부분을 가장 잘 이해하시고 또 스스로 그 약한 부분을 담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일은 고통 중에 큰 위로가 될 것이 분명하다(참조, 4:15). 사실 세상에서 그 누구도 혼자 힘으로는 인생의 결승점까지 힘차게 달려갈 수 없다.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로 인해서만 그 일을 기쁨으로 마칠 수 있는 것이다(참조, 갈2:20; 빌1:6; 2:13).

5. ㉠ 저자는 수신자들의 영적 투쟁을 어떻게 평가하였는가? (4절)

- Ⓐ (1) 그들이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였다고 했다.
- (2) 여기서 '피 흘리기'라는 말은 당시의 권투 경기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다. 즉 당시의 권투 선수들은 경기 도중 피 흘리는 일은 보통이었고 가끔 죽음까지도 당했다.

- (3) 그런데 이 서신의 저자는 수신자들에게 아직은 그들이 ‘피 흘리기까지’ 곧 죽기까지 악과 정면으로 싸우지 않았다고 말하였다.
- (4) 저자가 이러한 언급을 한 이유는 수신자들 가운데 죽음을 두려워하여 배교하는 자들이 있었으며 육체적인 고통과 압제로 인해 자신의 신앙을 내팽겨쳐 버리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 (5) 그러나 오늘날의 성도들이 알아야 할 것은 악의 세력이 아무리 거대하고 교활하다고 하더라도 진리와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 한낱 종이 호랑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만일 그 악의 세력을 두려워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두려운 존재로 화(化)해서 우리를 해칠 것이다(참조, 약4:7). 성도들은 항상 악에 대항할 수 있는 적극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6. ㉠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5-9절)

- ㉠ (1)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따라서 징계가 없으면 우리는 사생자(私生子)에 불과한 존재들이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며 또한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 (2) 즉 고난은 믿는 자들을 불행하게 하기 보다는 오히려 권면해 준다. 왜냐하면 징계에는 두 가지 면이 있는데 하나는 징계적인 면이며 다른 하나는 교육적인 면이다.
- (3)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신에게 고난에 임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가’라는 귀기울임이 있어야 한다.
- (4) 즉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잘못된 면을 고난을 통해서 징계하시기도 하지만 성도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도 고난을 주신다.
- (5) 따라서 고난을 당할 때 성도들은 결코 낙심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되며 그 고난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기 위해 조용히 기다려야 한다(참조, 사63:9; 살전3:3).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롬8:28).

7. ㉠ 부모의 징계와 하나님의 징계는 그 성격을 어떻게 달리 하는가? (10절)

- ㉠ (1) 부모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신다.
- (2) 즉 부모는 자식들에게 최선을 다해 교훈하고 징계하지만 거기에는 오류가 있을 뿐 아니라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 이에 반해 하나님의 징계는 잘못이나 실수가 없음은 물론 자신의 백성들 속에 자신의 성품을 넣어 주고자 하는 영원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 (3)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나 부모의 징계는 모두 자식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녔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인 부모가 줄 수 없는 거룩함을 그들의 가슴속에 영원히 새겨 주시는 것이다.
- (4)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징계하심으로 그들 속에 있는 세속적이고 부패한 성품과 생각들을 몰아내시고 당신의 거룩함을 그들 각자에게 주입시키시는 것이다. 여기서 ‘거룩’은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성품으로서(참조, 레11:44)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도 이 같은 성품을 부여하시기 원하신다(참조, 벰전1:16).
- (5) 따라서 성도들은 징계가 임할 때 낙심하지 말고 그 징계의 이면(裏面)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그 징계를 감사함으로까지 받아드려야 한다.

8. ㉠ 징계로 연달(鍊達)한 자에게 있을 축복은 무엇인가? (11절)

- ㉠ (1) 징계는 그것을 받을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것을 연달한 후에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된다.
- (2) 여기서 ‘연달한’이란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자신들을 계속 훈련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그 징계는 우리를 정련(精鍊)하는 방편이 된다.

- (3) 이것은 징계를 은혜로 받아들인다는 개념과는 다르다. 오히려 그 징계를 자신의 신앙적 발전에 활용한다고 보는 편이 옳을 것이다. 우리가 징계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징계 그 자체를 우리의 삶의 습관적인 부분처럼 취급할 때 우리는 의를 포함하는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 (4) 그러므로 징계를 통해 혹시 우리의 잘못된 점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고쳐야 하며, 그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욱 성숙한 믿음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 성숙한 신앙 인격을 소유하게 하여 당신과 화평한 관계 속에서 교제하게 하시려는 데 있음을 알 수 있다.
- (5) 이 세상에 항존(恒存)하는 악의 세력들은 알게 모르게 우리를 오염시키며 우리를 탄압하고 우리로 하여금 진리에서 멀어지도록 유혹을 멈추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이 같은 고난과 유혹을 이겨 낸다면 우리 자신을 성화(聖化)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참조, 계7:14). 더우기 이런 연단 과정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과 깊은 교제 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좋은 기회이다(참조, 욥42:5).

9. **Q** 징계를 받는 자에 대해 저자는 어떠한 권면을 하고 있는가? (12, 13절)

- A** (1) 저자는 사35:3을 나름대로 해석한 설명 귀절을 통하여 절망과 불안에 처해 있는 자들에게 믿음 위에 굳게 설 것과 주위의 연약한 형제들을 도우라는 권면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
- (2) 여기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이란 박해 가운데서 낙심과 좌절에 빠진 상태를 가리키는데 저자는 이러한 상태에 있던 수신자들이 먼저 일어서야 하고 움직여야 한다고 말한다.
- (3) 즉 그들은 믿음에 굳게 서서 그리스도인들이 걸어야 할 진리의 길을 걸어감으로써 스스로를 새롭게 하고 또한 주위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굳건히 붙잡아 주어야 한다는 말이다.
- (4) 사실 그 당시 팔레스틴에 있던 교회들에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흐려져서 다시 유대교에 돌아가려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13:22). 그들에게는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들의 인도가 필요했다.
- (5) 그러므로 저자는 오랜 박해와 고난으로 인해 좌절과 낙망에 빠져 있던 수신자들에게 교회 공동체를 올바르게 이끌어 가기를 권면하였다.
- (6) 이처럼 성도들의 책임은 어느 시대 어느 장소를 막론하고 요구된다. 즉 성도들은 타락해 가는 사회를 올바르게 개도해 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함은 물론 교회가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신을 돌아보는 동시에 교회 공동체를 굳건히 해야 한다(행20:35).

10. **Q** 저자는 '주를 볼 수 있는 길'이 무엇이라고 했는가? (14절)

- A** (1) 그것은 모든 사람과 화평하며 거룩함을 좇는 길이다.
- (2) 여기서 '모든 사람'이란 일반적으로는 불신자들까지 모두를 대상으로 하지만(롬12:18) 본절에서는 수신자들의 교회 공동체에 대해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3) 그리고 '화평함과 거룩함'이란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내적인 충동과 분리주의적인 경향을 없앤 기초 위에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생활을 해가는 상태를 가리킨다(참조, 마5:8,9).
- (4) 사실 하나님의 성품은 불화와 분란이 아닌 '화평'이며 속된 것이 아닌 '거룩'이다. 그러므로 거룩하지 못하고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서며 그분과 만나 대화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참조, 시24:4,5).

- (5) 그러므로 저자가 주장하는 바는 서로 사랑하며 깨끗함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는 성화(聖化)의 과정을 통하여 성숙해질 것이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며 그분과 교제하게 되리라는 것이다(참조, 뱀전1:16; 요일2:10).
- (6)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계명인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마 22:37-40)으로 요약될 수 있다. 우리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아 사는 작은 예수들로서 우리가 존재하는 곳마다 과연 하나님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인식을 심어 주도록 하자. 우리의 주인은 내가 아닌 하나님임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도록 하자(참조, 갈2:20).

11. ㉠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란 누구를 말하는가? (15절)

- ㉠ (1) 주위의 박해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이전의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자들을 가리킨다.
- (2) 여기서 ‘은혜’란 죄인들을 죄 가운데서 해방시키고자 그리스도께서 대신 그 죄를 짊어지신 사실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가 날로 그 은혜 가운데서 성화(聖化)를 추구하는 대신 예전의 율법 생활로 돌아감은 곧 죄의 짐을 다시 지려는 행위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처사이다.
- (3) 그런데 이러한 행동은 자신들에게만 손해를 끼칠 뿐 아니라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나쁜 영향을 준다. 그리고 그 행동은 결국 그리스도의 구원의 행위와 십자가마저도 조롱하여 더 크나큰 죄에 빠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 (4) 저자는 이 같은 사실을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한다’는 말로 표현하였다. 이 표현은 신29:18,19을 배경으로 하는데 거기서는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을 빼앗은 한 우상 숭배로부터 이스라엘이 큰 손실을 당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결국 이 ‘쓴 뿌리’란 배교의 위험성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의 공동체, 아니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쓴 뿌리가 성장하지 않도록 주의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 (5)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늘 자신을 돌아보아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를 살펴야 하며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자신의 행위를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참조, 고후13:5).

12. ㉠ 저자는 배도자들이 범할 또 다른 죄악은 무엇이라고 했는가? (16, 17절)

- ㉠ (1) 그들은 음행을 저지르거나 에서와 같이 한 그릇 식물을 위해 장자의 명분(名分)을 파는 망령된 짓을 저지르는 것이다.
- (2) 위의 사실은 진리의 길에서 벗어난 자들이 방탕한 길을 걷는 모습과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원한 실상을 위하기 보다 세속적이고 순간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의 모습을 지적한 것이다.
- (3) 특별히 본절에서 ‘음행하는 자’를 언급하는데 이들은 스스로를 더럽힐 뿐 아니라 교회 안에 더러움과 분란을 조성함으로써 교회 전체에 악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욕욕에 이끌리어 팔죽 한 그릇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고유한 권리인 장자의 명분을 경솔히 여기므로써 ‘망령된 자’라는 정죄를 받은 에서의 일은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하려 드는 현대인들에게 경종이 될 만한 사건이다.
- (4) 한편 저자는 에서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축복을 다시 찾기 위해 눈물을 흘렸으나 버린 바 되어 회개(悔改)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고 했다.
- (5) 이는 그가 회개를 하였어도(참조, 창27:30) 일단 상실한 축복은 영원히 다시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결정은 이미 내려졌으며 그 선택은 결정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 (6)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사실은 에서의 눈물의 호소가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무시한 것에 대한 자신의 실수를 회개한 것이 아니라 그가 빼앗겼던 ‘축복’을

도로 찾기 위한 일종의 폐쇄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 (7) 결국 본절에서 다루고 있는 ‘음행’과 ‘망녕’을 통해 저자는 인간적인 욕심에 이끌린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무시하고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다. 우리는 항상 이러한 욕욕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는 연약한 존재들이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그분이 우리를 향해 선한 뜻과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을 때 그 모든 위험성을 이겨 나갈 수 있다(참조, 빌2:13).

13. ㉠ 18-21절은 무엇에 대한 묘사인가?

- ㉠ (1) 이는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의 공포를 묘사한 글이다(참조, 출19:16-19; 신4:11).
- (2) 그런데 18절에서 ‘만질 만한 불붙는 산’이란 ‘만져서 알 수 있는 산’ 그리고 ‘불붙어 타고 있는 산’을 가리킨다. 이 말은 결국 22절 이하에 나오는 관념적인 시온 산과 대조적으로 이 땅에 존재했으며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던 시내 산을 강조하는 것이다.
- (3)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붙는 산과 흑운(黑雲), 흑암과 폭풍,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와 같은 인간의 감각을 통해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내셨다. 성경 곳곳에는 위에 열거한 현상들이 곧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 묘사되었다(참조, 사13:20; 왕상8:12; 18:38; 나1:3).
- (4) 그러나 이 같은 하나님의 현현(顯現)은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움으로 가득하게 하였으므로 그들은 모세를 중보자(仲保者)로 내세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받기를 원하였다(참조, 출20:19; 신5:23,24).
- (5) 그 당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에는 짐승까지도 접근을 막을 정도로 엄격히 경계했으며(참조, 출19:13) 만약 누구라도 그곳에 접근하게 되면 돌로 쳐죽이게 되어 있었다. 한편 백성의 대표자로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을 가졌던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에 압도되어 두려움에 떨 정도였다(참조, 신9:19).
- (6) 그러므로 구약의 유대인들이 묘사한 하나님은 사랑스럽다가 보다는 두려운 존재, 거룩한 존재, 가까이 하지 못할 존재였다.
- (7) 사실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인식에 있어서 이 같은 요소를 무시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권능과 위엄을 갖추신 거룩하신 분이신 반면에 인간은 절대 죄인이기 때문이다(참조, 출15:11; 시99:9; 사6:5).
- (8) 이처럼 율법이 선포된 때에 인간은 죽음의 형벌과 두려움 아래 놓여 있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처지였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로 모든 이들이 생명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참조, 요14:6). 비록 시내 산은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접근할 수 없었으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시온 산에는 오히려 접근하지 않는 자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14. ㉠ 구약의 유대인들과 대조해서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른 곳은 어디인가? (22절)

- ㉠ (1) ‘시온 산’과 살아 계신 하나님의 도성(都城)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여기서 시온 산은 예루살렘의 언덕 중 하나를 말하는데 때때로 이 산은 예루살렘을 대신하여 불리었다(참조, 마21:5). 일반적으로 ‘예루살렘’과 ‘시온 산’ 혹은 ‘시온 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거룩한 집으로 여겨졌다(참조, 계14,21장).
- (2) 그런데 그곳은 이상적이며,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생명과 기쁨이 넘치는 곳이다. 그러므로 그곳은 정체가 되어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하여 활력이 넘치는 곳이다. 결국 이 성은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11:10)이라 할 수 있다.

- (3) 한편 '이른'이란 말은 완성된 상태와 계속되는 상태를 동시에 가리키는 말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들이 들어왔던 하나님과의 교제 상태를 의미한다. 이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교제(예배)가 미래에 있을 하늘나라에서의 교제와 깊은 연관이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 (4) 그러므로 이 체험을 가진 사람은 하늘의 질서에, 또한 물질적인 시내 산과는 대조되는 영적인 시온 산과 살아 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미 들어왔다고 할 수 있다.
- (5) 한편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율법은 범죄때문에만 필요했던 것이지만 하나님과 더불어 친밀한 교제를 하기 위해 주어진 것은 아니었다.
- (6)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변화된 인격을 소유한 우리들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분의 질서에 따라 생활할 수 있으며 더우기 그분과 더불어 영원한 교제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의 거주지는 이 땅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시민권은 분명 '시온 산'과 '하늘의 예루살렘'에 있다(참조, 빌3:20). 그러니 우리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자(11:16).

15. **㉠** 하늘의 예루살렘에는 어떤 존재들이 거하는가? (22, 23절)

- ㉠** (1) 그곳에는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總會)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義人)의 영들이 거한다.
- (2) 여기서 천사들이 언급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존재들이기 때문이며(참조, 신33:2;68:17) 또한 그들마저도 큰 기쁨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영접하기 때문이다.
- (3) 그리고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란 아브라함의 믿음의 혈통을 이어받은 영적인 장자(참조, 출4:22), 즉 신약 시대의 성인들 또는 지상의 교회를 말한다. 왜냐하면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늘 명부에 기록만 되어 있고 아직은 이 지상에 있기 때문이다(참조, 눅10:20; 롬8:16,29; 약1:18).
- (4) 또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정절을 지키다가 축복된 죽음을 맞이하여 인생의 최종 목표에 도달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킨다. 이들은 하나같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온전케 된 자들이다(참조, 11:40).
- (5) 한편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란 표현은 헬라어 어순과 다르기 때문에 '만민의 하나님'이신 심판자'라고 고쳐 읽는 것이 좋다.
- (6)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지혜에 한정이 없으시기 때문에 심판에 있어서도 착오가 없으시다. 그리고 이 '심판자'라는 개념 속에는 압제에 시달리는 의인들의 호소를 감는 자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과부의 재판장(시68:5)과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다.
- (7) 더우기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영역을 '만민'에게만 국한시키시지 않고 천사를 위시한 모든 피조물에게도 당신의 주권을 행사하셔서 심판하시며 보우하신다.
- (8) 이와 같이 절대 주권자이신 심판 주 하나님과 더불어 교회와 의인이 한데 어우러져 기쁨의 잔치를 누릴 수 있게 된 것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이 동일한 장소에서 영원히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은 모두가 율법(시내 산)의 마침과 완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참조, 마5:17).

16. **㉠**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소멸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24절)

- ㉠** (1) 그것은 새 언약의 증보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 낮게 말하는 뿌린 피 때문이다.
- (2) 죄로 더러워진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단지 그분에서부터 오는 심판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으나 '새 언약의 증보이신 예수'로 인하여 그 심판을 모면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

- (3) 즉 예수께서는 시내 산의 무서움을 제거하시고 새 관계를 주신 분이시다(참조, 8:6,8).
- (4) 이 같은 새 언약과 새 관계가 가능한 것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모든 신자들의 심령 속에 뿌려진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 흘리신 예수의 구원의 피 때문이다(참조, 9:6-22).
- (5) 여기서 '예수의 구원의 피'가 '아벨의 피보다 낫다'고 한 것은 아벨의 피는 단지 자신의 원수를 갚아 달라는 호소의 역할을 했으나(창4:10) 예수의 피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와 사죄와 영적 능력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참조, 마26:28; 요6:53-56).
- (6) 이처럼 예수의 희생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였다. 즉 옛 율법의 공포 밑에서는 인간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어 멀리서 떨고 있었으나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담이 영원히 무너지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게 되었다(참조, 엡2:14).

17. ㉠ '땅에서 경고(警告)하신 자와 하늘로 좇아 경고하신 자'는 각각 누구를 가리키는가? (25절)

- ㉠ (1) 하나님께서는 시내 산, 즉 '땅에서' 모세를 통하여 자신의 말씀(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반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의 음성(복음)을 '하늘로부터' 듣는다. 그러므로 '땅에서 경고하신자' 나 '하늘로 좇아 경고하신 자'는 모두 하나님을 지칭한다.
- (2) 그런데 시내 산에서 있었던 모든 계시가 아무리 엄청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땅 위에서'의 한 위치에만 해당이 되었다. 더우기 이 율법은 오직 범죄 때문에(참조, 갈3:19) 주어진 것이며 또한 모세라는 한 인간을 거쳐서 주신 것이다.
- (3)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복음은 성령께서 오순절에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한 것과 같이(참조, 요15:26,27; 16:7-15; 행2:11) 하늘로부터 직접 왔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이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는 하나의 메시지요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시다(참조, 요1:14).
- (4)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받은 복음은 어느 시대, 어느 민족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인류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것이며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이다.

18. ㉠ 이 서신의 수신자들이 받은 경고는 무엇인가? (25절)

- ㉠ (1) 저자는 수신자들을 향해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는 경고를 했다.
- (2)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인들이(땅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였을 때에는 엄한 형벌을 받았다(출32:28,35). 따라서 저자는 이스라엘인들이 땅에서의 음성을 거절함으로써 그에 따르는 결과를 피하지 못한 바와 같이 그리스도인들도 '하늘로부터' 내려 온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배반한다면 그 형벌을 면할 수 없다고 경고하였다.
- (3) 즉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것은 그분을 부인하는 것이며 그가 말씀하시는 것과 그분의 실재를 부인하는 것이라는 말이다.
- (4) 여기서 저자가 이같이 강력한 경고를 발하는 이유는 이 서신의 수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유대교로 되돌아가고자 했기 때문이었다.
- (5) 여하튼 하나님께서는 율법(시내 산)을 통하여 말씀하실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온 산)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이 말씀은 어느 세대와도 관련이 있으며 그 영향력은 어느 곳에서도 미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 말씀하신 자를 거역해서는 안 된다. 땅에서 경고하신 자의 메시지가 지엄하다면 하늘로 좇아 경고하신 자의 메시지는 더욱 지엄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항상 그분의 말씀을 청중하고 그분을 떠나 생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19. ㉠ '또 한번 땅과 하늘을 진동케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가? (26, 27절)

- Ⓐ (1) 그것은 진동치 않는 것불 영존(永存)케 하기 위함이다.
- (2) 그런데 첫번째 땅의 진동은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줄 때 있었다(출19:18). 한편 '또 한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학2:6의 예언과 연관이 있다.
- (3) 이 같은 학개의 예언은 그것이 사소한 사건이 아니라 우주적인 대사건이 될 것을 가리킨다. 즉 땅과 하늘이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 안정되고 영구적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들은 실제로 일시적인 것들에 불과하다.
- (4) 이처럼 일시적이고 불완전한 이 세상이 무너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날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때가 되면 옛 것은 사라지고 요동치 않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출현하여 새로운 질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참조, 사65:17;66:22).
- (5) 이처럼 물질적인 창조물은 진동될 수 있으나 그와 대조적으로 흔들릴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곧 그리스도인이 속한 영존하는 하나님의 나라이다(참조, 28절). 이것은 허상이 아니라 존재하는 실체이다.
- (6) 죄로 그 눈이 오염된 인간은 무엇이 유한하며 무엇이 영원한지를 모른다. 따라서 인간은 단지 눈에 좋게 보이는 것만을 찾아 헤맨다. 그것은 인간 자신도 유한하고 무지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어서이다.
- (7) 여기서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영원한 것이 무엇이며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이다(참조, 고후4:16-18).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하신 존재이신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20. ⓐ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행할 바는 무엇인가? (28절)

- Ⓐ (1) 먼저 은혜를 받아야 한다. 또한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 한다.
- (2) 그런데 이 '나라'는 우리가 '받는' 나라다. 즉 믿는 자가 노력해서 얻는 것도 아니며, 창조해 내는 것도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선물로서 거저 받은 나라이다.
- (3)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 말은 문맥의 흐름으로 보아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자'라 함이 적절하다(RSV).
- (4) 즉 모든 것이 진동하고 넘어질 때 우리에게는 요동치 않는 나라가 약속되었기 때문에 이 같은 사실을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 (5) 그런데 어느 누가 아무리 감사하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지 못하면 감사할 수 없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을 흔쾌히 섬길 수가 있다.
- (6) 한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히 여겨 그분을 섬기는 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해야만 한다. 여기서 '경건함과 두려움'이란 하나님의 위대성과, 그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분의 백성된 우리의 비천함과 무가치함을 강조한 말이다(참조, 행 27:23). 물론 이러한 자세는 비굴한 것이 아니라 기쁨과 자발적인 경배의 상태를 가리킨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의 두드러진 특징은 그분을 경배할 줄 안다는 것이다.

21. ⓐ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29절)

- Ⓐ (1) 하나님께서는 소멸하시는 불이시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은 절대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악과 불신앙을 용납하시지 않기 때문이다.
- (2) 이 표현은 신4:24 말씀의 인용으로 죄를 짓기 쉬운 인간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 속에 경건함과 두려움을 수반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 (3) 만약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보다는 불신앙적인 언행을 일삼는 자에 대해

-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이라는 사실은 이미 시내 산에서 계시된 바 있다(18절).
- (4) 그런데 이같이 거짓되고 더러운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불에 심판을 받아 사라져야 하는 이유는 불변하는 것을 영광 속에 나타내기 위함임과 동시에 일시적인 것들을 파괴하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한 안식처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 (5) 한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몰두하다가 보면 악을 증오하시는 하나님을 잊을 때가 많다. 죄를 용서하시고 인간을 끝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거나 죄를 두려워하게 하는 분이시다.
- (6)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사랑과 공의의 속성을 동시에 가지신 하나님께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섬기며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한다. 어쩌면 우리가 고난받고 불행해 하고 슬픔에 잠기는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알아 가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참조, 호6:3).

연구자료

천사(天使). 천사(angel)란 하나님께서 부리는 영(靈)으로서 하나님과 그의 택한 백성들을 섬기는 자이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같은 천사가 언제 창조되었는지에 관한 언급이 없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천사들이 함께 기뻐하였다는 욥38:6, 7에 의해 우리는 천지 창조 이전에 이미 천사가 창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천사들은 인간과 마찬가지로 지·정·의를 소유한 존재이다. 그들은 비록 전지(全知)한 존재는 아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와 총명을 부여받았다(삼하14:20). 그러기에 그들은 선과 악도 능히 분별할 수 있다(삼하14:17). 그리고 그들이 기쁨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눅2:13) 등은 분명히 정감(情感)을 지닌 존재라는 사실을 입증해 준다. 하지만 이들은 인간과는 구별되는 영적 존재들로서 죽지도 않으며 종족 번식을 위한 결혼도 하지 않는다(참조, 눅20:34-36). 이러한 천사의 수효가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에 관해선 알 수 없지만 ‘천만 천사’(22절), ‘일천 천사’(욥33:23)와 같은 성경상의 언급으로 미루어 보아 그 수효는 무수히 많은 것 같다. 이 같은 천사들에는 가브리엘(단8:16), 미가엘(계12:7), 스랍(사6:1-3), 그룹(창3:22-24) 등이 있는데 이들의 사역은 다음과 같이 매우 다양하다. 첫째, 이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인간에게 전달한다(창18:9, 10). 둘째, 하나님의 백성들을 수호한다(마18:10). 셋째, 하나님의 심판을 보좌한다(행12:23; 계19:17, 18). 이외에도 천사는 항상 하나님 곁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쉬지 않고 있는데(계4:8) 이는 못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야 할 일이다.

제 13 장 성도가 지켜야 할 생활

단락구분 1-6 성도의 본을 보이라 / 7-8 지도자들과 예수 그리스도 / 9-16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생활을 하자 / 17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라 / 18-19 기도의 요청 / 20-21 저자의 축복 기도 / 22-25 마지막 권면

- 1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 2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 3 자기도 함께 갇힌 것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 4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 5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 6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 7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 8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 9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써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써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 10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나니
- 11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롭이니라
- 12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케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 13 그런즉 우리는 그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14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15 이렇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16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 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17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18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하므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19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를 위하여 너희 기도함을 더욱 원하노라

20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 내신 평강의 하나님이니

21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22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23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저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24 너희를 인도하는 자와 및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25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1. ㉠ 본장의 내용 구성에 있어서 특징적인 것은 무엇인가?

㉠ (1) 1-12장까지 전개되어 오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구원 교리들이 거의 마무리되고

본서의 마지막인 본장에서는 구원받은 하늘나라의 시민들이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특별한 주제가 없이 실제 생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이 다루어지고 있다.

- (2) 그러므로 본장은 본서의 부록과도 같은 성격을 띤다. 더우기 어떤 주석가들은 본장이 전장(12장)까지 기술한 저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 기술 첨부되었다고 할 정도로 그 내용상 차이가 많이 난다.
- (3)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본장의 내용을 깊이 연구하지 못한 소치에 불과하다. 본장에는 본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논의점이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고 계속 전개되고 있으며 그 언어에 있어서도 전장들의 것과 차이가 나지 않으며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에 대한 설명(9-14절)은 전장과는 긴밀한 연관성을 말해 주기에 충분하다.
- (4) 따라서 본장에 나오는 여러 문제들과 그에 대한 교훈들은 더 중요한 영적인 교훈들(1-12장)을 강조하기 위해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덧붙여진 부가적인 권면과 인사 정도로 평가 절하해서는 안 된다.
- (5) 특별히 본장에 전개되고 있는 문제점들과 교훈들은 오늘 우리들의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깊이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2. ㉠ 성도들이 이웃에 대해 행할 덕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1절)

- ㉠ (1)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이웃에 대해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할 덕목 중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다.
- (2) 이처럼 '형제 사랑'(헬, 필라델피아)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이지만 특별히 본서신의 수신자들 중에는 그리스도를 포기하고 유대교에 돌아가려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사랑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 (3) 예수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함을 받아 하나의 지체를 형성한 교회 공동체는 서로간에 따뜻한 배려와 보살핌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참조, 롬12:10; 살전4:9; 벧전1:22; 벧후1:7).
 - (4)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한 성도들이 서로 고난 가운데서도 격려하면서 믿음이 약한 자들을 사랑으로 돌본다며는 그들이 구주를 버리고 방황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 (5) 그런데 이 사랑의 실천이 한 순간에 그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즉 사랑이 제공하는 매력 때문에 사람들은 내가 형제를 사랑하겠노라고 선뜻 결심을 하지만 그 사랑의 실천 과정에 따르는 여러 고통스러운 일과 손해보는 일 때문에 중도에 포기할 때가 많다.
 - (6)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참조, 요13:1)을 담은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형제 사랑을 추구해 가야만 한다. 만약 사랑에 추진력이 결여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형제를 괴롭히고 소속된 공동체에 폐를 끼치는 일이 된다. 우리는 한번 잡은 형제 사랑이라는 쟁기를 놓치거나 뒤돌아 보지 말고 어떠한 역경(감정상, 물질상)이 닥친다 하더라도 계속 그 일을 추진해 감으로써 생명과 기쁨과 진정한 교제가 있는 옥토를 가꿔 가야 한다. 형제 사랑이 있는 곳에서만 그리스도가 발견된다.

3. ㉠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한 자들은 평상시 어떤 선행을 행하였는가? (2절)

- ㉠ (1) 그들은 평상시 손님 대접하기를 즐겨 하였기 때문에 천사를 대접할 기회를 가졌다.
- (2) 그런데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창18:3)과 롯(창19:2)이 손님 대접을 즐겨 하다가 예기치 않게 천사를 대접한 기록을 상기시킨다.
 - (3) 그런데 여기서 강조하기는 천사를 대접하기를 기대하면서 또한 어떤 상이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손님 대접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손님 대접이 하나의 습관처럼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 (4) 당시 사회에 있어서는 여행자들이 거처할 숙소가 그리 많지 않았으며 숙박 시설이 있다 하더라도 비용이 매우 비쌌기 때문에 쉽게 이용할 수는 없었다. 그러므로 여행을 하는

형제들을 대접하는 것은 그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더우기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들이나 형제들을 대접하므로 자신들도 복음 전파에 일익을 담당하게 되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어떻게 보면 복음 전파자들에게 대한 대접들이 곳곳에 있었기 때문에 복음의 확산이 더욱 용이했다고 볼 수 있다.

- (5) 각박한 세태로 표현되는 오늘날 자신의 집을 열어 놓고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형제들을 맞아들여 기꺼운 마음으로 대접하는 일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모두가 행해야 할 아름다운 덕목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분명 자신의 집을 개방해 놓고 어떤 사람이든 사랑으로 맞아들이는 자의 집을 찾아가실 것이다(참조, 마25:35-40).

4. ㉠ 성도들은 갇힌 자들을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돌보아야 하는가? (3절)

- ㉠ (1) 저자는 수동적인 입장에서 손님을 맞아들이라는 권면에서 진일보하여 적극적으로 형제를 도우라는 의미에서 갇힌 자를 돌보라고 했는데 이에 대해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고 하였다.
- (2) 초대 교회 당시에 있어서 감옥에 갇혔던 자들은 감시자들로부터 매우 가혹한 대우를 받았다. 더우기 그들은 음식과 필수품까지도 동정자(同情者)들에게 의존해야만 했을 정도로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었다.
- (3) 한편 기독교도들을 박해하던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그리스도인들 중에 복음을 인해 갇힌 자들이 부지기수였을 것이다. 따라서 저자는 수신자들에게 갇힌 형제들을 돌보아 달라고 호소하였다.
- (4) 그런데 때때로 사람들은 갇힌 자들과 똑같이 대우를 받을까 두려워서 또는 그들과 같은 처벌을 받는 것이 두려워서 돕는 것을 회피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들을 생각해야만 했다. 즉 형제에 대한 동질감을 가지고 또한 위험도 무릅쓰고 돕는 일을 행해야 했다.
- (5) 사도 바울도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고전12:26)라는 말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강조한 바 있다.
- (6) 사실 우리가 형제를 돕는 일은 너무나 당연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다 보답할 수 없을 정도로 풍부한 사랑과 은총을 받은 몸이기 때문이다. 더우기 우리는 연약한 육체를 지녔기 때문에 언제 그러한 위험(옥에 갇히는)에 처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돕는 일은 그리스도인이 각자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연출하여야 할 신앙적 표현이다(참조, 갈6:2,10).

5. ㉠ 사람이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寢所)를 더럽히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4절)

- ㉠ (1)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 (2) 혼인 제도와 성의 즐거움 또는 유용성은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신비한 내용물이다(참조, 창2:18-25). 이렇게 신비한 것들을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그것을 병적이고 불건전하며 창조 질서에 위배되게 사용하도록 하신 것은 절대 아닐 것이다.
- (3) 특별히 본절에서 '혼인을 귀히 여기라'고 했는데 이 말은 '결혼을 값지게 하라'(RSV) 또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걸맞게 결혼 생활을 하라'는 의미이다. 그 당시 금욕주의자들은 결혼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천시하기도 했으며, 반면에 도덕 폐기론자들이나 쾌락주의자들은 결혼 제도의 번거러움을 떨쳐 버리고 자유로운 성생활을 즐기라고 가르쳤다. 본절에서 '침소'란 성생활의 완곡한 표현이다.
- (4) 이에 저자는 결혼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견해들에 대해 반기를 들었다. 그중에 음행(헬, 포르네이아) 곧 무절제한 성생활과 간음(헬, 모이케이아) 곧 정상적인 부부 관계를 파괴하는 행위 등에 대해 그 모든 범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다고 강

력한 어조로 경고한 것이다.

- (5) 오늘 우리 주위에는 ‘성 해방’, ‘프리 섹스’(free sex), ‘동성 연애’, ‘계약 결혼’, ‘바캉스 베이비’(vacances baby), ‘미혼모’, ‘두 집 살림’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범죄의 패턴들이 산재해 있다. 이 모든 것은 인간을 이롭게 하기 보다는 성병(A.I.D.S 등), 사회질서와 가정의 파괴 등 궁극에 가서는 인간을 절대 해롭게 한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1차적 심판일지 모른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창조 질서를 역행하는 모든 현상과 인격들을 철저히 규명하셔서 심판하실 것이다(참조, 창19:4-28; 고전 6:9; 벧후2:14).

6. ㉠ 인간의 어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은 어떤 것인가? (5절)

- ㉠ (1) 하나님께서는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위로의 말씀을 주셨다.
- (2) 이 말씀의 인용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창28:15; 신31:6,8; 수1:5 등에서 이와 유사한 말씀이 발견된다.
- (3) 그런데 이 위로의 말씀은 A.D. 64년경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황제 네로(A.D. 54-68)의 박해로 소유를 잃고 가족을 잃는 고난을 배경으로 하였다(10:34).
- (4) 이처럼 그들이 비록 박해를 통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죽한 줄로 알아야’ 했다.
- (5) 사실 이기적인 탐욕은 타인의 권리와 소유를 침해하게 되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죄악을 범하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도 이러한 관점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딤후6:10)라고 했다. 여기서 ‘돈을 사랑한다’ 함은 돈에 자신의 모든 소망을 둔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다.
- (6)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의 어려움을 그대로 보고만 계시지 않을 것이며 그들을 돌보아 주실 것이다. 결국 경제적인 염려와 돈을 절대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성을 부인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참조, 마6:33; 7:11).
- (7) 그러므로 하나님의 살아 계심과 그분이 자신의 구주요 후원자라는 사실을 믿는 자는 항상 그 생활에서 만족과 감사가 넘쳐 나게 될 것이다. 결국 만족과 감사는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신앙의 소유자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의 여유라 할 수 있다(참조, 살전5:18).

7. ㉠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인간의 마땅한 응답은 어떤 것인가? (6절)

- ㉠ (1)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들은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요’라는 고백을 한다.
- (2) 이 귀절은 시118:6을 인용한 것인데 여기에는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고 있는 자의 자신감이 잘 나타나 있다. 즉 하나님께서 자신을 돕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며 결코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는 말이다(참조, 롬8:35-39).
- (3) 또한 인간의 나약성을 지적하는 말도 포함되어 있다. 즉 이 세상의 막강한 권력을 가진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해할 수 없다는 확신 속에서 하나님과 겨룰 만한 인격체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참조, 롬8:31).
- (4) 이처럼 만일 우리가 절대 권력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결코 이 세상의 어떤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반면에 어떤 것을 두려워한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할 수 있다.
- (5) 만약 그 삶에 자신감과 용기를 잃어버린 자가 있다면 무엇보다 우선하여, 살아 계셔서 당신을 믿는 자들을 도우시는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고 그분이 제공하는 위로의 메시지를 들어야 할 것이다(참조, 렘33:3).

8. ㉞ 저자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자신의 지도자를 따라야 한다고 말했는가? (7절)

- ㉞ (1)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라고 했다. 즉 자신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애쓰는 말씀 전파자들 또는 교회의 지도자들의 생활과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 그것을 자신의 삶의 모범으로 삼으라고 했다(참조, 2:3).
- (2) 둘째로 그들의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라고 했다. 여기서 ‘행실’이란 사회의 일원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가리키는 말이며 또한 ‘종말’(헬, 에크바시스)이란 보통 순교자들의 죽음을 가리키는데 이 귀절은 그들의 삶과 죽음, 즉 그들 자신의 모범적 신앙 생활로 본을 보인 자들을 잘 관찰하여 삶과 죽음에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를 배우라는 명령이다.
- (3) 세째로 저희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했다. 즉 불신앙적인 세력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 배교의 위험성을 안고 있던 자들에게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신앙 선배들의 발자취를 좇아 그대로 행하라는 권면이다.
- (4) 이처럼 신앙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가르치는 자의 삶을 잘 관찰하여 그들에게서 바른 삶의 자세를 배우고 또한 그 듣고 배운 바를 자신의 삶에 적용시켜 나갈 때에 진정한 신앙의 성숙을 맛보게 될 것이다.
- (5) 이상에서처럼 제아무리 훌륭한 교사와 가르침과 안내자가 있더라도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삶으로 열매 맺지 못할 때 참된 의미의 성숙은 있을 수 없다. 사도 요한은 밤모 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접하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계1:3)고 고백했다.

9. ㉞ 믿음의 생활을 배우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8절)

- ㉞ (1)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同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다.
- (2) 즉 영원한 구속자이시며 우리의 교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삶을 좇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보존하며(12:2) 또한 우리가 날마다 성숙해 나갈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비결이다(참조, 엡4:13).
- (3) 사실 우리가 본받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같이 과거 아니면 현재에만 존재할 뿐 영원히 우리의 모범이 될 수 없으며 또한 그들에게는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우리를 실족시킬 수도 있는 결점들이 있을 수 있다.
- (4) 한편 본절에서 말하는 ‘어제’, ‘오늘’, ‘영원’이란 3중적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불변성과 모든 존재의 근원자로서의 탁월성 그리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시간 속에, 어떤 형태의 문제라 하더라도 영원하시며 모든 존재와 사건의 궁극적인 원인이시며 진행자이신 동시에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어야 한다.
- (5) 그러나 우리 성도들 중에는 정작 따라야 할 예수 그리스도는 본받지 않고 인기 있는 목회자들이나 인간적으로 호감이 가는 인물을 절대적으로 따르는 자들이 있다. 믿음과 인격이 훌륭한 지도자들을 보고 배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잘못하면 인간을 따르기 쉽기 때문에 신앙 생활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12:2).

10. ㉞ 성도들에게 있어서 마음은 무엇으로 굳게 함이 마땅한가? (9절)

- ㉞ (1) 여기서 ‘마음’이란 일반적으로 인간 삶에 있어서 가장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특별히 마음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기관으로 생각되는 것으로 이것을 올바르게 유지하여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해야 한다.
- (2) 그러나 이 서신의 수신자들 중에는 유대의 율법이 말하는 바와 같이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음으로써 자신을 정결케 한다든지 그 당시 몽학 선생들의 가르침대로 어떤 의식이나 제사 때 먹는 음식이 은혜를 가져다 준다는 생각을 하는 자들이 있었다.

- (3) 이에 대해 저자는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종교 속에서 음식을 통한 의식으로써도 구원을 얻지 못한 사실을 지적하였다. 사실 그들은 거기에서 아무런 영적인 유익도 얻을 수 없었다.
- (4) 신앙인들은 은혜로써 그 마음을 굳게 할 수 있을 뿐이지 율법이나 음식물 금지 규정을 준수한다고 해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에게 있어선 물질적인 제사 제도나 그에 따르는 의식적 관례들은 모두 폐지되었다.
- (5)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교단이나 교회 나름대로 일종의 규례를 정하여 그것을 지키면 올바른 신앙 생활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결코 인간이 정한 규례나 의식이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다. 그것은 단지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허공 속에 손을 내젓는 행위와도 같다.
- (6)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위해 희생당하신 것을 믿으며 그것을 믿는 자신의 마음에 그분을 최고의 권위의 자리에 두면 그만이다. 오직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바로 우리들이 아닌가.

11. ㉠ 그리스도인의 제단은 무엇인가? (10절)

- ㉠ (1) 그 제단은 예수께서 인류의 죄를 지고 희생 양이 되신 십자가이다.
- (2) 그러므로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 즉 아직도 유대교의 전례에 따라 동물의 희생을 바치는 자들은 인류의 희생 양이신 예수께서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의 제단에서는 아무 권리가 없다.
- (3) 즉 유대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십자가의 예수는 무의미하며 만일 그리스도인이 유대교의 제사에 참여한다면 역시 그에게 있어서도 십자가는 무가치하게 되는 것이다.
- (4) 사실 구약 시대 때 제사장들은 여러 가지 제사를 통해 제단에서 물려 나오는 제물을 각자의 몫에 따라 나눠 먹을 수 있었으나(참조, 레3:34) 속죄일의 제물만은 아무도 먹을 수 없고 모두 태워 버려야 했다(참조, 레16:27). 적어도 그렇다면 그 제물보다 더 뛰어난 효력을 지닌 속죄제의 어린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교의 전통에 따라 어찌할 수는 없는 것이다.
- (5) 저자가 이 말을 하는 배경에는 수신자들 중에 다시 유대교의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자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 갖는 특권을 버려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 (6)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마음에 다른 것을 더욱 중시하거나 섬기는 것과 같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기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섬기지 않기를 바라신다(참조, 약 1:6-8). 우리의 유일한 경배 대상은 유월절 어린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며 우리의 믿는 바 제단은 십자가밖에 없는 것이다.

12. ㉠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구약 시대의 제물은 어떻게 비교되었는가? (11, 12절)

- ㉠ (1) 속죄일이 되면 유대의 대제사장은 수송아지와 염소를 잡아 그 피는 지성소로 가지고 들어가고 시체는 영문 밖에서 불살랐다(레16:14,15,27). 이러한 상황 묘사는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할 때의 제사 제도를 암시해 주는 것 같다. 왜냐하면 '영문'이라는 단어는 군사적인 용어로서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군대로 묘사될 때 자주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 (2) 대제사장은 이 같은 제사를 통해 자신의 죄와 백성의 죄를 속죄받았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제물은 제사장의 소유로 돌아갔으나(레4:3-21;6:23) 1년에 한차례 있는 속죄일의 제물은 아무도 먹을 수 없었으며 반드시 영문 밖에서 태워야 했다.

- (3)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케(속죄) 하시려고 자신의 피를 제물로 바쳤으며 자신의 몸은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했다.
- (4) 여기서 ‘피’는 죽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백성’은 넓게는 모든 인류를 뜻하겠지만 본문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을 가리킨다.
- (5) 한편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말은 요19:7에서 볼 수 있듯이 예루살렘 성 밖에서 진행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 사건을 뜻한다.
- (6) 이처럼 구약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속죄를 예표한다. 즉 예수께서는 속죄일 이 번제와 비교되며, 희생물의 피가 이스라엘의 속죄를 위해 바쳐진 것처럼 예수의 보혈도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위해 뿌려졌다. 희생 제물이 영문 밖에서 태워진 것과 같이 예수께서도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받아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했다.

13. C **예수를 영문 밖의 희생 제물로 비유한 저자는 수신자들에게 어떠한 호소를 했는가? (13절)**

- A** (1) 예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고난을 받으셨으니 ‘우리는 그 능욕(凌辱)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고 호소하였다.
- (2) 여기서 ‘능욕을 진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통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성도에게 적용될 때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유대인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거나 순교하는 것을 말한다.
- (3) 사실 그 당시 유대교도는 로마 정부의 비호 아래 평안한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구원을 체험한 성도는 그러한 안전한 종교를 떠나 죽음과 고통이 기다리는 영문 밖으로 나가야만 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만 했다(참조, 빌30:10; 골1:24).
- (4) 그리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라 함은 곧 유대교로부터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미 유대인들로부터 배척을 받아 영문 밖에 계시기 때문이다. 반면 유대교의 영문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은 그리스도와와의 분리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현실의 안전을 추구하는 자는 내세의 안정을 보장받을 수 없다.
- (5) 더우기 영문 밖에 계신 예수께서는 자신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를 씻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얻은 성도가 그분을 따라가는 것과 그분이 당하신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당연하다.
- (6)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성도들이 떨쳐 버리고 나와야 할 영문들이 있다. 즉 우리들의 편견과 아집, 자기 중심주의와 배타심, 세속주의, 안일주의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비록 종교라는 이름을 쓰고 행해지더라도 결코 예수 그리스도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우리는 그러한 굴레로부터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할 것이다.

14. C **성도들이 능욕을 져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14절)**

- A** (1)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장소들에는 영구(永久)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 (2) 즉 지상의 도성들은 덧없고 임시적이며,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없는 나그네이며 이방인이기 때문이다(11:13).
- (3) 그리스도인들은 장차 나타날 영원하고 변치 않는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간다(참조, 고후 4:16-18). 따라서 본서신의 저자나 수신자들은 동쪽으로부터 배척을 당하여 영문 밖에 거하거나 육체적, 물질적 피해를 입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약속되어 있으며 머지않아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나라가 도래할 것이기 때문이다(참조, 계22:20).
- (4)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의 헛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만을 위해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소비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우리는 다만 영원한 나라가 임할 때까지 우리의 영혼을 깨끗이 유지해야 한다.

15. ㉠ '찬미의 제사' 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15절)

- ㉠ (1) 먼저 본서의 저자는 앞 부분에서 완전하여 흠이 없고 반복할 필요가 없는 한 제사가 우리의 위대하신 대제사장에 의해 하나님께 드려졌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제 본절에서 날마다 그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또 다른 제사가 있다고 말하였다.
- (2) 그런데, 그 제사는 하나님께 속죄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이다. 그것이 곧 '찬미의 제사'인 것이다.
- (3) 여기서 '찬미의 제사'란 찬미를 함축하고 있는 제사로서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유일한 제사를 말하는데 그 제사는 영적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늘 체험하기에 감사가 넘쳐나는 제사이다(참조, 롬12:1).
- (4) 그런데 이 제사는 더 이상 예전의 유대적 형식을 취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적 중보에 의하여서만 드려진다.
- (5) 또한 유대교의 제사는 규칙적인 시간에 따라 진행된다. 그러나 이 '찬미의 제사'는 어떤 특정한 상황이나 형식에 의해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드려져야 한다. 왜냐하면 사랑의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사람들을 위해 일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을 확인하는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 아래서도 감사와 찬송이 있는 제사를 드려야 한다(참조, 살전5:18).
- (6) 한편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란 잠18:20;호14:2에서 그 사상을 엿볼 수 있는데 이는 그분의 '이름'으로 대표되어진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 성도들의 감사하며 찬송하는 '입술'을 통하여 증거된다는 의미이다. 결국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은총을 입은 성도는 그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그 결과 그에게는 찬양과 감사가 넘쳐 나게 되는데 그것이 곧 성도가 드릴 수 있는 '찬미의 제사'가 된다. 더우기 성도의 삶을 통해 드려지는 그 제사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게 된다.

16. ㉠ 저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어떤 것이라고 말했는가? (16절)

- ㉠ (1) 그것은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 주기를 잊지 않는 생활이다.
- (2) 즉 이제는 짐승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는 드릴 필요가 없다. 이제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교제'(헬, 코이노니아)를 통해 서로 위로하고, 기뻐하며, 물건을 나누는 제사를 드려야 한다.
- (3)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는 '영문 밖에서'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에 의해서 그 의미하는 바가 달라졌다.
- (4) 그런데 그것이 제사라고 하였지만 그것은 복잡한 의식이 따르는 제사는 아니다. 그것은 단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에 대한 구제와 나눔과 선행을 위주로 한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

17. ㉠ 저자는 수신자들의 지도자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가? (17절)

- ㉠ (1) 자신들을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여기서 '순종'(헬, 페이데스테)이란 적극적으로 인도하는 자의 가르침에 순응하는 것을 말하며, '복종'(헬, 페페이케테)이란 마음은 그렇지 않더라도 인도자의 말이 자신을 유익되게 하는 것임을 믿고 따르는 자세를 가리킨다.
- (2) 한편 본절에 언급된 지도자들은 지금도 수신자들의 양육에 책임을 지고 있는 자라는 점에서 7절의 이미 죽어 버린 지도자들과 차이점이 있다.
- (3) 한편 본절에 언급된 지도자들이 절대 복종해야 할 이유는 그들이 성도 개개인의 영혼을 위해 마치 자신의 이익이 결부된 문제를 밤을 새워 가며 철저히 규명하듯이 영적으로

긴장하며 깨어 기도하면서 수신자들을 보살피기 때문이다.

- (4) 그들은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양 무리(교인들)를 인도할 권한과 책무를 부여받은 자들로서 성도를 향한 그들의 행동 모두는 하나님께 대한 자발적인 복종이며, 책임 수행이라는 점에서 우리들은 그들의 위치와 활동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 (5) 더우기 성도를 위한 그들의 깨어 있는 작업이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성도 개개인은 그들에게 근심을 끼치지 말아야 한다. 즉 성도들은 그들에 대한 존경심과 순종을 통해 그들이 추구해 나가는 성도 양육과 성도의 믿음 보존이라는 대사명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 (6) 물론 지도자들에 대한 존경이 성경과 하나님의 권위 이상으로 중요시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권세와 지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도구적 기능을 감당해야 한다.

18. ㉠ 저자는 수신자들에게 무엇을 부탁하였는가? (18, 19절)

- ㉠ (1) 저자는 자신이 모든 일에 선(善)하게 행동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선한 양심을 갖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기를 바랐다.
- (2) 여기서 우리는 저자와 수신자들 사이에 어떤 오해가 발생하여 수신자들이 저자를 비난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저자는 자신이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있음을 말하였고 또한 자신의 양심이 올바르다고 생각하였기에 저자는 그들에게 기도를 요청할 수도 있었다.
- (3) 사실 깨끗한 양심을 소유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또한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할 수 없다. 왜냐하면 깨끗한 양심은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이다(참조, 벰전3:21). 양심에 화인 맞은 자(참조, 딤후4:2)는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인정을 받을 수 없다.
- (4) 또한 저자는 빠른 시일 내에 수신자들에게 돌아가기를 바랐는데 이 바람이 실현되기 위해서도 수신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했다.
- (5) 여기서도 우리는 저자에게 어떤 장애 요인이 있어서 수신자들에게 갈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어떤 종류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 문제를 안고 있는 자는 바로 저자이며 이를 위해 수신자들이 기도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인 것을 알 수 있다.
- (6) 이처럼 사람은 어느 누구나 곤경에 빠질 때가 있으며, 그 곤경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도 물론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지만 주위 사람들의 기도도 그가 그 곤경에서 빠져나올 때 큰 도움이 된다. 기도는 모든 인간적인 오해를 불식시키고 흠어진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 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될 수 있게 하는 도구가 된다. 기도가 있는 교회만이 온전한 교제와 예배와 봉사를 기대할 수 있다.

19. ㉠ 저자의 축복 기도 속에 언급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역할은 무엇인가? (20절)

- ㉠ (1) 먼저 '예수께서는 양의 큰 목자가 되신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양들인 인간을 극진히 사랑하셨으며, 그들의 구원을 위해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양의 큰 목자'가 되셨다(참조, 사63:11; 요10:11).
- (2) 더우기 예수께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셨다. 즉 우리를 그의 피로 사시고 얻으셔서 우리를 그의 것으로 삼으셨다. 이것은 피로 세운 새 언약으로 그 언약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며 그 상대자는 우리 모두이다. 그리고 이제 그분은 사랑과 은혜로써 우리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주'가 되시는 것이다.
- (3) 즉 예수께서는 자신의 피로 인간의 궁극적인 구원을 이룰 수 없었던 옛 언약과 대치될 수 있는 새롭고 영원한 언약을 세움으로써 단번에 구원을 이루었다(참조, 사55:3; 속9:11).

- (4) 더우기 이 언약의 확실한 보증으로서 예수께서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 결과 모든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다(참조, 롬6:5).
- (5) 그런데 이 같은 부활과 구원을 가능케 하신 주체자는 곧 인간을 평안과 번영 가운데 있게 하시는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 (6) 여기서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명칭은 죄로 인하여 원수되었던 당신과 우리 사이를 예수의 피로써 화해시키는 사랑의 행위, 즉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즉 그분께서는 고통 가운데 있는 인간들을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참조, 고후5:17,18).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고난 가운데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며 그들을 평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항상 인간을 깨우치시고 보살피신다(참조, 롬15:33; 빌4:9; 살후3:16). 이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그러한 평강이 있기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20. ㉠ 수신자들을 위한 저자의 축도는 무엇인가? (21절)

- ㉠ (1) 저자가 축도한 내용은 결국 성도를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기를 소원하는 기도문이라 할 수 있다. 사실 이것이 성도를 위한 최선의 축도이기도 하다.
- (2) 여기서 ‘모든 선한 일’이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 갖고 계시며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한다(참조, 빌1:6; 2:13). 그런데 이 기도 속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신자들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여야 한다는 사상이 들어 있다.
- (3) 따라서 저자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온전케’ 하시기를 축원하였다. 즉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신령한 삶에 있어서 잘못된 것을 바르게 하시기를 바랐던 것으로서 이 ‘온전케 하다’(헬, 카타르티조)는 말은 ‘충분하게 공급하다’, ‘부서지고 찢어진 것을 수선하다’, ‘조절하다’, ‘구비하게 하다’ 등의 의미로서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기를 기구한 것이다.
- (4) 그런데 저자는 이 같은 일들이 자신과 수신자들 가운데서 이루어져서 결국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 (5) 즉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과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평강으로 인도하시며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도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야 한다는 생각이다.
- (6)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 생활이 구현되어야 한다. 즉 그분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그분께 맡기어야 한다(참조, 갈2:20).
- (7) 결국 성도의 삶과 신앙과 기도, 그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방편이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축도는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으로 끝나고 있다.

21. ㉠ 저자는 수신자들을 향해 권면한 본서의 내용을 마무리지으면서 어떤 양해를 구했는가? (22절)

- ㉠ (1) 저자는 본서가 수신자들에 대한 권면의 말임을 밝히면서 이를 용납하라고 하였다.
- (2) 이제까지 저자는 수신자들에 대해 책망과 격렬한 어투로 여러 충고들을 하였으나 이 모든 말들이 결코 사사로운 감정에 의하지 않고 그들의 신앙 성숙을 위한 교훈이니만큼 수신자들은 이 말을 시비 없이 받아들여 주었으면 하는 양해의 말을 부드러운 어조로

피력하였다(참조, 행13:15).

- (3) 한편 저자는 이 권면의 말을 간단히 썼다고 말했는데 이는 광범위한 주제에 비해 본서에 제시된 글이 짧다는 의미이다.
- (4) 이상에서 발견할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는 전해야 하는 주제에 대해 사사로운 감정을 떨쳐 버려야 할 뿐 아니라 그 메시지를 듣고 읽는 자들에 대해서도 고압적인 자세를 떨쳐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말씀 선포자가 가장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은 청중의 영적 성숙이어야 한다.

22. **㉠** 저자가 수신자들에게 주는 새로운 소식은 무엇인가? (23절)

㉠ (1) 그것은 '디모데가 놓였다'는 사실이다.

(2) 여기서 '디모데'는 바울의 동역자로서 본서의 수신자들에게 잘 알려진(어떻게 보면 그들의 지도자였는지도 모른다) 인물이었음에 틀림없다. 그리고 그가 '놓였다'는 말은 그가 '옥살이에서 풀려 났다'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한편 성경 다른 부분에서 디모데가 옥살이 한 흔적을 찾아 볼 수가 없기에 그가 언제 어떤 이유로 이러한 생활을 했는지는 알 수 없다.

(3) 혹자는 본서의 저자가 디모데 신변에 관한 이러한 정보를 제공할 정도로 디모데와 긴밀한 연관이 있는 자라는 측면에서 본서의 저자를 사도 바울로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확실한 근거에 의한 견해라 볼 수 없다.

23. **㉠** 수신자들에 대한 본서 저자의 문안 인사에서 발견할 수 있는 점은 무엇인가? (24절)

㉠ (1) 저자는 먼저 수신자들이 인도자들에게 문안하기를 구하였다. 이는 본서신이 교회 전체에게나 지도자들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집단에 보내진 것임을 가르쳐 주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뭇 모든'이라는 말을 통해 확정할 수 있다.

(2) 한편 수신자들을 문안하는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이 누구를 의미하는지 정확치 않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달리아에 흩어져 사는 자들인지 아니면 이달리아가 고향이면서 이달리아 밖에서 사는지가 분명치 않기 때문이다(참조, 행10:23;21:27).

(3)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들도 '성도'라는 사실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지역적, 신분적 조건도 형제 되는 일에 방해 요인이 될 수 없다. 성도가 서로에게 문안하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한 행위이다.

24. **㉠** 수신자들을 향한 저자의 마지막 기원은 무엇인가? (25절)

㉠ (1) 저자는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있기를 바랐다.

(2) 이러한 기원은 신약 성경 서신서들의 말미에서 흔히 찾아 볼 수 있는 상례적인 문구이다(참조, 딤후3:15).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한 성도가 형제들의 영혼을 생각하며 할 수 있는 뜨겁고 간절한 호소이다. 우리는 여기서 고요 속에 담겨 있는 신앙적 정열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3) 한편 본절에 언급된 '은혜'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공급하시는 충만한 은총이다(참조, 롬1:4;고전16:23;갈6:18;빌4:23).

(4) 저자는 이 같은 은혜가 결코 자신이 잘 알고 있는 그리고 절친한 형제들에게만 있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끼쳐지기를 소원하였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될 수 있는 인격은 이 세상에서 아무도 없다. 이것은 우리의 전도와 기도와 봉사와 희생의 필연성과 당위성을 강조하는 내용임에 분명하다.